

석사학위논문

# 컷

패트리샤 맥코믹



제주대학교 통역대학원

한영과

최 경 선

2006년 7월

석사학위논문

컷

패트리샤 맥코믹



제주대학교 통역대학원

한영과

최 경 선

2006년 7월

# Cut

Patricia McCormick

Choi, Kyongsun

(Supervised by Professor Park, Kyongran)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Department of Korean-English

GRADUATE SCHOOL OF INTERPRET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2006. 7.

# 목 차

Abstract.....	ii
I. ....	1
II. ....	37
III. ....	91
저자약력 .....	103
참고문헌 .....	104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Abstract

This thesis is the translation work of "Cut" written by Patricia McCormick published in 2000. The work Cut is about a fifteen-year-old girl, Callie who refuses to speak to anyone at Sea Pines, the residential treatment facility. She cuts herself to escape from the reality in which she has to deal with the family trauma. As she reluctantly becomes involved with the other guests, other young girls struggling with problems of their own, Callie starts to find her voice little by little and confront her problem. Since published, this work has been read by teenagers who might have similar troubled mind as Callie's.

# I

당신은 말을 하고 안하고는 내게 달린 일이라고 했다. 몸을 앞으로 숙여 티슈박스를 내 앞에 놔주는데 당신이 앉아있는 검은색 가죽의자가 산짐승처럼 신음소리를 냈다. 누군가에게 도살당하고 정신이상자들을 상대하는 상담의사용 의자로 탈바꿈하기 전에 살아있는 소처럼.

당신이 스타킹 신은 다리를 꼬면 ‘쓷’ 하는 소리가 났다. “어떻게 된 건지 기억하겠니?” 라고 당신이 물었다.  
난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

지난 번 크로스컨트리 대회였고, 바로 6킬로미터 지점이었다. 시간이 지나가듯 모두들 날 앞질러갔다. 상대팀 한 여자아이만 빼고 전부 가버렸다. 우리 둘만 학교 뒤에 있는 숲 사이에 있는 마지막 직선코스를 달리고 있었다.

우리 그림자가 땅 비스듬히 나있었는데, 서서히 하나로 합쳐지더니 그 애 그림자가 내 것 위로 지나갔다.

개 운동화 바닥이 내 앞을 미끄러지듯 위로 아래로 첫발, 그 다음 발. 그런데 바닥을 보니 신발 회사의 이름이 거꾸로 새겨져 있었다. 그 애와 걸음을 맞춰 뛰었다. 그 애가 방금 짊었던 곳을 따라서 발을 디뎠다. 길모퉁이에서 몸을 안쪽으로 기울이기에 나도 그렇게 했다. 숨 쉬는 것도 따라 했다.

그런데 그 애가 없어졌다. 더 이상 그 애를 떠올릴 수도 없었다. 하지만 내가 무서운 건, 정말 무서웠던 것은 언제 그 애를 쳐다보는 것을 멈췄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때 내가 그 애를 볼 수 없다면, 날 보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게 생각났다.

트랙에서 들리는 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호루라기 부는 소리. 희미한 응원 소리, 장갑을 낀 채 손으로 손뼉 치는 짹짹하는 소리. 난 계속 뛰고는 있었지만, 궤도를 벗어나 결승선에서 멀어지고 있었고, 차고에 있는 차를 지나서, 깃대, 그리고 “용감한 자들의 고향”이란 간판을 지나고 있었다. 패스트푸드 식당을 지나 정비소, 비디오 가게. 새로 지은 집과 공원을 지나서 아무튼 주택단지 입구에 서있기 전까지는 계속 뛰고 있었다.

이제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천천히 걸으면서 엄마들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사각형의 노란색 전등이 보이는 창문이 있는 집들, 아이들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사각형의 파란색 전등이 보이는 창문이 있는 집들을 지나서 드디어 차도는 텅 비어있고 전등도 꺼져있는 우리 집에 도착했다.

집으로 들어가서 스위치를 켰다.

그러자 불빛이 번쩍거렸다. 부엌이 옆으로 미끄러지듯 눈에 들어오다가 곧 똑바로 보였다.

문에 기대서서 “다녀왔어요.” 혼자 중얼거렸다.

부엌이 왼쪽, 그리고 오른쪽으로 기울었다가 다시 똑바로 섰다. 식탁 가장 자리를 붙잡고, 식탁 위의 잡동사니 때문에 밥을 더 이상 하지 먹지 않은 건지 아니면, 그곳에서 밥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식탁에 잡동사니가 있는 건지를 기억하려고 애썼다.

식탁에는 솜뭉치, 글루건, 레이스 칼개, 그리고 1997년판 크래프티 키친(Krafty Kitchens) 카탈로그가 있었다. 그 옆에는 손잡이에 “익젝토”(EXACTO) 라고 새겨진 특수 수공예용 칼이 있었다. 그것은 만년필처럼 매끄럽고 칼끝은 얇은 삼각 날이었다. 그것을 집어 들고 칼개에 칼날을 대봤다. 작은 매듭이 너무나 쉽게 떨어져버렸다. 식탁에 있는 리본에 칼날을 댄 다음 아주 살짝 눌러봤다. 리본이 두 조각으로 나뉘더니 소리 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 다음 칼날을 손바닥에 올려놨다.

따끔거리는 느낌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마룻바닥이 비스듬히 기울어지더니, 몸이 소용돌이처럼 날아가 버렸다.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기다리며 천장에서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칼날 끝 아래에서 꽃처럼 피어나며 완전히 수직으로 분출하는 핏줄기였다. 그 핏줄기는 길고 크게 거품이 일었다. 큰 진홍색 거품은 점점 커져갔다.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커지다 터질까를 기다리고 있었다. 핏방울이 터졌을 때의 느낌은 끝내줬다. 드디어 만족감을 맛보았다. 그리고는 힘이 빠져버렸다.

하지만 난 그 일을 당신에게 얘기하지 않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난 그냥 팔짱을 끼고 있었다. 내 머릿속은 앞으로 빨리 감기를 하는 비디오 같았다. 아무런 소리도 없는 비디오처럼.

마침내 당신은 한숨을 쉬며 일어나서 “이제 그만.”이라고 말했다.

하루에 두 번 우리는 집단치료를 받았다. 사무실에서 주는 책자에 의하면, 집단 상담치료는 이곳 '시크 마인즈'(Sick Minds) 치료철학의 핵심이 된다고 했다. 바다도 소나무도 없는데도 이곳의 실제이름은 '시 파인즈'(Sea Pines, 해송)라고 했다. 이것저것에 별명을 붙이는 취미가 있는 내 룸메이트 시드니는 이곳을 '시크 마인즈'라고 불렀다. 그 애가 내게 붙인 별명은 'S.T.'(침묵시위) 이다.

이곳에선 우리를 게스트라고 한다. 우리가 겪고 문제는 장애라고 한다. 여자애들 대부분은 신경성 식욕부진환자들이다. 그 애들은 섭식장애가 있는 애들로 취급된다. 어떤 애들은 마약중독자들이다. 그 애들은 중독성 약물중독 장애가 있는 애들로 분류된다. 나머지 나 같은 족속들은 복합 정신분열증환자들이다. 우리는 행동장애가 있는 부류로 취급 받는다. 이곳 간호사들은 감시인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건물은 주거용 의료시설이라고 한다. 정신이상자들을 취급하는 병원이라고 하진 않는다.

집단치료 시간 동안 애들은 정해진 좌석 없이 각자 가지고 있는 장애 별로 앉는다. 섭식장애가 있는 애들 중 '타라'라는 애가 있다. 애는 엄청 삐쩍 말랐는데, 탈모를 숨기려고 야구 모자를 쓴다. 벵카. 말라깽이인 애는 어린 여자애들이나 신는 발목까지 오는 흰색 타이즈를 신고 있는데, 이전에 심장마비를 일으킨 후 바로 병원에서 이곳으로 오게 됐다고 했다. 그리고 데비, 자기 말로는 여기 터줏대감이라면서 엄청나게 똥똥한데, 오렌지색 의자들 중 하나에 앉아있는 그룹 짱 클레어 옆에 있다.

중독성 약물남용 장애 게스트를 보면, 자기 말로는 여태 해본 마약에 전부 중독 됐다는 시드니, 걸으론 멀쩡하지만 코카인을 흡입한 죄로 교도소대신 이곳에 있게 된 티파니. 그 애들은 클레어 맞은편에 모여 앉아있다.

나는 혼자 앉는다. 클레어와 가장 멀리 떨어져있는 의자를 갖고 창문 가장 가까운 곳을 찾아 앉는다. 이곳 온도가 거의 항상 화씨 100도(약 섭씨 38도)가 되는데도, 창문은 열려있지 않다. 오늘 클레어가 애들한테 이야기 좀 해보라고 말할 때, 난 주차장에 있는 차들의 순서를 외워야겠다고 생각했다. 갈색, 흰색, 흰색, 파란색, 베이지색. 갈색, 흰색, 흰색, 파란색, 베이지색.



“자, 숙녀 여러분, 누가 먼저 시작하시겠습니까?” 라고 클레어가 물어본다. 클레어는 손가락으로 작은 텐트모양을 만들고는 기다리고 있다. 나는 클레어의 시야에서 벗어나는 늘 앉는 자리에서 몸을 뒤로 젖히고 앉아 있다.

타라는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있고, 데비는 스웨트 셔츠 위로 배를 문지르고, 베카는 의자를 밀어내고는 데비의 발이 닿은 곳 카펫 위에서 걸스카우트 단원처럼 무릎을 꿇고 앉아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데비는 체중조절용 껌 통을 열고 있다. 웬지 모르지만 항상 가방을 메고 다니는 티파니는 가방 고리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자, 어서, 어제 면회 있었던 날이잖아. 누군가 분명히 할 얘기가 있을 텐데.”라고 클레어가 말했다.

난 외우던 차 리스트에 다른 색깔을 집어넣었다. 갈색, 흰색, 흰색, 파랑, 베이지, 녹색, 빨강. 갈색, 흰색, 흰색, 파랑, 베이지, 녹색, 빨강.

“알았어, 알았다니까.” 데비는 모두가 자기한테 얘기를 해 달라 사정했다는 듯이 말을 시작했다. “당연히 내가 먼저 시작해야지.”

다들 각자 머뭇거리고 있었다. 티파니는 눈동자를 굴렸다.

먹지 않아서 너무 허약한 타라는 집단치료시간 동안 엄청 조는 편인데, 몸을 벽에 기대며 눈을 내리깔아 잠고 있었다.

“끔찍했어. 내가 아니라. 우리 불쌍한 베카.”라고 데비가 말했다. 그 애는 베카의 어린 어깨를 부드럽게 주물러줬다. “얘기 해줄 테니 기다려봐,”

티파니가 한숨을 쉬니까 엄청 큰 가슴이 오르락내리락 했다. “데비, 니가 아니라구? 그럼 어째서 지난밤 자판기에 가려고 에스코트가 필요하다고 간호사한테 애걸하고 있는 게 내 눈에 띄었을까?”

데비는 얼굴이 붉어졌다.

“왜 넌 맨날 다른 사람의 문제를 들먹이는 거냐?” 티파니가 따졌다. “데비, 니 얘기 좀 해봐. 면회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이야.”

데비는 티파니를 찌려보며 “별일 없었어.”라고 했다

“그러셔?” 시드니가 매몰차게 말했다.

“그래,” 데비가 대답했다.

“개떡 같은 소리하네.”라며 티파니가 비웃는데 입에서 침이 튀었다.

데비한테만은 그 말이 욕이나 마찬가지로였다. 애들이 욕하는 것을 정말 싫어했다. 방안 온도가 한 110도까지 올라가고 있었다.

“데비, 티파니가 한 말 어떻게 생각해?” 라며 클레어는 진지하게 물어봤다.

데비는 어깨를 으쓱거리며 “상관 안 해.”라고 했다.

시드니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데비를 가리켰다. “상관이 있어야지, 너 열 받았잖아. 데비, 그렇다고 해.”

모두들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다.

“글쎄, 티파니가 욕을 안 했으면 좋겠어.” 데비는 클레어에게 답을 했다.

“날 쳐다보고 말하지 그러냐? ‘티파니, 니가 욕하는 거 맘에 안 들거든? 그 지랄 맞은 입 좀 조심해 주실래요?’라고 하시지?”

타라는 킁킁거리지만 시드니는 참고 있었다.

데비는 입을 벌려 딱딱한 표정으로 미소를 지으려는데, 턱이 덜덜 떨렸다. 그때 난 손바닥을 바지에 문질렀다.

“내가 너네랑 달라서 모두 날 미워한다는 거 알아.” 울지 않으려고 애쓰려니까 데비의 얼굴이 아주 빨개지고 있었다.

“난 널 미워하지 않아.” 베카는 데비를 향해 목을 쭉 뻘다.

“니넨 어쩔지 모르지만, 난 이곳에서 나가고 싶어. 이곳에 앉아서 시시껄렁한 옛날 얘기하면서 불평하는 거 듣고 싶지 않아.” 데비가 말했다.

티파니는 손바닥을 천장 쪽으로 쳐들고는 포기했다는 듯 했다. “누구 또 얘기 할 사람 없니?” 클레어가 물어봤다.

난 가만히 있었다. 클레어는 바다앵귀지의 명수였다. 손톱을 깨무는 건 말을 하고 싶다는 것. 몸을 앞으로 숙이는 것, 뒤로 재끼는 것 모두 애길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난 움직이지 않았다.

시드니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난 면회 얘기해도 상관없는데.” 이라고 했다.

모두들 숨을 내쉬었다.

“엄마는 면회 오기 전 탄산수 몇 병을 마시고 와선 계속 입 안에 구취 제거를 뿌리고, 아빠는 시계를 보면서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고, 여동생은 앉아서 수학숙제를 했어.”

나는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화씨를 섭씨로 계산하는 공식이 생각이 났다. 화씨 110도는 섭씨로 얼마나 될까 계산하고 있었다.

“우리 식구들은.....” 시드니는 펜 끝을 마치 재떨이에 담뱃재 털 듯 툭툭 두드리고는 “.....양질의 시간을 보낸 거지.”라고 했다.

애들이 심하게 웃어댔다.

“식구들이 면회 왔을 때, 니 기분이 어땠는데?” 라고 클레어가 물었다.

“좋았어.” 시드니 얼굴에 미소가 약간 시들했다. “내 말은 그냥 집에 온 느낌이란 얘기야.”

그건 농담이었다. 하지만 누구도 웃지 않았다. 시드니는 애들 모두를 둘러 보고 있었다.

“있잖아.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 기대할게 뭐가 있겠어? 기대 같은 거 안 하면 실망할 필요도 없잖아.”

타라가 손을 들어 물어봤다. “넌 그랬어?”

시드니는 이해를 하지 못하고 되물었다. “내가 뭘 그래?”

“실망했냐고?”

시드니는 여전히 이해를 못한 눈치였다.

“내 말은, 오해 말구 들어. 좀 전에 넌 데비가 화 안낸 척 한다고 뭐라고 했었잖아. 내 생각엔 지금 니가 열 받은 거 같은데. 니네 엄마, 아빠 그리고 여동생한테 말이야.” 라며 타라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냥 말하기 지겹다는 뜻이다.

“동생한테 화난 거 아니야. 개 잘못이 아니야. 너희들 같으면 토요일 오후를 병신들이랑 보낸다면 기분이 어떨 거 같니?”라고 하더니 시드니는 한 손으로 입을 찰싹 쳤다.

“기분 나쁘게 듣지 마. 내 말은, 우리들이야 항상 병신들하고 같이 있지만 상황은 달라. 우리들 다 그 병신들이니까.”

시드니가 말을 계속 했다. “엄마는 신경 안 써. 내 말은, 뭘 바래? 여기 와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손꼽아 기다렸다고? 그래,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우린 아빤…….”

나는 팔짱을 껴다 풀었다 했다. 앗! 큰 실수한 것이다. 클레어가 눈치를 쳤다. 다행히도 시드니가 말을 끊지 않았다.

“모르겠어. 아빠는 이런 거엔 소질이 영 짱이어서…….”

시드니가 스웨터 밑단을 비틀고 있었다. 손을 엄청 떨고 있었다. 그러면서 웃는 것 같다가 갑자기 울었다. “열 받은 거 아니야.”라면서 “그게……난 그냥……몰라. 실망했을 뿐이야.”

나는 팔짱을 꼭 끼고 초등학교 때 실수로 옷에 오줌을 썼던 애들한테 느꼈던 것처럼 시드니가 안됐다고 생각했다. 이래서 난 집단치료가 싫다. 끝에 가서는 결국 자신들을 초라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래도 니네 부모님은 오기나 했지. 우리 아빠는 아예 나타나지도 않았어.” 티파니가 불평을 했다.

생각지도 않았던 것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것은 바로 면회하는 날 재킷 주머니에 손을 넣고, 맞바람을 피해 고개를 숙이며 인도를 걸어오시는 아

빠의 모습이였다. 나는 대합실 창문을 두드렸다. 아빠가 힐끗 고개를 들었을 때, 난 안경을 쓴 붉은 빛 얼굴의 그 사람이 아빠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다른 애 아빠였다. 다시 난 주차장에 있는 차 색깔 외우는 걸 연습했다.

“그걸 어떻게 생각하니?” 클레어가 티파니에게 물어봤다.

“옛이나 먹으라고 해. 그게 내 생각이야.”

나는 팔짱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껴보고 있었다.

클레어가 “켈리.”하고 날 불렀다.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그 긴장된 분위기가 나에게로 쏟아졌다. 주차장에서 엄청나게 멋진 뭔가를 찾는 듯 눈을 가늘게 뜨고서 갈색, 흰색, 흰색, 파랑, 베이지 색깔의 차를 생각했다. 순서를 잊어버려서 다시 시작해야 했다.

“켈리?” 클레어가 포기 안 했다. “어제 면회 얘기 좀 말해볼래?”

창문과 방충망 사이에 파리 한 마리가 오도 가도 못하고 있었다. 그 파리가 유리에 부딪칠 때마다 깜짝 놀라는 것 같았다. 하지만 비틀거리다가 다시 유리창에 부딪치는 것이었다.

“켈리?”

난 머리카락을 눈앞까지 내리고 기다렸다. 잠시 후, 반대편에 있는 누군가 말을 시작했다. 하지만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내 귀에 들리는 것은 파리가 창문에 부딪치는 ‘앵~톡’ 하는 소리뿐이었다.

모두 줄을 서서 나가면서 큰 소리로 재잘거렸다. 나도 나머지 애들 뒤를 따라 복도로 가서 간호사데스크 옆에 있는 칠판에 체크를 했다. 이름과 집단상담 옆에 치료요법이 적혀있었다. 티파니는 분노조절, 타라는 심리이완 치료. 시드니와 티파니는 또 양호실에 가서 소변검사를 해야 했다. 다른 걸 안 먹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베카, 타라 그리고 데비도 소변검사를 해야 했다. 약을 먹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타라와 베카는 비타민과 영양제를, 베카가 심장 약을 그리고 데비가 우울증 치료약인 프로작을 제대로 복용하는지를 검사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다음에 데비는 체육관에 가서 트레이너가 시키는 대로 런닝머신과 씨름을 해야 한다. 타라와 베카는 런닝머신을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고, 천천히 걷는 운동을 반드시 해야 했다.

내 이름 옆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데도 가지 않아도 됐다.

내가 칠판을 확인하는 것을 누가 보기 전에 얼른 그 자리를 피했다. 얼마 전 간호사 데스크에서 오랫동안 얼쩡거리는 것을 좋아하는 데비가 베카에게 말하는 것을 엿들었는데, 그건 바로 시크 마인즈 의사들이 내 문제를 놓고 여전히 고민 중이라는 거였다.

새로 온 게스트나 부적절한 행동을 보이는 애들, 즉 1 레벨 때는 혼자 돌아다니는 건 금지였다. 적절한 행동을 보여서 십 포인트가 쌓이면 올라갈 수 있는 2 레벨에서는 오락실과 치료를 받으러 각자 알아서 갈 수 있지만, 세탁실이나 자동판매기를 사용할 때는 에스코트가 있어야 했다. 데비처럼 얼마 있지 않아 퇴원하게 되는 3 레벨 애들이 에스코트역할을 했다. 하지만 섭식장애 문제가 있으면 다른 감시인이나 다른 3 레벨 애들과 같이 있어야 자판기를 쓸 수 있었다. 이게 바로 복잡한 시크 마인즈식 학습 시스템이었다. 누가 굳이 물어본다면, 난 1레벨에 있는 것이 차라리 속 편하다고 대답했을 것이다.

그래서 애들이 치료를 받는 동안 내가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곳은 자습실이었다. 그곳은 신시아라는 감시인이 책임자인데, 교실 앞에 앉아 두꺼운 연습문제 책을 풀고 있었다.

보통 혼자 있는 걸 빼면 오후 공부방에 있으면 좋은 점은 조용하다는 거였다. 사방에 널려있는 규칙들은 우리 게스트들이 짝소리 하지 않고 서로의 일을 존중할 것을 잊지 않게 했다. 그러니 나는 침묵이 최소한 이곳에서만 큰 소위 적절한 행동이란 것을 보이고 있었다.

애들 낙서로 뒤덮인 벽은 코르크판으로 돼 있었다. 주로 난 낙서를 보거나 책 읽는데 시간을 보냈다. 사람 이름들, “여기는 짱나!” 아니면 “브리언트 선생 나쁜 년.”같은 것들. 브리언트 선생이란 사람은 입소과에 근무하던가 거기 책임자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다. 그 외 시간은 신시아가 문제집 책장 넘길 때 사각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난 신시아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내가 좋아하는 교실뒷자리에 앉아서 학교에서 팩스로 보내준 기하숙제를 하는 척 했다. 사실은 관리실 옆에 묶여있는 개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 개가 하는 일이라곤 자고 서성거리는 것이 전부였다. 보통 잠을 자지만, 지금은 개 집 앞을 이리 저리 서성거리고 있었다. 차고로 들어오는 배달트럭을 보고 미친 듯 짚어댔다. 개 목걸이가 닿는 곳 끝까지 총총 걸어갔다 다시 돌아서 빠른 걸음으로 돌아왔다. 그리

고 그것을 반복했다. 그렇게 수없이 오락가락 해서 아예 집 앞에 길이 생겼다.

난 자리에 앉아서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 개가 이리 저리 서성일 때 날리는 먼지를 바라보았다. 잠시 후 일어나서 벽 앞에 있는 책상으로 갔다.

다른 그룹 3 레벨에 있는 루스가 오늘도 개인 상담실로 날 데려가려고 정각에 도착해 있었다.

수줍음을 많이 타는 루스는 피부가 나빠서 터틀넥 안에 턱을 가리고 있었다. 그 애는 항상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나서 내가 자기를 볼 때까지 기다렸다. 턱은 가슴 쪽으로 밀어 넣고, 손을 주머니에 쑤셔놓은 모습이 너무 불편해 보여서 내가 항상 일어나 그 애한테로 갔다.

사실 루스와 함께 있는 것이 싫지는 않았다. 복도를 같이 걸을 때 들리는 운동화 발자국소리와 말을 해야 한다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서 좋은 거 같았다. 그리고 내 생각에 루스도 날 데려다 주는 걸 싫어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다. 우리가 당신 사무실 밖 대기실에 기다릴 때 가끔 잠시 동안 함께 있어준 적이 있었다. 사실 그럴 필요는 없었는데 말이다.

루스가 가고 난 후 대기실에 남는 건 나랑 바닥에 있는 흰색의 작은 플라스틱 UFO밖에 없었다. 브리언트 선생은 첫날 이곳 시설안내를 해주고 난 다음에 본적이 없는데, 그날 나한테 UFO가 백색 잡음 기계라고 말해줬다. 그 여자 말에 의하면, 모든 상담실 문밖에 그걸 놔두는데, 그러면 환자가 안에서 얘기하는 걸 복도에 있는 사람들이 듣지 못하게 한다는 거였다. 하지만 소리치거나 울음소리는 어쩔 수가 없었다.

난 말도 소리도 내지도 울지도 않으니, 상담하는 동안에는 꺼놔도 상관없었다. 그렇게라도 해야 시크 마인즈 전기세를 조금이라도 아낄게 아니겠어? 그걸 당신한테 말해주고 싶어도, 그러려면 말을 해야 하고 결국 UFO를 쫓 수밖에 없었다.

당신이 문을 열고 들어오라고 했다.

앞으로 한 시간 동안 낮잠을 자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면서 소파에 누울까 하고 있었다. 하지만 난 당신과 그 죽은 소가족으로 만든 의자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항상 앉는 소파구석에 앉았다. 당신도 자리에 앉아서 면회에 대해 물었다. “면회 어땠니?” 당신이 물어봤다.

난 당신의 신발을 관찰했다. 은 버클 장식이 있는 얇이 뽀족한 검정 구두였다.

“가족을 만나니까 어땠니?”

당신의 신발은 천으로 만들어진 것 같았다. 너무 섬세해 보여서 진짜 신고 다닐 수 없을 것 같았다.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없니?”

난 완전히 쓸데없는 걸 말해볼까 생각 중이었다. 지겨울 만큼 너무 평범해서 결국 당신이 포기하고 날 그냥 내버려둘 것 같은 그런 얘기. 엄마가 교회나 병원 갈 때 입는 고급 울 코트에 대해 말해 줄까 생각했다. 아니면 엄마가 보는 잡지에 나오는 성형수술 전과 후 사진에서 전 단계 사진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당신이 피곤해 보인다는 말. 또는 대합실에 들어오는 순간 엄마가 어떻게 이마를 문지르는지에 대해서 말이다.

샘은 겁먹었다 갑자기 흥분하는 것 같았다. 또 몹시 야윈 것 같았다. 큼직한 빨강색 스웨트 셔츠를 입었지만 앞주머니 안에 있는 흡입기가 배를 볼록하게 했다. 나를 껴안더니 카드 하나를 줬다. “누나 주려고 만들었어.” 카드에는 온통 고양이 사진뿐이었다. 춤추는 고양이, 줄넘기하는 고양이, 차 마시는 고양이, 농구하는 고양이.

‘초등학교 3학년 치고 그림을 잘 그리죠? 하지만 철자는 정말 엉망이에요,’ 라고 영리하고 멸절한 것처럼 당신에게 말하는 날 상상했다. 내 방 침대 매트리스아래 숨겨놓은 카드에는 ‘누나의 건강이 조아지길’ 이라고 적혀있고, 샘과 라이너스의 사인이 있었다.

‘라이너스는 우리 고양이예요,’ 라고 당신한테 말하면 당신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겠지.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의사선생님 말씀이 고양이 때문에 샘이 아프다고 해서 라이너스는 집밖에 살아야 한다고 말해주지. 새끼고양이 때 양말을 물고 다녀서, 암컷이지만 라이너스라고 이름을 지어줬다고 말하는 거야. ‘그건 정신안정 담요같이 보였어요, 그래서 라이너스라고 불렀죠,’ 라고 당신에게 말해주는 거야. 그럼 당신은 미소를 짓지. 우리 둘은 잡담을 하는 거야. 하지만 나는 잡담은커녕 입도 뻥긋하지 않았다.

샘이 카드를 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이상해서 대신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러자 엄마는 흐느껴 울기 시작했고, 난 그 자리를 피해 커피 테이블에 있는 휴지를 가져다 드릴 수 있었다. ‘이곳에 있어 편리한 것이

있다면 휴지를 어디에서나 쓸 수 있다는 거죠.’ 라고 당신한테 말하는 거야.

엄마와 샘을 대합실 소파로 데려갔다. 샘은 텔레비전을 볼 때처럼 입을 벌린 채 구경을 했다. “왜 이름이 시 파인즈야?”

샘이 내 대답을 기다리는 것 같았지만, 난 소파쿠션에 풀린 실뿔기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 쿠션 실밥이 다 풀려 우리 셋이 바닥에 풀어놓은 엄청난 실타래 위에 앉아있는 것을 상상했다.

엄마는 관자놀이를 문지르고 있었다. “샘, 할머니가 사시는 펜브룩 매너 같은 그냥 이름이야.” 엄마가 드디어 말문을 열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데 말하는 거지?” 샘이 말했다.

“글쎄”라고 말하고 엄마는 샘을 응시하다가 대합실을 두리번거리며 다른 가족들은 뭘 하나 보고 있었다.

“거긴 이상한 냄새가 났어.” 샘이 투덜거렸다.

“샘, 여기는 달라. 정말 좋은 곳이야.” 엄마가 말했다.

“그런데, 누나는 뭐 때문에, 왜 여기 있어야 하는데?”

“목소리 좀 낮춰. 얘기했잖아. 누나가 아파서 그래.”

“아픈 것 같지 않은데.”

“췌! 여기 있는 동안에는 재미있는 얘기나 하자.”

엄마는 무릎 위에서 화장지를 접고 내가 있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룸메이트는 어떠니? 괜찮은 애니?”

난 일어나 창가에 서서 주차장에 아빠를 찾아봤다. 인도로 걸어오는 한 남자를 보고 창문을 두드렸다. 그 남자가 고개를 들자 아빠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미닫이문이 열리고 그 남자가 들어와 타라를 힘껏 껴안아줬다.

“아빠 찾는 거라면, 오늘 안 오셔.” 샘이 말했다.

엄마는 코를 풀었다.

난 계속 창밖을 바라봤다. 엄마는 운전을 안 해서 주차장에 우리 차가 있을 거라 생각하지도 않았다. 큰 트럭이나 고속도로 출구를 놓치는 것을 두려워했다. 엄마는 또 햄버거나 쇼핑몰에 있는 유모차에 있는 대장균, 먹는 물에 납 성분은 물론 먼지 진드기, 동물의 털, 곰팡이, 식물 흙씨, 꽃가루 등등 샘의 천식을 더 나쁘게 하는 것은 어느 것이나 불안해했다. 내가 주차장에서 뭘 찾으려는 지는 나도 몰랐다. 하지만 계속 보고 있었다.

“엄마, 사탕 사 먹어도 돼?” 샘이 자동판매기를 가리켰다.



엄마는 그렇게 하라고 했고, 나는 쌤이 에스코트가 없는데도 걸어가서 어떻게 혼자 스니커즈를 살 수 있을지 생각했다. 엄마가 쌤에게 동전을 잔뜩 쥐어주자, 말 그대로 자판기를 향해 짱충 거리며 뛰어갔다.

“아빠가 초과근무를 신청했어. 돈을 더 벌려고 하시는 거야.” 쌤이 멀리 갔을 때 엄마가 속삭였다.

엄마는 화장지를 반듯하게 정사각형으로 접더니 그것을 작은 모양으로 계속 해서 만들었다. 그것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어지러웠다.

“보험회사에서 편지 한 통을 보냈어. 회사 측에서는 말이지 그러니까 이곳 치료비를 댈 수 없다는 거야.” 너무 작게 얘기하는 바람에 몸을 숙여야 들을 수 있었다.

대합실 밑바닥이 들리더니 잠깐 떠 있다가 다시 이전처럼 단단하게 내려앉았다. 엄마가 그걸 눈치 챘는지 살폈다.

“보험회사말로는 네가 하는 그거 있잖아, 상처 내는 것이 자해행위여서 보험처리가 안 돼서 보상을 받지 못한테.”

대합실이 다시 공중에 떠오르면서 바닥이 사라지고, 나는 천장에서 연극을 관람하고 있었다. 엄마 역을 하는 배우가 여전히 말을 하고 있었다. 내 역을 하는 배우는 소파 실밥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무대 밖에서 스니커즈가 자판기 밑으로 덜커덕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엄마라는 인물이 뭐라고 하는지 집중해서 듣고 있었다.

쇼핑몰에서 만난 친구들 얘기인 것 같았다.

“엄마 친구들에게 니가 요새 몸이 별로 좋지 않다고 했어.”라고 했다. 화장지는 이제 모서리도 제대로 없는 아주 작은 사각모양이 돼버렸다. “학교공부는 잘 따라 가고 있니?”

그 엄마 역 배우의 입은 움직이는데 내 역을 하는 배우가 소파, 커피 테이블, 또 다른 소파의 미로를 지나 드디어 방문객용 화장실로 들어가서 종이 타월 디스펜서에 나있는 톱날부분을 손목에 문지르고 있었다. 손목이 내 온몸이 된 것처럼 긁어 파내서 상처를 내든 어떤 짓을 해서든지 구해달라고 애원하는 것 같았다. 갑자기 찌르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맑은 핏방울이 보였고 드디어 난 살아났다. 소매를 내리고, 차가운 타일 벽에 얼굴을 잠깐 대고 나서 아무 일도 없었던 얼굴을 하고 다시 대합실로 갔다.

그런데 말 그대로 그곳은 텅 비어있었다. 아주 잠깐 화장실에 있었던 것 같은데 엄마, 쌤 그리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가버린 것이다. 몸을 이

끌고 소파와 커피테이블들 사이를 지나 천천히 가려고 갑자기 뛰거나 하지 않았다.

아래층 홀에는 작고 어두운 도서관 같은 게임 룸에는 찾지도 않는 보드 게임과 카드 게임이 있는데, 거기에 혼자 앉아있는 샘을 마침내 발견했다. 그곳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다. 매일 밤 자유 시간 동안만큼은 오락실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녹음된 관객웃음소리, 간호사 데스크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녹음된 환호성소리, 기숙사에 있는 모든 라디오와 헤어 드라이기 소리로부터 해방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안으로 들어가니까 샘이 뒤를 돌아보며 새로 난 커다란 토끼 앞니를 드러내며 히죽 웃었다.

“누나! 여기 게임들 좀 봐. 사목게임도 있어.”라고 했다.

사목게임은 틱택토(Tick-tac-toe) 게임과 비슷한데, 플라스틱 말판에 돌을 일렬로 네 개 놓으면 이기는 것으로, 동생과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임이었다. 샘은 아프기 시작하면서 뛰어서는 안됐는데, 그때 같이 게임을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샘이 어린데다가 아프기도 해서 일부러 저궤다. 하지만 이젠 매번 샘이 이긴다.

어떻게 계속 이기는지 모르겠지만 동생한테 두세 가지 비법이 있다는 걸 알았다. 그러는 동안 나는 내가 아는 수를 다 써서 막아보거나, 아니면 네 개의 돌을 일렬로 놔서 수직선을 만들려고 하는데도 내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대각선을 가리키며 “아자!”라며 소리쳤다.

“한 판 더할까?”라고 샘이 물었다.

난 주위에 사람이 있나 둘러봤다. 나야 물론 ‘그러자.’라고 대답하고 싶었다. 억지로라도 말하려고 했지만 하지 못했다.

말을 뱉어내려고 머리에 신호를 보냈다. 아무 말도 나오질 않았다. 말할 때 움직이는 근육은 오래 사용하지 않으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걸까 생각했다.

그 답을 저밖에 찾는 것처럼 창밖을 응시했다. 난 고개를 끄덕였다. 동생은 겁정 난 빨강 말을 골랐다. 항상 그런 식이었다. 말이 필요 없었다. 테이블에 앉아서 게임을 하는 동안에는 들리는 건 말 두는 소리뿐이었다.

다른 누나들처럼 라이너스나 샘 하키카드 애길 하며 수다 떠는 날 상상해보지만, 말하는 것 자체가 피곤하다는 생각을 했다. 샘은 갑자기 체커를 판에 내려놨다. 난데없이 나타난 4개의 블랙 체커가 나란히 있는 곳을 가리키는 거였다. “이겼다!” “또 할래?” 동생은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혼자 “그래”라고 대답했다.

그때 난 쌤이 뭔가를 이해했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 내가 말을 안 하는 걸 여덟 살 꼬마다우면서 묘하지만 지혜롭게 알아 낸 거였다. 그래서 동생은 혼자서 내가 할 말까지 다 했다. 나는 말판 가운데에 빨간색 체커를 놓는 것으로 대답을 했다. 게임 시작할 때 내가 잘 두는 수였다.

“누나~”

나에게 실망했다는 듯 고개를 흔들면서 어른처럼 짜증난다는 표정을 했다.

“창의적인 생각을 해봐야지.”

난 동생이 마지막 줄에 검정 체커를 두는 걸 지켜봤다.

“좀 다른 수를 생각해보란 말이야. 웨스 선생님은 내가 그런 걸 잘한대.”

난 첫째 줄에 다른 체커를 두고, 웨스 선생이 누군지 궁금했다.

“과외선생님이야.” 동생의 체커가 내 줄을 막았다.

“집으로 오셔.”

그 말은 쌤이 또 많이 아파서 학교를 가지 못한다는 거다. 그럼 엄마는 더 속상해 할 것이다. 아빠는 사무실에서 일을 더 많이 해야 한다는 소리다. 더 많은 고객들을 상대해야 하고, 또 사람들을 고객으로 만들려고 하지만 왜 그런지 그게 뜻대로 안되기도 했다.

“걱정 마. 우리는 돈 안내도 돼.”

난 체커를 어디에 둘지 몰라서 밑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했다.

“또 이겼지 룡!” 쌤은 검정 대각선을 가리켰다.

“누나, 창의적인 생각을 했어야지.”

동생은 게임을 다시 준비했다.

“엄마 누나 선생님 만나러 갔어.”

동생이 이 말을 하는데, 너무 어린 애가 그 말을 하는 것이 속상했다. 쌤은 검정 체커를 마지막 줄에 두었다.

“누나가 화장실 갔을 때, 엄마가 선생님을 찾아 갔어.”

난 또 체커를 가운데 놔다. 창의적인 생각인지 뭔지를 생각할 힘이 없었다. 쌤은 체커를 쥐고는 두려고 했다.

“누나, 집에 언제와? 아무도 애길 안 해 주잖아”

우리는 얼마 동안이었는데는 모르지만 잠시 앉아있었다. 쌤은 기대에 찻다가 심각한 얼굴을 했고 그리고 뭔지 모를 표정을 지었다.

“알았어.”라며 동생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라이너스가 누나를 보고 싶어 하거든.”

고개를 드니까 아직도 발목을 포개고 노트를 무릎에 올려놓고 앉아있는 당신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난 그 노트가 너무 싫었다. 왜냐면 죽은 소를 떠올리게 하는 당신의 의자처럼 내가 미쳤다는 것을 보여줄 이런 저런 것들이 결국 거기에 적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내가 정말 혐오스러운 것은 내가 매일 상담실에 들어 갈 때, 당신이 새 페이지를 펴서 낱자를 쓰고, 나갈 때 문까지 와주는데 그 노트에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다는 거였다.

당신이 펜 뚜껑을 닫고 일어섰다. 내가 갈 시간이라는 얘기다.

여기 식당은 눅눅하고 야채 찌는 냄새가 심해서 누구나 섭식장애 환자처럼 음식을 토할 정도다. 하지만 냄새보다 심각한 것은 소음이다. 때로는 자습실이나 게임 룸에 있으면 이곳이 기숙사 학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른 그룹 애들이 모두 모여 식당에서 소리치고 웃고 싸우면서 음식을 먹을 때면 정신이상자들 사이에 끼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우리그룹은 밥을 같이 앉아서 먹어야 했다. 시드니가 내 옆에 식판을 내려놓고 있었다.

“이제 시크 마인즈의 메뉴 철학을 알았어.” 시드니가 애들 전체에게 말했다.

섭식장애가 있는 애들이 귀를 기울였다. 난 파스타를 포크로 계속 돌돌 말고 있는데, 너무 말아서 파스타가 밀리고 있었다.

“이곳 음식은 기본적으로 파스타, 퓨레(puree)<sup>1)</sup>, 푸딩 그리고 포테토 네 가지 종류가 있지. 모두 ‘표’으로 시작하는 것들뿐이야.”

테비가 한숨을 쉬었다.

시드니가 말하길 “진짜 눈치 채 적 없었어?”

“파스타는 지긋지긋해. 나한텐 그 탄수화물 덩어리가 문제라니까.” 타라가 투덜거렸다.

티파니도 하는 말이 “맞아, 이런 거 진짜 개떡 같아.”

“지난주에는 닭고기 먹었잖아.” 테비가 말했다.

티파니가 대답하길 “그래 맞아, 테비. 우린 기억하지. 너한텐 끝내주는 시간이었지, 아마.”

이곳 게스트인 우린 쇠 수저나 포크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음식은 대개 죽처럼 푹 익혀서 플라스틱으로 된 걸 가지고 밥을 먹었다. 지난주

---

1) 채소나 고기를 삶아 곱게 걸러 만든 수프 음료

목요일엔 순 닭살요리인 치킨 알라킹(chicken a la king)을 먹었는데, 데비만 3레벨이어서 몽툰한 플라스틱 포크와 나이프를 나눠줄 수 있었다. 또 식사가 끝나면 그것들을 수거하는 일도 해야 했다.

“소풍을 온 거지 뭐!” 데비가 말했다.

시드니가 화제를 바꿨다. “저기 봐,” 식당 반대편을 가리키면서 “그 유명이야!”

허리까지 땀은 흰 머리를 늘어뜨린 어떤 여자가 샐러드 코너를 돌면서 왈츠를 추고 있었다. 그 여자는 긴 흰색 드레스를 입고 마치 파트너를 안고 있는 것처럼 팔을 앞으로 뻗고 있었다.

“힘뼌져에서 왔대.” 시드니가 말을 시작했다.

“그게 어딘데?” 타라가 물었다.

“진짜 정신병자만 모아두는 데.”

“햄마셔 말하는 거야?” 데비가 되물었다.

“힘뼌져야. 정말 제대로 미쳐야 갈 수 있는 데야.”

애들이 웃었다.

“일단 들어가면 못 나와.”

이번엔 아무도 웃지 않았다.



저녁식사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왜냐면 제일 먼저 휴게실에 가는 사람이 리모컨을 조정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오늘은 늦어질 것 같았다. 특별한 일이 있단 소릴 들었다.

“잘한다. 정말 잘하는데.” 데비가 베카에게 속삭이고 있었다.

베카는 아래를 보더니 브라우니 케이크 가장자리에서 부스러기를 떼어 냈다. 그 다음 그걸 접시에 올려놓고 플라스틱 숟가락으로 반으로 자르고 있었다.

“너 그 브라우니 다 먹을 거지?” 데비는 모두를 대신해서 큰소리로 물어봤다.

베카는 심각한 표정을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야, 니들이 보고 있으면 못 먹는 걸 알잖아.” 베카는 말라빠지고 여린 팔꿈치로 데비 팔을 찌르며 말했다.

“알았어, 알았다니까. 베카 쳐다보는 거 금지.” 데비가 지시를 했다.

시드니는 엄지와 집게손가락으로 베카에게 오케이 신호를 보냈다. 그러면 일제히 모두 시선을 피하는 시늉을 했다. 난 의자를 뒤로 밀고 나서, 쇠로 된 테이블 가장자리를 만지작거리며 애들 발을 쳐다봤다. 접시와 컵이 덜

커덕거리고 사람들 소리가 작아졌다가 더 커지고 있었다. 그때 베카가 케이크를 무릎으로 밀어 떨어뜨리는 걸 봤다. 냅킨으로 말아서 납작하게 만든 다음 주머니에 쭈셔 넣었다.

잠시 후 베카는 애들에게 다시 봐도 좋다고 말했다. 다들 놀라서 난리들이었다. 종이 세 번 치면 저녁식사가 끝났다는 신호였다. 데비는 그날 저녁 리모컨 담당을 베카로 하자고 말했다.

다른 애들이 휴게실에서 제퍼디(Jeopardy) 퀴즈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동안 나는 세탁할 것을 들고 간호사 데스크 근처 구석에 숨어서 주위가 조용해지길 기다렸다. 이삼 일 마다 세탁을 해야 하는데, 엄마가 가져다 준 것은 전부 파자마여서 입을 옷을 자주 빨아야 했다. 사실 데이지꽃과 나비 무늬가 있는 새 잠옷들이었다. 난 욕실담당 감시인 로셸이 데스크를 떠나 화장실과 샤워기 사이에 있는 오렌지 의자에 앉아줄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다음 데스크 쪽으로 움직인 다음 루비가 날 봐줄 때까지 기다렸다. 남색 빛이 도는 피부를 가진 루비의 머리 빛은 아주 오래된 차 주전자처럼 은색이었다. 하지만 루비의 신발은 뭔가 낡았다. 간호사용 신발인데 촌스러웠다. 다른 감시인들은 출근하거나 쇼핑을 갈 때처럼 입는데, 루비는 두꺼운 흰색 스타킹에 간호사 신발을 신었다. 내가 이곳에 온 첫 날 밤, 잠들 수 있던 건 그녀가 기숙사를 순찰할 때, 번질거리는 녹색 바닥 위로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삐걱거리는 발자국 소리였다.

루비는 앉아서 분홍 실로 아기용 담요 같은 것을 뜨고 있었다. 난 대바늘들이 ‘획’ ‘딸깍’하며 부딪치고 울퉁불퉁한 손이 털실 위를 넘나드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 사람은 근무가 없는 날엔 뭘 할까 궁금했다. 누군가의 할머니이거나 이웃일까 하는 것도 궁금했다.

나를 보면 미소를 지었다. “세탁실에 같이 가주렴?” 그녀가 물었다.

난 대바늘 밑으로 늘어진 분홍색실로 짠 것에만 시선을 두고 있었다.

“네, 그래 주세요.” 나대신 대답을 하면서 “잠깐만.” 그녀는 내가 대답하는 걸 기다리지 않았다. “알았어요.”라고 또 대답해주었다.

루비도 샘처럼 내가 말하기를 기대하지 않았다. 내 대신 말해주는 걸 즐거워했다. 난 데스크에 기대고 그녀가 손가락 주위 털실을 훑어 내려 뜨기를 두세 번 더하고 끝내는 것을 지켜봤다. 그 다음 뜨개질하던 것을 데스크에 올려놓고 땅 딸만한 다부진 몸을 의자에서 일으켰다. 열쇠꾸러미가 짤랑거리더니 “자 됐다. 애야, 가보자.”라고 했다.

난 복도를 걸어가면서 그녀와 얼마큼의 거리를 유지할지를 계산했다. 처음

은 벽에 가깝게 걸었다. 하지만 이걸 아닌 데라고 생각해서 더 가까이 움직여서 루비만큼의 보폭으로 걸으려고 애를 썼다. 그러다가 부딪쳐서 속도를 늦춰 걸었다. 그 다음엔 벽 옆에 붙어서 걸어갔다. 계단이 나오면 루비는 우리 둘이 나갈 때까지 문을 잡고 있었다. 끝없는 기숙사의 음악소리, 잡담소리 그리고 텔레비전의 소음이 들리지 않는 우리만의 작은 침묵의 세상인 계단에 와있었다.

그녀가 잠시 멈추다가 손을 내밀었다. 손바닥에 버터 스카치 사탕 한 개가 있는데, 예전 할머니 거실에 있던 거랑 같은 거였다.

“어서, 받아. 괜찮아. 섭식장애가 있는 건 아니지?” 내 손에 사탕을 쥐어주면서 “그래.”

“달콤한 사탕 하나 먹는다고 절대 해롭진 않을 테니.”

“심리학 공부는 안 해봤지만 나도 옳은 소리 한마디는 할 수 있지” 그 옳은 소리라는 게 가슴 한 가운데 있기라도 한 것처럼 손으로 쳤다.

세탁실에 도착해서 루비는 세제가 있는 벽장을 열었다. 세탁기에 청바지와 셔츠를 옷을 집어넣고 세제 양을 재고 또 재고, 이리저리 정리하면서 루비가 말한 옳은 소리를 더 말해주길 바라는 날 벽에 기대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들리는 건 그녀가 사탕껍질을 벗기는 바스락거리는 소리뿐이었다. 세탁기 뚜껑을 닫을 때 루비가 “이제 됐다, 애야, 올라가자.”라고 했다.

올라가다가 ‘현재위치’라는 팻말 옆에 그림이랑 커다란 빨간 화살표가 있는 화재 비상탈출구를 지나갔다.

그때 시크 마인즈에 불이라도 나면 내가 과연 소리라도 지를 수 있을까 생각했다.

밤에 이곳은 우는 소리가 많이 들렸다. 방문이 없어서 울고 신음하고 흐느껴 우는 소리가 복도 밖으로 흘러나왔다. 흐느낌의 강이 흘러 흘러서 고통의 작은 웅덩이를 떠나기 시작하는 걸 가끔 침대에 누워서 상상했다.

이곳에 처음 왔을 땐 누가 어디서 우는지 목소리와 위치를 알아내려고 오랫동안 애먹었다. 근처 어딘가에 있는 애는 고양이처럼 울었다. 내 생각에 타라 같았다. 복도 밑에서 웃는 것처럼 하다 심하게 우는 애도 있었다. 데비가 확실했다. 하지만 얼마 못 가서 어느 우는 소리가 어느 아이 것인지 맞추느라고 잠드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울음소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임을 생각해냈다. 간단했다. 누워서 시드니의 숨소리에 정신을 집중하면 됐다.

시드니는 불이 꺼지면 이내 똑바로 누워서 입을 크게 벌리고 잠들었다. 잘 들어보면 숨을 들이 쉴 땐 작게 ‘아’, 내 쉴 땐 ‘하’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정말 애써서 듣다 보면, 들이쉬고 내쉬는 순간을 정확히 알아 맞힐 수가 있었다.

오늘 루스가 상담실까지 데려다 주고, 다른 때보다 오래 있으면서 한 발로 다른 발끝을 차고 있었다. 나도 발로 다른 발끝을 차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같은 걸 하고 있어서 관됐다. 루스도 그만하더니 주머니에서 손을 하나씩 빼고 앞으로 두 손을 꼭 쥐는 거였다. 그 애는 정말로 힘들어서 드디어 천천히 고개를 들고 나를 바로 쳐다봤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자주 하는 게 아니어서 연습이라도 하 듯 지은 반점투성이의 빨간 얼굴의 미소는 왠지 어색해 보였다.

그래서 난 연습도 괜찮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그녀의 시선을 외면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애는 가버렸고 난 뻑뻑거리며 병동으로 돌아가는 신발소리를 듣고 있었다.

당신은 죽은 소가죽 의자에 앉아 몸을 앞으로 숙였다. 난 몸 뒤로 뺐다. “내 생각은 이렇단다.” 당신이 말을 시작했다.

그럼 난 상담실 벽지에는 줄무늬가 정확히 몇 개인지 알고 싶다고 생각했다. ‘황갈색, 흰색, 황갈색, 흰색’

“그냥 내 느낌인데,”라고 당신이 말했다.

‘황갈색, 흰색, 황갈색, 흰색.’

“네가 왜 사람들이랑 애길 안 하는지 모르겠어.”

줄무늬가 흐려져서 황갈색과 흰색을 구분하기가 힘들었다.

“그런데 말을 안 하는 것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난 학교가 끝난 후에 달리기를 하는 날 상상했다. 그 일은 처음엔 적어도 노력이 무지 필요하다. 그러나 처음 일 마일 정도 뛰고 나면 눈앞이 수정 액을 칠한 것 같았다. 나무인지 길인지, 추운지 아니면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 알 수가 없었다. 누군가 거대한 수정 액을 가지고 나랑 같이 뛰면서



주위에 있는 모든 걸 지우는 것 같았다. 가끔 뛰고 있는 것조차 잊을 것 같고, 갑자기 처음 보는 건물이나 길이 보이고 또 너무 멀리 왔나 생각이 들기도 했다. 수정 액으로 없애는 것 같은 게 멈췄어. 난 뒤를 돌아서 집으로 달려가면서 과연 집까지 달릴 힘이 있나 생각했다.

“정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거야.”

난 눈을 깜박거렸다.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 말이야. 정말 힘든 일일 거야.”

오후 한 줄기 햇살 속에서 유유히 떠다니는 먼지들을 쳐다보니까 갑자기 피곤이 몰려왔다. 옷 솔기가 풀어지듯 내 안에 무언가 내려앉고 있었다. 그러나 머릿속은 저항했다.

지쳐야 할 사람은 바로 엄마였다. 엄마와 쌤. 엄마는 모든 것을 세탁해서 살균하고, 쌤에게 먹일 음식을 따로 준비하며, 천식에 걸리지 않도록 모든 필터와 환풍기를 청소하느라 지치고,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서 하루 종일 쉴 때도 있었다.

그리고 쌤도 가끔 학교 갈 준비로 너무 지쳐서 다시 잠을 자야 했다.

그 애긴 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내가 짹 소리하지 않고 있어야 식구들이 쉴 수 있다는 거였다. 그러는 게 십 분이 될 수도 아님 열 시간도 될 수 있었다. 그럼 살균하고 청소하는 것은 내 차지가 되었다. 그렇게 했는데도 쌤은 여전히 천식을 앓고 있다. 몇 시간 아니면 며칠 동안 병원신세를 질 수도 있다는 말이었다. 그럼 엄마는 밤새 간호를 하느라 너무 지쳐서 집에 돌아와 쉬어야 한다는 소리다. 그러면 내가 살균 청소를 더 해야 했다. 그 말은 내가 지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었다.

“많은 것들을 네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단다.”

난 고개를 들고 당신이 지금까지 말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았다.

“이곳에서 너의 모든 행동은 네가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의해서 통제가 돼. 몇 시에 일어나야 하고, 몇 번 집단치료를 받아야 하며, 또 나와 몇 번 상담해야 하는 이런 것들 말이야. 내 말이 맞니?”

당신이 시크 마인즈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알고 나서 다시 벽지 줄무늬 수를 세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자신감을 잃은 상황에서는 그래도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믿으려고 특히 뭔가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행동을 하거든.”

황갈색과 흰색 줄무늬가 함께 녹아들었다.

“하지만 켈리야.” 당신 목소리가 아주 낮아서 줄무늬 세는 걸 잠시 멈춰야 들을 수 있었다. “네가 말을 하면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어.”

아침에는 웬만하면 욕실에는 제일 늦게 가려고 했다. 그러면 애들이 보통 사람들처럼 꿈꾸고 난 후에 다정하거나 슬퍼 보이는 표정을 안 봐도 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욕실 감시인 로셀을 지나치는데 타라가 잠옷 바람에 야구 모자를 쓰고 세면대에 서서 화장을 하고 있었다. 난 가장 멀리 서서 뭔가 대단한 일 하듯 칫솔에 치약을 짜고 있었다.

잠시 후 일렬로 늘어선 거울에 비친 수십 개의 타라 모습을 보려고 각도를 맞춰서 뒤로 물러섰다. 모자를 벗는 모습. 머리카락이 빠진 험한 테를 가늘고 칙칙한 머리카락으로 가리는 모습. 허영게 드러난 머리 때문에 난 너무 안쓰러워서 고개를 돌려야 했다.

“아침식사 시간에 늦지 않을까?”

난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줄기를 관찰했다. 타라가 다시 모자를 쓰고 나에게 말을 거는 게 얼핏 보였다.

“서두르자, 데비가 그러는데 아침 메뉴는 팬케이크래.” 42킬로그램 치곤 놀라울 정도로 굵으면서 여성스런 음성이다. 지난주 집단상담시간에 몸무게가 늘었다고 했다. 몇 명이 박수를 쳐줬다. 타라는 환호성을 질렀었다.

나는 물을 있는 대로 세계 틀고, 뭔가 정말 중요한 걸 보듯 바라보았다. 보이지 않았지만 타라가 몇 세면대 떨어져서 날 쳐다보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 갑자기 42킬로그램에 탈모를 가리려고 야구 모자를 써야 하는 그 애를 상대해주지 않아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물이 세계, 약하게 또 세계 쏟아져 나왔다. 타라는 오렌지 플라스틱 의자에서 피플지(People)를 읽고 있는 로셀이 있는 문으로 향했다.

“우리가 정말 널 없는 것처럼 무시했으면 좋겠니?” 타라는 단지 알고 싶을 뿐 그 외에 나쁜 의도는 전혀 없었다.

양치질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했다. 결국 타라는 가버렸다.

오늘은 침구를 바꾸는 날이다. 우리 게스트들은 세탁실에서 줄을 서서 침대 시트와 수건을 새것으로 받아왔다. 모두가 이 날은 침착한 태도를 보이는 건 청소 담당인 도린이 이 일을 중요한 일로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매주 마다 세탁실 곳곳에 손으로 쓴 표지판을 걸어두는데, 대문자와 느낌표가 많았다. “간호사 오른쪽에 정렬할 것!”라고 적힌 것도 있고. “간호사에게 반납하기 전에 준비해두기 바람!”이라고 돼 있었다.

나는 간호사 오른쪽에 반납할 침구를 들고 줄을 서있고, 내 뒤로 시드니와 타라가 있었다.

애들이 담배를 피우러 베란다에 갔다 온걸 알 수 있는데, 그곳은 애들이 휴식시간마다 찾는 곳이었다.

“안녕, S. T.”

내 뺨이 슬슬 후끈거리기 시작했다. 시드니는 항상 다른 애들한테 하는 것처럼 나에게 인사를 해오지만 대답해 주지 않아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난 긴장하면서 기다렸다.

“이 표지판들 땀에 배꼽 빠진다니까.” 잠시 후 시드니는 입을 열었다. 일단 타라한테 말을 거는 거 같아서 잠시 긴장을 풀었다. “이게 정말 맘에 들어.”

그게 뭔지 안 들을 수 없었다.

“게스트 여러분들이 퇴소하시는 날 침대 매트리스 패드를 벗기지 말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시드니가 도린이 쓴 글귀를 굵고 격식을 차려 읽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이렇게 말할 거야. ‘가만있자, 시크 마인즈에 있었던 기념으로 뭘 가져갈까? 그래, 침대 매트리스 패드가 있었지!’라고.”

갑자기 나는 도린이 누군가와 줄다리를 하는 상상을 해봤다. 비상벨을 울리고 애지중지하는 패드를 찾으려고 바닥에 구르면서 씨름을 하는 모습이 눈에 선했다. 킬킬거리는 웃음소리가 목에서부터 올라왔다. 하지만 그걸 드러내지 않았다. 게스트들과 감시인들이 패드를 놓고 본격적으로 패싸움이 승부가 날 때까지 격렬하게 일어나는 것이 눈에 선했다. 난 볼 안쪽 살을 깨물었다. 손톱으로 손바닥을 찔렀다. 소용이 없었다. 난 줄을 빠져나가 계단을 향해 달려갔다.

“어디 가니? 그러면 규칙을 위반하는 거야, 알아들어?” 도린이 소리쳤다.

내가 나간 후 문이 ‘헹’하고 닫히고 난 시원하고 고요한 세상인 복도에 와 있었다.

계단을 한 번에 두 개씩 쿵쾅거리며 내려가는데 울림소리가 너무 커서 웃음을 참지 못해 나오는 괴상한 질식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오늘밤 오락실에는 처음 보는 젊은 감시인이 있는데, 미소를 짓는 걸 보면 틀림없이 새로 온 사람인 것 같았다. 나에게 인사를 건네며 스크래블 게임을 하겠냐고 물었다. “트리비얼 퍼수트 보드게임(Trivial Pursuit) 안 할래? 나 그거 잘 하는데.”라고 했다.

난 사목 게임을 꺼내 들고 그 감시인과 등을 돌리고 앉았다. 그리고 혼자 게임을 시작했다. 늘 같은 식으로 시작해서 너무 뻔하고 지겨운 방법 대신, 샘이 말하는 창의적 사고전략에 따라 보드판 전체에 수를 두는 것을 연습했다. 얼마 후 그 미소의 젊은 감시인이 일어나 데스크에서 창문으로 날 감시하는 다른 감시인한테 갔다.

곧 사목 게임 판에 검정 체커와 그것에 둘러싸여 오도 가도 못하는 빨강 체커가 널려 있었다. 보드판 선들 사방이 막혀있고 일직선을 만들 수가 없었다. 게임판을 보고 있는데 그림자 하나가 테이블 위에 드리웠다.

과란색의 룡코트를 입고 스카프를 한 당신이 가방과 열쇠를 쥔 채 느닷없이 내 옆에 서있었다. 난 일어나서 평상복을 입고 차와 집 열쇠를 쥐고 있는 당신이 일을 관두고 나를 포기하겠다는 말을 기다렸다.

그러나 당신은 아무 말이 없었다. 오락실이 점점 따뜻해지면서 당신 사무실에 있을 때처럼 시계바늘이 멀어졌다 다시 포개져도 당신은 그렇게 서서 집게손가락으로 윗입술을 톡톡 두드리며 게임에 열중했다.

당신이 있어도 난 상관없다는 듯 행동하기로 했다.

빨강 체커를 들고 잠시 멈췄다가 말판 중앙에 두려고 하다가 실수라는 걸 알고 생각을 바꿨다. 그 체커를 움직여서 다른 자리 위에 잡고서, 가능성을 재보고 나서 이번에도 잘못된 수라는 걸 알게 됐다. 드디어 그 체커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몸을 뒤로 젖히면서 머리카락에 얼굴을 숨겼다.

당신이 다른 발쪽으로 몸을 신자, 향수 냄새 같은 것이 났다. 할머니께서 만들곤 하셨던 라벤더 향 가루같이 낯설지 않은 근사한 향이었다.

당신이 빨강 체커를 들고 끝자리에 뒀다. 바로 4개의 체커가 대각선을 이뤘는데 놀랍기도 했지만 뻔 한 결과이기도 했다.

“자, 어때, 네가 찾고 있던 수 같은데.”

당신이 잠시 손을 내 어깨에 올려놓자 오후 당신 사무실에서처럼 갑자기 졸렸다. 그리고 당신은 가버렸다. 더 이상 게임을 하지 않았다. 그냥 마지막 라벤더향이 없어 질 때까지 앉아 있었다.

다음날, 다들 담배를 피우고 돌아온 후, 애들이 집단 별로 모여 앉고 나자 클레어가 새로 온 애를 소개했다. 의자 하나 가져올 사람 없냐고 물었다 “거기, 켈리 옆에 놔줘.” 시드니한테 부탁을 했다.

난 그대로 가만히 앉아있었다.

문이 끼익 소리와 함께 열리면서 새로 온 애가 들어왔다.

몸집이 작은 그 애는 까맣게 염색을 한 머리에다 어린 애들이나 하는 머리핀으로 꽂고, 빨강색 립스틱을 발랐는데, 피부가 그렇게 창백하고 흰 애는 처음 봤다. 찢어진 청바지에 먼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클레어는 내 옆 빈자리를 가리키며 앉을 것을 권했다. 그 애는 슬그머니 미끄러지듯 앉더니 의자 앉는 데를 잡고서 의자다리를 얼마 안 되는 자리 바닥 위로 이리저리 움직여가며 자리를 잡으려고 했다. 개 의자가 내 꺼 부딪쳤다. 그 충격이 내 몸 속까지 느껴졌다.

“아이구. 실례,” 그 애가 말했다.

클레어가 자기소개 시작할 사람 없냐고 묻지만 모두들 갑자기 수줍어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클레어는 쪽 돌아가면 애들 이름을 말해주면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새로 들어온 애가 이름을 하도 빨리 말하는 바람에 아만다 인지 만다 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 다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으니까 그 애가 “세상에, 여기 무지 덩다.”라고 했다.

클레어는 아만다 인지 만다 인지하는 애한테 왜 시크 마인즈에 들어오게 됐는지 말해줄 수 있냐고 물었다. 그 애가 먼 티셔츠를 벗었다. 난 의자를 통해 모든 움직임을 느낄 수 있었다. 원 반대편에서 놀라는 소리가 들렸다. 데비가 손으로 입을 막고 다른 애들은 그 애를 쳐다보고 있었다.

셔츠가 바닥에 떨어지고, 흰 속옷 차림에 개가 팔을 내밀고 있으니까 팔 안쪽에 열 십자 모양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상처들이 있는 것이 다 보였다. 팔꿈치 쪽으로 나있는 평행선 모양, 이등분선, 둔각 모양의 흉터들. 팔목 위에는 단어들인 새겨져 있었다. 한쪽 팔에는 ‘사는 건’, 다른 쪽에는 ‘짱 나’라고 분홍빛의 상처가 나있었다.

난 옷소매를 엄지손가락 있는 곳까지 잡아당기고 나서 소매를 단단히 여몄다.

“여기 있을 필요도 없어. 무지 착한 영어선생이 내가 자살할거라고 생각했던 거야.”

여기저기서 안절부절못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조용해졌다. “자살 안 할 거야?” 시드니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할 거 같냐?” 아만다 인지 만다가 말했다.

“그럼, 그 짓을 왜 하는데?”

“몰라.” 그렇게 대답하자마자 바로 말했다. “자부심 부족. 충동 조절 미숙. 억압된 적개심. 맞지?” 모두가 클레어를 보고 한 말이였다.

클레어가 대답을 안 했다. 아만다인지 하는 애가 시드니를 다시 보면서 “잘 들어, 헛바닥이나 입술, 귀에 구멍 뚫는 인간들이 하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거든. 내 몸이거든.”

그 애가 주위를 쪽 훑어보니까 아무도 꿈쩍했다.

“문신처럼 몸에 장식을 하는 거야.” 그 애는 자신이 지금까지 말을 하고 있었고, 그런 와중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듯이 말을 계속했다. 마치 우리가 새로 온 것처럼.

“피가 날 때까지 손톱으로 물어뜯는 것보다 낫지. 내 말은 그런 짓은 자기 살을 뜯어 먹는 거라는 거야. 식인종들이나 할 짓이지.”

피날 때까지 손톱을 물어뜯는 티파니는 손을 가랑이 사이로 숨겼다.

“왜 이리 다들 불편해 하냐 말이야, 내 말은. 표현의 자유, 응?”

난 손가락 사이에 있는 소매 밑단을 비비고 있었다. 미친 개 짖는 소리가 저 멀리서 울려 퍼졌다.

아만다? 만다? 하여튼 개가 잡지에서 읽은 기사에 대해 얘길 하고 있었다.

난 그 말을 들으려고 조금 고개를 돌려봤다.

“있지, 옛날엔 환자들 피를 뽑았대. 아플 때 말이야. 그럼 엔돌핀이 분비 돼.

“그러면.....” 클레어 목소리가 들리자 고개들이 클레어로 돌아갔다. “기분이 좋아져?” 클레어가 물어봤다.

“물론, 당근.” 아만다인지 하는 애가 몸을 움직거렸다. “황홀, 행복 그 자체야. 그냥 뽕 가지. 끝내줘. 굉장한 뭔가를 느끼는 기분이란 거야. 그전에 얼마나 더러워도 말이지. 흥분 그 자체야. 갑자기 살아 돌아온 것처럼.”

“그럼 그걸 또 하고 싶은 거지?” 클레어가 되물었다.

내가 소매를 너무 꼭 붙들어서 손가락에 느낌이 없었다.

“그럼. 근데 왜?”

“내 말은 다시 말해서,” 클레어가 천천히 말했다. “넌 또 해야 한다는 거야.”

새로 온 애는 몸을 앞으로 숙이면서 검은 눈동자를 번득였다. “아니, 조절할 수 있어. 항상 통제를 했다.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그녀가 팔짱을 끼면서 내 팔꿈치를 짚었다. 난 움찔했다.

“켈리 넌 어때?” 클레어가 큰 소리로 물었다. “맘대로 할 수 있냐?”

쥐 죽은 듯 조용했다. 데비가 체중 조절용 껌을 씹는 것을 멈췄다. 개도 짖지 않았다. 저 멀리 건물 아래에서 전화벨이 한번, 두 번, 세 번까지 울리다가 누군가가 전화를 받았다.

“켈리라구?”

새로 온 애가 날 보고 있던 걸 알 수 있었다.

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애들이 숨을 내쉬는 걸 알 수 있었다.

남은 시간 동안 난 운동화에 바늘땀 수를 세며, 그 아만다인지 게만다인지 하는 인간과 클레어 그리고 이 짜증나는 곳을 증오했다. 왜냐하면 이제 다들 내가 여기에 온 이유를 알게 됐으니까.

그날 저녁식사 시간, 늘 같은 자리, 긴 직사각형 테이블 제일 끝에서 밥 한 숟가락을 스무 번씩 씹으려고 노력했다. 그래야 남들이 먹고 말하는 시간을 맞출 수가 있기 때문이었다. 다른 애들은 저쪽에서 고개를 돌리고 뭔가 건의사항에 대해 의논을 하고 있었다. 시드니는 피자가 먹고 싶고. 타라는 저지방 요구르트. 내 생각엔 음식이 확실했다. 베카는 글루텐이 뭔지 몰라도 그게 없는 크루통이 먹고 싶다고 했다.

“아이스크림 코너는 어떨까? 쉐러드바 같은 거. 얼마든지 실컷 먹을 수 있잖아.” 데비가 말했다.

“그래, 니가 원하는 거지.” 티파니가 비꼬았다.

“농담이야.” 데비가 대꾸했다.

“니가 원하는 건 뭐니?” 처음엔 누군지 몰랐지만, 새로 온 애 목소리였다. 고개를 들었더니 두 줄에 나뉘 앉아있던 애들이 전부 나를 보고 있었다. 그걸 보니 갑자기 할머니가 어렸을 때 주셨던 두 줄로 서 있는 열두 명의 소녀와 살았던 프랑스 꼬마 여자애, 매들린에 관한 책이 기억났다.

플라스틱 수저로 으깬 감자로 작은 동산을 만들었다.

“재에 대해 잘 몰라. 말을 안 해.” 데비가 하는 말이 들렸다.

그 동산으로 스키장을 짓고 나서 수저로 납작하게 만들었다. 애들은 다시 건의사항 얘기를 하고 난 저녁식사를 끝내고, 식판을 컨베이어 벨트로 가져 하기로 했다. 그곳에서 지저분한 접시와 컵, 남은 음식찌꺼기는 창을 통해 세척실로 들어가고 사라져 버렸다.

난 일어서서 테이블 의자들 사이를 비집고 빠져나가려고 했다. 그 사이가 좁아서 식판을 올려야 다른 애들하고 부딪치지 않았다. 무사히 시드니와 타라를 통과했다. 새로 온 애를 지나려는데, 개가 뒤로 움직이는 바람에 발가락이 의자에 부딪쳤다. 컵에 있던 우유가 출렁거리서 그 애 티셔츠 뒤로 쏟아졌다.

“뭐야!” 거의 그 말을 거의 침 내뿜듯 말했다. “눈깔 좀 뜨고 가시지?” 냅킨으로 셔츠를 닦고 있었다. 두 줄로 앉아 있던 여섯 명의 문제 있는 소녀 모두가 날 쳐다보며 내가 뭔가 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럭저럭 테이블과 의자 넘어 의자의 바다를 향해해서 드디어 컨베이어 벨트에 도착했다.

점심담당 감시인은 뚱뚱한 여자인데, 식욕부진 장애가 있는 애들이 얼마나 음식을 남기는지 음식물 수거 통을 감시하면서 기록하는 일을 하는데, 날 보며 성가시다는 듯 표정을 짓고는 다시 하던 일을 했다.

식당 저편에서 접시 하나가 바닥에서 산산 조각이 났다. 그러면 여기저기에서 의례적인 갈채가 터져 나왔다. 그 여자가 일어서서 의자에 기록일지를 내려놓고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들고 접시를 떨어뜨린 애한테 갔다.

난 파란 재활용 쓰레기통 앞에 서서 알루미늄으로 만든 파이 접시 가장자리를 만지작거리다가, 아무도 날 쳐다보지 않으니까, 접시를 반으로 찢어서 근사하고 날카로운 날을 만들면 된다고 생각했다. 얇고 엄청 가벼운 알루미늄 접시를 주머니 안으로 집어넣으면서 모든 게 고요해지고, 접시 부딪치는 소리와 사람이 말하는 소리가 희미해졌다. 마침내 난 침착해졌다. 왜냐면 당장 사용하지 않지만 필요한 걸 손에 넣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시드니는 불이 꺼지고 거의 한 시간 동안 잠을 뒤척이며 담요로 난리를 쳤다. 난 똑바로 누워서 초를 세며 그녀가 잠들기를 기도했다. 그레야 개가 고르게 숨을 쉬는 소리를 듣고 나도 잠들 수 있으니까.

그 애가 나를 향해 돌아누웠다.

“켈리야?” 개가 속삭였다. 우리 침대 사이는 겨우 한 두 걸음 정도였다. 난 숨을 멈추고 자는 척했다.

“야? 야, 너 그거 아직도 해?”

난 아주 가만히 움직이지 않았다. 가만히 있었다.

“너, 저기 굶는 거 아직도 하냐구?”

방 아래쪽에서 희미하게 루비 간호사가 순찰을 돌 때 내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소리로 볼 때 루비는 방 네 개 너머에 있었다. 일반 전형시험에서는 수학문제로 생각을 해본다면, 루비 신발이 2.5초마다 삐걱거리고, 방 네 개 거리에 있으면, 이 방까지 오는 데 걸리는 시간은?

“켈리, 있잖아.” 시드니는 집단 상담시간 때 담배 피는 흉내를 내는 것처럼 한바탕 큰 숨을 몰아 내쉬었다. “말하고 싶지 않데두 난 괜찮아.”



삐걱거리는 소리가 몇 번 들린 다음에 루비가 우리 방에 도착했다. 그녀가 순찰을 할 때 깨어 있는 애한테는 수면제를 먹어야 했다. 모두들 약 먹는 걸 두려워했다. 약물 과다 복용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그랬다.

시드니가 한숨을 쉬며, “긋는 것, 그것만은 하지 마.”

갑자기 따뜻한 눈물로 눈 주위가 찌릿 하지만 울지 않았다. 동생, 엄만 울었다. 하지만 난 아니다. 옆으로 돌아눕자 루비가 지나갔다. 잠시 문밖에서 서있어서 일정간격으로 들렸던 삐걱 하는 소리가 잠깐 동안 멈췄다. 그리고 다시 걸었다. 다음 시드니가 잠들었을 거라 생각하고 잠시 후 마침내 고른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다음날 당신 상담실로 가는 길에 루스가 헛기침을 했다. 손으로 입을 가리고 나서 나에게 할 말이 있는데 오늘이 날 에스코트해주는 마지막 날이라는 거였다. 그 애 목소리가 작고 떨렸다. “나 내일 나가.”

그녀는 어색한데도 활짝 웃어 보일 때, 아빠가 잘하는 바보 같은 농담이 생각이 났다. 새로 산 오픈카로 드라이브를 하는 가족 얘기였다. 차가 뒤에 부딪쳤는데 아이들 중 루스라는 애가 떨어진다. 그런데 그 가족은 계속 드라이브를 한다. 루스없이 마구. “이해되니? 루스없이 마구?” 아빠가 웃으면서 말하곤 했다.

시크 마인즈는 루스가 가버리면 루스가 없는 무자비한 곳이 될 것이다. 그 말을 개한테 말해주고 싶고, 아빠의 농담을 퇴소 기념선물로 주고 싶었다. 그러나 루스는 가버리고, 난 UFO 옆에 루스없이 앉아서 루스가 전혀 전과 달라 보이지 않는데도 어떻게 좋아졌는지 궁금해 했다.

당신은 이마를 찌푸리며 잠깐이라도 당신 얼굴을 봐달라고 부탁하고 있었다. 당신너머 창밖 나뭇가지 끝에 있는 다람쥐를 보고 있었다.

“켈리아, 나와 상담을 계속 받고 싶은지 생각해으면 좋겠구나.” 당신이 조용히 말했다.

다람쥐는 도토리를 갈아먹으면서 주위를 경계하다가 다시 먹는 걸 계속했다.

“나랑 매일 상담실에 앉아서, 벽지 줄무늬나 세고 있는 너를 바라보는 것은 너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돼.”

또 한 마리가 다가와 나뭇가지가 흔들려서 그 다람쥐는 꼼짝 않고 있었다.

“그래서 켈리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

다람쥐들은 가버렸지만 나뭇가지는 여전히 흔들렸다. 당신 얼굴을 힐끗 봤다. 예쁘고 어려 보인다고 생각했다. 손으로 무릎을 감싸고 있었다.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고 수다 떨 때처럼 말이다. 난 다시 줄무늬가 몇 개인지 세기 시작했다.

잠시 후 죽은 소가죽 의자가 신음하는 소리가 들렸다. 당신이 한숨 쉬었다.

“그래, 오늘은 이만 하자.”

시계를 보니 아직 오십 분이나 남았는데. 하지만 당신은 벌써 펜 뚜껑을 끼고 노트를 덮었다.

상담실 바깥 대기실에 서서 잠깐 문손잡이를 잡고 있으면서 뭘 해야 하는 건지 생각해보고 있었다.

날 데려가 줄 사람도 갈 데도 없었다.

문 반대편에 있는 당신이 뭘 할 지 상상했다. 내 이름이 쓰인 황갈색 파일을 덮는다. 빈 종이만 있는 파일. 이곳에 온 첫 날부터 난 상담실에 앉아 줄무늬를 세서 쓰레기통에 버려온 날들. 그런데 이곳에 와서 처음으로 홀로 정말 혼자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손잡이를 놓고 상담실 문에서 천천히, 그 다음 더 빨리 복도를 내려가지만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 채 무작정 가고 있었다. 물품 보관실을 지나 빨간색의 커다란 빗장과 ‘비상 전용’ 이라고 적힌 쇠로 만든 깃발이 있는 문을 거쳐 가는데, 그 문을 열면 정말 비상 벨 소리가 나서 감옥탈출 영화의 한 장면이 만들어 질지, 또 로셀이 잡지책을 내던지고 뛰어갈지, 또 도련이 침구들을 떨어뜨리고 탐조등을 조작할지, 나머지 애들이 비틀거리며 나와 상황을 물어볼지 이 모든 게 궁금했다. 그러나 내 발걸음은 비상 전용문을 지나 루스와 몇 분전에 왔던 길을 거슬러 자습실로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문이 잠겨있었다.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다. 그렇다. 문이 잠겨 있었다. 자습시간이 끝난 것이다. 모두들 개별 치료나 분노 조절 또는 미술 치료를 받고 있었다. 나만 빼고.

복도아래에서 열쇠가 째랑째랑 울리는 소리가 들렸다. 마리는 낮 시간 화장실 감시인데, 오렌지색 의자에 앉아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마리를 향

해 걸으면서 아무 일도 없는 척 했다. 내가 지나가는 걸 거의 눈치 채지 못했다.

에스코트가 없을 경우에는 뭘 하는지, 용무가 뭔지, 왜 있는지 아니면 몇 시에 어디에 있어야 하는 지하는 것들을 묻지 않았다.

복도 끝 화장실에 들어가서 변기를 마주보고 서있었다. 물 내리는 손잡이를 잡고 “마이크 시험 중 하나 둘 셋”라고 중얼거리는 라디오 디스크자키 흉내 내는 걸 상상했다. 손잡이가 차갑고 물기가 생겨 축축해졌다. 손을 청바지에 닦고 나서 양변기 물 내리는 소리가 웬만하면 시끄럽길 바랐다. “마이크 테스트, 시험 방송입니다.” 디제이가 말했다.

난 목소리를 가다듬고 손잡이를 이리저리 움직여봤다.

“거기 괜찮니?” 마리가 큰소리로 외쳐댔다.

난 손잡이를 움켜쥐었다.

“괜찮냐고?”

마리가 일어서는지 타일바닥이 의자에 긁히는 소리가 들렸다.

난 손잡이를 내렸다. 엄청나게 울부짖는 소리가 양변기에서 울렸다. 토할 것같이 몸을 앞으로 구부리지만 나오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사십오 분이라는 시간은 정말 길었다. 오 분을 아홉 개로. 구 분을 다섯 개로. 십오 분을 세 개로. 삼 분을 열다섯 개로. 이십이 분 삼십 초를 두 개로 나눌 수 있다. 시계가 있다면 가능했다. 다른 애들이 미술 치료나 분노 조절 혹은 개별 치료가 끝난 걸 알리는 발걸음 소리를 세탁실에 숨어서 들으면서 사십오 분을 보내야 한다면, 시간을 정확히 재야 너무 빨리 아님 너무 늦지 않을 것이고, 그래야 아무도 당신이 없어졌었다는 것을 눈치 못 채고 집단상담시간에 맞출 수가 있다.

저녁을 먹으려고 자습실을 나가는데, 타라가 튕림 한 다발을 들고 나를 향해 다가왔다. 손을 모아서 꽃줄기 부분을 받쳐 들고 있지만 어린아이 같은 가느다란 팔에 엄청 큰 꽃들이 축 늘어져있었다.

자습실에 뭘 놓고 온 척하고 돌아갈까 하는데 타라가 큰 소리로 불렀다. “상상이나 했겠니? 프런트에 있는 꽃병을 치워버렸다니까. 유리 화병이거든.”

시크 마인즈에서 우리 게스트들은 날카로운 물건 즉 유리, 압정, CD, 볼펜이나 면도날을 가지고 있을 수 없었다. 시드니는 이곳 직원과 환자들을 구

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늘 농담 삼아 했다. 타라말에 의하면 환자들 다리는 털이 무성하다고 했다.

타라는 몇 발작 떨어져 멈춰 섰다. 나도 발을 끌면서 멈췄다 “여기, 이거.” 꽃다발에서 한 송이를 빼더니 동생이 ‘빨리 건강 조아지길’이라고 적힌 카드를 건네줄 때처럼 나에게 내밀었다. 그리고 받을까 말까 생각하는 데 내 기하학 책에 위에 올려놨다.

타라는 내 걸을 짹짹 지나가면서 노래를 흥얼거렸다. 가던 길을 가려고 걸음을 떼는 게 엄청 힘들었다.

저녁을 먹은 후에 시드니와 내가 각자 침대에 앉아 있는데, 새로 들어온 애가 문틀에 서서 노크하는 시늉을 했다. 탱크 탑에 찢어 만든 청 반바지 그리고 샌들을 신고 있었다. 개를 쳐다보고 있는 것만으로 오싹했다.

“니꺼야.” 나를 향해 턱을 내밀었다.

이해가 안됐다. 지 옷이 내꺼 라고? 자길 쳐다보라고? 날 오싹하게 하려고?

“전화 말이야. 너한테 온 거라고.” 가려고 돌아서다 멈추는 거야. “야, 전화하는데 입 뺨 안 하는 걸 보여줄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 전화를 받고는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말이지.”

뺨이 화끈거렸다. 난 기하학 책을 내려놓고, 침대에서 일어나 그 애를 따라 복도로 내려가면서 그 애 샌들이 윤기가 번질번질한 초록 바닥에 찰싹 부딪치는 소리를 세고 있었다.

잠깐 멈췄다가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공중전화 옆방이었다. “걱정 마, 짹 소리 안 하는 거 엿듣지 않을 테니까.”

난 전화 안에 들어가 작은 둥근 의자에 앉은 다음 문을 닫으려고 손을 뻗었다. 그런데 문이 없었다. 가끔 이곳엔 문이 없다는 걸 까먹었다. 수화기를 드는데, 아직도 바로 전에 전화를 사용한 사람의 온기가 남아 있었다. 그리곤 송화구에 동심원의 작은 구멍들을 바라보았다.

수화기 저쪽에서 여리고 기대 섞인 엄마 목소리가 들렸다. “켈리아, 너 맞니?”

난 숨을 참고 있었다. 부엌에서 식기 세척기 돌아가는 소리, 서랍 닫는 소리가 뒤편으로 들렸다. “제발, 애.” 엄마 목소리가 혼자 중얼거리는 것처럼 작아졌다. “네가 전화 받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니? 애!”

난 긴장하고 있었다. 엄마가 새로 온 애랑 똑같은 말을 했기 때문이었다. 작은 의자 위에서 몸을 돌려 기침을 했다.

“켈리, 할 말이 있으니까 전화 듣고 있으면 좋겠다.” 잠시 있다가 한숨을 쉬었다. “네가 치료를 안 받으려고 한다는데.”

수화기를 다른 손으로 바꾸고 손바닥을 다리에 문질렀다.

“반항적 뭐라고 하던데. 그래 반항적 행동.”

반항적 행동이라. 아주 계획적이면서 일부러 그런다는 말 같았다.

“듣고 있니?”

고개를 끄덕거리지 말아야 하는데 깜박했다. 그리고 내가 끄덕이는 걸 엄마는 보지 못한다는 잊었다.

“다시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데.”

작은 전화박스 문틀이 흔들렸다. 좁아지다가 커졌다.

엄마는 시크 마인즈 사람들이 어째서 내 침대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있냐는 식으로 말하고 있었다.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한테. 상태가 좋아지길 원하는 사람한테.

공중전화 바닥이 위로 들리더니 떠서 멀리 가버렸다.

이젠 학교 얘기를 했다. “학교에서도 받아주지 않겠데, 치료를 받을 때까지는 말이야.”

수화기를 귀에서 멀리 들고 있었다. 엄마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시외전화는 비싸고…….*

*니 아빠는 놀래 자빠질 거고…….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가…….* 마침내 전화가 끊기면 희미하게 딸각 하는 소리만 들렸다.

밖으로 나가려는데 바닥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다. 그건 마치 보도연석에 서있다 발걸음을 떼면 모른 채 허공에 발을 내려놓는 것 같은 느낌. 문틀을 붙잡고 방을 향해서 내 몸을 억지로 다시 걷게 했다. 하지만 복도는 뜨거운 여름날 포장도로처럼 아지랑이가 가물거렸다. 반들반들한 녹색 사각형들이 있는 바닥이 내 앞에서 물결치면서 발 아래로 가라앉았다. 전화박스과 방 사이 복도 바닥은비탈진 언덕에서 넘어가기 너무나도 힘든 언덕으로, 다시 소리 없이 무너져 계곡이 되고 그리고 낮은 협곡으로 변해 버렸다.

불을 꺼지고 드디어 방에 힘들게 도착하니까 시드니는 이미 누워있었다. 침대에 바로 기어 올라가 담요를 턱까지 끌어올리고는 있지만 공중전화에

서 힘들게 걸어 온 탓에 땀을 흘리고 있었다. 이불아래 바지와 셔츠가 몸에 달라붙었다. 셔츠하고 씨름을 해서 펴긴 했는데 바지는 포기했다. 시드니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소용없었다. 옆으로 누우니까 셔츠 가슴부분이 꼬였다. 반대편으로 돌아누워서 비틀어진 것을 바로 폈다. 내가 한쪽으로 구르면 방은 반대쪽으로 움직였다. 시크 마인즈가 거대한 문으로 함정에 빠진 누군가에게 주려고 하는 침대, 내 침대를 머릿속에 떠올렸다.

그리고 루비가 방문을 향해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구르는 것을 멈추고, 재빨리 이불을 덮고 누웠다. 그럼 루비가 다시 움직였다.

바닥이 또 솟아오르기 전에 침대커버를 벗겨 던져 덮어버리고 침대 옆에 웅크렸다. 한 손으로 매트리스를 들어 올리고 다른 손으로 여기저기 더듬었다. 매트리스가 엄청 무거웠다. 팔이 떨리고 그 무게 때문에 팔이 굽혀졌다. 그리고 그것이 손에 만져졌다. 침대 한참 아래에 파이접시가 있었다. 손을 뻗어서 쥐고 매트리스를 놓자 쿵 하고 소리가 났다.

“뭐?” 시드니가 눈을 반쯤 뜨고 일어나 앉았다.

난 꼼작 않고 있었다.

시드니는 다시 베개에 쓰러져 한숨을 쉬고는 고르게 숨을 쉬기 시작했다.

난 침대로 돌아가 이제는 조용히 또 능숙하게 움직이면서 배를 깔고 눕고 나서 이불을 머리위로 잡아당겼다. 텐트가 된 담요 안에서 설명서를 따라 하는 것처럼 접시를 반으로 접어 납작하게 눌러 다시 반대로, 접힌 부분이 뽐뽐해질 때까지 앞뒤 접기를 반복했다. 그것을 찢으니까 쉽고 잘려나가서 그럴듯하게 톱날이 난 반 쪽 접시 두 개가 손안에 놓여있었다.

잘린 반쪽 위에 가볍게 집게손가락을 올려놓고 시험을 했다. 적당히 거친 것이 딱이었다.

손목 안쪽을 그것에 대봤다. 따끔 하는 것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눈을 감고 기다렸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자유롭다는 느낌이 없었다. 그냥 이상하게 당긴다는 느낌만 있을 뿐. 눈을 떠봤다. 손목에 살갓 끝이 찢겨 주름진 채 들려 있었다. 반대쪽으로 잡아당기니까 약간 욱신거렸다.

숨을 멈추고 그 금속조각을 눌렀다. 그것은 쉽게 아래로 내려갔다.

갑자기 뜨거운 액체가 내 몸 위로 넘쳐흐르고 있었다. 고통이 너무 강렬하고 갑작스러워 숨을 멈췄다. 희열도 위안도 가져다주지 않았다. 쓰라리게 강하게 전해오는 아픔뿐. 접시를 떨어뜨리고 다른 손으로 손목을 잡고서 이 짓을 하면서 이런 느낌은 처음이라는 사실이 어렴풋이 기억났다. 전엔

피를 멈추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냥 내버려뒀었다. 이렇게 아프지도 않았다. 그리고 이렇게 실패한 적은 없었다.

잠시 손을 떼고 손목을 셔츠에 문질렀다. 피가 멈췄다가 다시 흘렀다. 손으로 손목을 다시 움켜잡으니까 육신거리는데 입술하고 이마에 짜증나게 나는 땀도 무시한 채 내려다보니 손가락 사이로 피가 나오는 것이 보였다. 찌릿하면서 아주 뜨거운 전류가 몸을 통과했다. 그리고 갑자기 일어나 침대에서 나와 방을 나가고 있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걸었다. 모퉁이를 지나 루비의 데스크가 있는 복도 아래로. 내 팔을 누구에게 줄 것처럼 팔을 뻗은 채.

“이런! 세상에!” 나를 보자 루비가 말했다.

그녀는 바로 행동에 취하는데, 내 손을 잡고 응급처치 선반으로 움직이는 게 아주 빨라서 거의 한 동작으로 진행됐다. 가제를 풀어 피를 닦아낸 다음 어떤 용액으로 상처를 소독했다. 화끈거렸지만 아주 잠깐 동안만큼은 육신거리음이 덜했다. 그리고 나서 난 상처가 그리 깊지 않다는 걸 볼 수 있었다. 그 전 것들에 비해 심하진 않다는 것도. 그런데 왜 피가 많이 났을까 또 왜 내가 루비한테 왔을까 이상했다.

“핏줄을 건드렸구나.”라고 말하면서 가제조각을 상처에 얹어놓고 눌렀다. “하지만 깊은 상처는 아니야. 꿰맬 필요는 없겠다.”

그녀가 기도를 하듯 양손으로 내 손목을 감싸고 가슴으로 갖다 대는데, 숨 쉴 때마다 가슴이 위로 아래로 움직이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일정하게 제대로 힘으로 눌러줘서 그런지 잠시 뒤 피는 멈추고 통증이 사라졌다.

내 손을 내려놓고 상처에 밴드를 붙인 다음 가제로 열 번 정도 빠르게 돌려 감고 나서 서너 조각의 반창고로 고정시켰다. 루비가 그 일을 하는 동안 우리는 잠시 그렇게 서있었다. 루비는 한 팔로 몸을 지탱하면서 몸을 의자 안으로 낮췄다. 한숨을 쉬면서 의자에 털썩 앉았다.

갑자기 몸이 가벼워졌다. 너무 가벼워서 공중으로 뜰 것 같았다. 메이시 백 화점 축제 때 거대한 풍선이 되어서 루비 데스크를 떠나 시크 마인즈 저 높이 떠오르는 상상을 했다. 하지만 지금은 자리에 앉아야 했다.

루비는 몸을 앞으로 숙이더니 내 손을 잡고 당기더니 무릎 위에 올려놨다. “겁이 났던 거니?”

그녀의 갈색 검은 눈동자 가운데에 겁에 질린 작은 내 모습이 보였다.

“왜 그런 걸 하는 거니?” 흰 잿빛 손과 짙은 적갈색의 손이 루비의 여러 번 빨아서 부드러워진 옷감을 감싸고 있는 무릎 위에 얹혀있었다.

루비가 “으음?” 라며 마치 내가 뭐라고 말했는데 제대로 듣지 못했다는 듯 했다. “뭐 때문에 그러는지 말 좀 하지 그러니?”

손을 뺄까 생각하지만 그러려면 너무 힘들 것 같았다. 그리고 지금은 너무 지치고 힘들었다.

루비가 한숨을 쉬었다. “그게 뭔지는 몰라도, 애야, 이것만큼 아프진 않을 거야.

루비가 내 허리를 감싸서 방으로 데려다 줬다. 이번에는 얼마나 우리 사이가 떨어졌나를 계산하는 수학적문제가 필요 없었다. 그냥 그녀에게 내 몸을 기대면서 말렸다. 루비는 상처가 깊지 않아 과상풍 주사를 맞지 않아도 돼서 다행이지만 이 일을 보고해야 할 거라고 말해줬다. “업무절차상 말이지.” 혹시 날 집이나 험딘저에 보낼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서 루비가 말했던 옹은 소리나 그 업무절차라는 것이 뭔지 라도 말해줬으면 하는데 방에 도착했을 때 루비는 정신이 딴 데 가있는 것 같았다. 내 팔을 놔주면서 벽장으로 가더니 엄마가 사준 잠옷을 꺼냈다.

“애야, 입으렴, 빨래할 옷은 주고. 바로 저기서 기다릴게.” 그녀는 복도로 나갔다.

잠옷으로 갈아입고 나서 벗은 옷을 모아 루비에게 주려고 문 쪽으로 걸어갔다. 침대와 문 사이에 있는 뭔가가 나를 가지 못하게 잡아당기는데, 깜박한 것이 있단 희미하게 생각났다. 침대로 다시 가서 톱날이 있는 두 쪽으로 잘린 파이프 접시를 주워 들고 돌아서 루비에게 가져다 줬다.

시드니 자명종에 녹색 네온 불빛이 새벽 여섯 시 사분을 가리켰다. 마지막으로 시계를 봤을 때가 다섯 시 이십일 분이였다. 팔로 몸을 감싸니 손목에서 희미한 맥박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침대 아래 깔끔하게 개놓은 옷 꾸러미가 있었다. 루비가 일이 끝나고 놓고 간 것이다.

이불을 젖히고 조용히 일어나서 옷을 입고 여전히 어두운 복도로 빠져나갔다. 화장실로 향해서 발꿈치를 올리고 마리의 빈 의자를 슬쩍 지나 공중전화기를 거쳐 새로 들어온 애 방, 휴게실, 집단치료실 다음 복도 아래로 내려간 다음 비상전용 문을 통과해서 마침내 난 상담실 밖에 앉아 당신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지만 어느새 당신이 파란 코트에 스카프를 걸치고 내 앞에 서있었다. 별로 놀라는 것 같지 않았다. 인사도 바로 하지 않는



걸. 가방에서 열쇠를 꺼내고는 몸을 구부려 상담실 문 바깥에 있는 UFO를  
켜고 “들어올래?”라고 했다.

당신이 코트와 스카프를 걸고 가방을 서랍에 넣은 다음 블라인드를 치는  
동안 난 소파에 늘 같은 자리에 앉았다. 당신도 앉았다.

“켈리야? 이곳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

난 어깨를 움츠렸다.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말해주겠니?”

벽지 줄무늬를 세기 시작했다. 멀리서 개가 짖어댔다. 그 소리가 허공에서  
오랫동안 울리다가 조용해졌다.

“못해요.” 그 목소리에 난 깜짝 놀랐다. 너무나 소리가 작았다.

“뭘 못하겠다는 것이 뭐니?”

난 목을 가다듬어 보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젠 아무 소리도 나오질 않았다.  
어깨를 움츠렸다.

“켈리야. 나를 좀 봐줘.” 당신의 단호한 목소리였다.

슬쩍 당신을 봤다. 호박색 눈을 가졌다. 라이너스 눈처럼. 난 눈길을 돌렸  
다.

“뭘 못하겠다는 거니?”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라디오에이터가 켜지면서 웅하다 꺼져버렸다.

“말하는 거요.” 드디어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왔다.

당신 의자가 신음하면 난 당신이 의자 끝에 앉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당신은 몸을 뒤로 젖히고 전날 밤 오락실에서 그랬던 것처럼 손가락  
으로 입술을 톡톡 두드렸다.

“두려워서 그러는 거니?”

소파에 있는 사각형 모양을 손으로 따라 그리면서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나서 보니까 눈물 때문에 생긴 작고 진한 색깔의 원 하나가 청바지에 생긴  
걸 보고 명해했다.

당신은 티슈박스를 카펫 맞은편에 있는 나에게 밀어줬다.

“왜 두려운지 알고 있니?”

난 고개를 저었다.

“켈리, 내 생각에는 우리 같이 열심히 노력하면 해답을 찾아낼 것 같아.”

나는 손에 있는 티슈를 찢고 있었다. 눅눅해지고 쓸모없는 쓰레기가 돼버  
렸다. 한 장을 또 뽑아 들었다.

“울고 싶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당신이 기뻐하는, 정말 기뻐하는 것 같아  
난 코를 풀었다. “선생님은 나한테 뭘 할 건데요?” 말들이 입 밖으로 술술  
나왔다.

당신이 미소를 지으니까 눈가에 작은 주름들이 생기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나이가 많을 것 같았다. “너한테? 아무것도 하지 않아. 그냥 얘기를 나눌  
거야.”

“그게 다예요?”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작아서 확실히 뭐라는 지 들리지  
않았다.

“그것이 전부란다.”

티슈 한 장을 또 뽑았다. “난…….” 목을 가다듬었고 그리고 말할 생각이었  
다. “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게임이나 대회에서처럼?”

“네.”

“무엇에 질 것 같은데?”

“몰라요.” 당신이 안달하지는 않나 보려고 고양이 같은 당신의 눈을 쳐다  
봤지만 화낼 것 같진 않았다. 단지 호기심만 있어 보였다.

“네가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을 물어보진 않을 거야. 하지만 켈리 네 말이  
맞아. 때론 뭔가에 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 거야.”

난 티슈를 또 꺼냈다. 축축하게 뭉친 화장지가 무릎에 쌓여갔다.

“켈리야, 하지만 우리 같이 노력하면 포기한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을 찾을  
수 있었다. 약속할게.”

난 고개를 끄덕였다. 이젠 피곤했다, 정말 지쳤다. 여름에 어둡고 차가운  
집안에 있다가 햇볕이 엄청 밝은 밖으로 나갈 때처럼 머리가 아팠다.

난 당신이 일어서서 내일 같은 시간에 상담을 시작할 거라고 말하는 것을  
쳐다봤다.

그리고 당신은 누군가 불러 나를 양호실로 데려가게 했다. 그곳에서 파상  
풍 주사를 놔주고 어떤 서류에 서명을 하라고 했다. 그리고 방으로 돌아갔  
다. 다음 날 아침이 됐는데도 침대에 있었다. 잠을 잤다. 그리고 또. 계속  
잠만 잤다.

## II

난 아침 내내 잠을 잔 것이 확실했다. 왜냐면 깨어났는데 보니까 바로 마리가 어깨를 흔들면서 점심 얘기를 하기 때문이었다. “야, 의사의 특별 허가로 오늘 네 방에는 감시인이 없을 거래. 하지만 이제 일어나. 안 그러면 점심 못 먹는다.”

이해가 안 갔다. 그러다가 우선 희미하게 뭔가 달라졌다는 걸 알 것 같지만 그게 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질 않았다.

눈을 덮고 있는 머리카락을 위로 올리는데 손목을 감은 흰 가제가 눈에 번득였다. 순간 그 모든 것 기억할 수 있었다. 손목을 쥐고 있었던 일도. 루비가 내 손을 잡아주었던 것도 또 젖은 티슈가 무릎에 쌓인 것도.

“식사시간 거르지 않았으면 좋겠어.”라면서 마리는 목소리를 낮췄다. “삐쩍 마른 애들은 지금으로도 충분하거든.”

난 일어난 다음 배가 고평 무지 고평 걸 알았다.



시끄러운 소리랑 식당에서 나는 야채 찌는 냄새가 있어도 밥맛이 떨어지지 않았다. 난 식판을 들고 하얗게 서리가 낀 안경을 쓴 식당 종업원이 치즈 그릴 샌드위치를 접시 위에 놔주길 기다렸다. 시드니가 그 음식을 식어빠진 느끼한 것들이라고 불렀던 것을 기억하면서 서 있던 줄을 빠져나와서 시드니가 와있었으면 하고 있었다.

하지만 식당은 말 그대로 텅 비어있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테이블에 있던 애들은 데비와 베카뿐이었다. 난 식판 가장자리를 잡고 늘 앉았던 제일 끝자리를 지나서 데비 옆에 앉는 것을 머릿속에 그려봤다. 루스처럼 아주 방긋 웃는 미소를 지으면서 다른 애들처럼 말을 시작했다. 그럼 데비는 베카가 과일과 카티지 치즈를 다 먹었을 때처럼 “대단해. 정말 훌륭해.”라고 할 것이다. 그럼 베카는 감동을 받고 데비와 맞장구를 치겠지. 그리고 집단 상담을 받으러 가면 베카가 먼저 뛰어가서 나머지 애들에게 얘길 하겠지. 그러나 테이블에 가기도 전에 개들은 벌써 가버렸다.

몇 분 후 타라가 들어와 식판을 반대편 끝에 내려놓았다. 코는 빨갛고 얼굴은 부스럼투성인 그 애는 내가 자기를 쳐다본다는 것을 의식하자마자 야

구 모자 앞부분을 잡아당겨 내려버렸다. 그녀는 상추 하나를 집어 든 다음 드레싱을 냅킨으로 닦아냈다.

마침내 난 일어나서 손목위로 옷소매를 잡아당겨 소매 끝을 엄지손가락으로 잡고 식판을 들어서 타라 맞은편에 가서 앉았다.

“안녕,” 타라가 인사를 했다.

방긋 웃는 미소를 지으려고 하는데 내 얼굴에 그런 표정이 생기는지 잘 모르겠어.

우리는 앉아서 밥을 먹는 척 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어떻게 대화를 시작하나 기억해보지만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6학년 때 배운 프랑스어 몇 마디 뿐이었다. “봉쥬르. 테레사. 사 바?” 검은 베레모를 쓴 소년 기가 말하면 “사 바 비엥, 메르시, 에 뽀, 기”라고 테레사는 대답했다.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안녕’ 이라고만 하기로 결심했다. 안녕. 간단한 두 글자뿐인데. 그 말을 많이 지껄일 수 있어야 할 것 같았다. 유리잔을 집으려고 손을 뻗었다. 소매가 위로 올라가서 우리 둘 다 흰색 반창고가 드러난 것을 봤다. 유리잔을 집는데 안에 있던 물이 출렁거렸지만 별일 없이 무릎위로 올려놓았다.

“어!” 그녀가 말한 전부였다.

난 가려진 앞머리 사이로 그녀를 엿봤다.

“넌 정말 이해 못하겠지?” 화장실에서 그날 개가 나를 그냥 내버려 뒀으면 좋겠냐고 물어봤을 때처럼 부드러운 목소리이었다.

난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산다는 거.”

“뭐부터 시작할까?” 그날 오후 당신이 말했다.

가만 보니까 당신은 그 섬세한 천으로 만든 작은 신발을 또 신고 있었다.

“켈리야, 이곳에 오기 전에 있었던 것들을 말해줄래?”

“몰라.....” 내 목소리가 나에게서 멀어지고 있었다. “몰라요?”

당신이 펜으로 무릎에 있는 뭔가를 톡톡 쳤다. 그때 안건데 결국 내 과일을 치우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응, 모르는데. 기록을 보면 너에 관한 다 제삼자의 의견일 뿐인걸.”

결론질로 서류를 보면서 제삼자가 누구며, 어떤 의견인지 궁금했다.

당신이 서류를 펼쳤다가 접었다. “네가 열다섯 살이며 달리기 선수라는 거.....”

“옛날일이죠.”

“뭐라구?”

“옛날 얘기라고요.” 기침이 나왔다. “달리기 선수 말이에요.”

당신이 펜을 집어 들었다.

“모두 다 적을 건가요?”

“원하지 않는다면 쓰지 않을게.” 당신이 펜을 허공에서 쥐고 있었다. “메모하는 거 싫으니?”

난 어깨를 움츠렸다.

“싫다면 하지 않을게.”

무슨 이유에선지 대수학을 가르쳤던 말콤 선생님이 여러 장의 빈 종지와 시험지를 나눠주면서 푸는 방식을 같이 내지 않으면 답을 맞춰도 정답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시던 말씀이 생각났다. 당신이 나와 상담하는 일을 일종에 대수 문제를 푸는 것으로 상상을 해봤다. 그 페이지에 한 줄에 내 문제점이 뭐든지 간에 ‘x는 어찌고저찌고.’이란 정답이 나올 때까지 나를 약분해서 분수로, 공통분모로 지우고 하겠지. 당신이 그 문제를 해결 하고. 그럼 난 집에 갈 수 있으니까.

“내가 메모를 하지 않는 것이 낫겠니?”

“그렇다 해도 괜찮아.” 당신이 노트패드를 살짝 구부렸다. 당신의 머리카락을 관찰하고 있었다. 완벽한 생머리에 깔끔하게 정돈된 부분을. 당신은 똑바로 앉아있었다.

“그럼 뭐부터 시작하고 싶니?”

난 어깨를 움츠렸다.

당신이 기다렸다.

“상관없어요,” 내가 입을 열었다.

당신은 다리를 꼬면서 시선은 나에게서 떼지 않았다. 시계의 분침이 앞으로 한번 ‘획’ 그리고 한 번 더 ‘획’ 꿈틀거렸다.

“내 동생 쌤이,” 드디어 내가 말을 했다. “의사나 다른 사람들의 모든 관심을 받게 되는 건 보통 개죠.”

순간 내가 잘못 말한 것 같았다.

“동생이 아픈 것이 싫은 것 아니에요.”

“어디가 아픈데?”

“천식을 앓아요.”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말 심각해요.”

당신은 움직이지도 않았다.

“항상 병원 신세를 져요.”

당신은 여전히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래서 무지 말랐고 모든 것이 깨끗해야 하죠. 하지만 동생으로서는 괜찮은 애예요. 괜찮은 동생이에요.” 더 얘기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지치고 할 말도 없었다. “그 정도가 다인 것 같네요.”

당신은 무릎에 손을 모아 놓았다. “그런 것이 넌 어떠니?”

“뭐가 어떤데요?”

“그렇게 많은 관심이 필요한 동생을 둔 것 말이야.”

“익숙해졌어요.”

당신은 입을 열어 뭔가 말하려 했지만 내가 막아버렸다.

“힘이 드는 것 엄마예요.”

“엄마가?”

“걱정이 많아요.”

“무엇을 걱정하시는데?”

난 소파에서 좀 편안한 자세를 찾고 있었다. 말하는 자체가 힘든 일이었다.

“켈리야, 엄마가 걱정하는 게 뭐니?”

“전부요.”

뭔가 다른 것을 물어보고 싶은 것 같아서 말을 계속 했다.

“운전을 안 하세요. 트럭을 무서워하시죠. 그래서 아빠가 데려다 주셔야 해요.”

“그렇구나.”

날씨가 좋아도 안전벨트에다가 차 창문은 닫혀있고, 더욱이 그런 날에는 꽃가루. 꽃씨 혹은 먼지 진드기 또 오염물질이 조용하고 멸균된 차 안으로 들어 올 수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할 해야 하는데 그런 차 안에 우리가 있어야 하는 걸 당신이 정말 상상이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때 있었던 일 좀 말해 줄래?”

“뭐에 대해서요?”

“쌤이 병원에 있었을 때 말이야.”

나는 눈을 깜박였다. 동생이 입원했던 때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던 거야? 아니면 당신이 뭘 말했는데 내가 놓친 거야? 반창고 끝을 잡고 아주 살짝 잡아당겨보았다. 살균붕대 흰 실 한 올이 풀렸다.

“어떤 거요? 뭘 말할까요?”

“글쎄, 부모님이 썸과 시간을 보낼 때 넌 뭐하니?”

난 얇은 실을 말아서 아주 작은 공을 만들었다.

“모르겠어요. 청소하는 거요.”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질 않았다. 실로 만든 공이 이제 아주 작아졌다.

“먼지 털기. 세탁하기. 청소기 돌리기. 진공청소기를 많이 써야 하죠.”

당신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공이 된 실이 너무 작아서 잃어버렸다.

“섬유찌꺼기용 여과기를 청소하죠. 동생 때문에 우리 집 모든 통풍구에는 특수 필터가 달려있어요.”

“한번은 엄마가 갖고 있는 쿠폰 모두를 정리한 적도 있고요. 그 정도예요. 지겨운 일들이죠.”

긴 침묵이 흘렀다. 난 여기저기 더듬거리며 그 공을 찾으려 UFO가 울리는 소리를 듣고 시계를 봤다.

“식구들이 집에 없을 땐 텔레비전을 보기도 해요.”

“어떤 것을 보는데?”

“음. 몰라요. 푸드 채널이나 응급구조 911같은 거요.”

“그런 프로를 왜 좋아하는데?”

“모르겠어요.”

당신은 내가 좀 더 그럴듯한 대답을 할 때까지 기다리는 데, 그러는 동안 분침이 앞으로 다시 기울었다.

“응급구조 911이라……. 그 프로를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라도 있을까?”

난 어깨를 으쓱거렸다. “아니요. 네, 그런 거 같아요. 모르겠어요.”

당신이 눈살을 찌푸렸다.

“내 생각에는 그게…… 보통 사람들이 구조되는 건 어떤 작은 꼬마가 뭔가 수상하게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님 개가 그러거나 혹은 이웃이 그런 경우도 있어요.”

당신 뭔가를 적었다.

“언제나 해피엔딩이죠. 사람이 구조되면 모든 게 해결되죠.”

저 멀리 고속도로에 차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차가 오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천장에 난 깨진 틈을 관찰했다. 매들린이 맹장수술을 받았던 병원 천장에 있는 것처럼 이것도 어떻게 보면 토끼를 닮은 것 같기도 했다. 머릿속에서 ‘토끼’ ‘끼토’를 반복해봤다. 어떤 것을 먼저 말했는지 헷갈릴 때까지.

“동생이 친식을 언제부터 앓았니?”

당신 목소리 때문에 깜짝 놀랐었다. 당신이 있었다는 것을 깜박했다.

“뭐라고요?”

“샘이 언제부터 아팠니?”

난 놀라서 몸을 움찔거렸다. 육상경기대회에서 심판이 신호탄 총 발사준비를 하면서 “제자리에”라고 소리칠 때 항상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켈리아?”

허벅지에 있는 근육이 뒤틀리면서 발은 땀으로 흥건했다. 손으로 다리를 눌러 진정시켰다. 소용이 없었다. “일 년 전쯤부터, 아마 좀 더 됐을걸요.”

난 건성으로, 아예 지겹다는 듯 대답했다.

“일 년 전부터라고,” 내 말을 되풀이했다.

소파 앞으로 몸을 슬쩍 당겨서 갈 준비를 했다.

“그럼 부모님이 병원에 있을 때는 누가 널 돌봐줬니?”

난 이제 소파 끝에 걸 터 앉아있었다. “내가요”

당신은 꼬았던 다리를 풀고 펜 뚜껑을 닫고 나서 나에게 잘해 주었다고 말했다. 난 시계를 봤다. 원래 시간보다 오 분이 지났다.



상담실을 나와서 돌아가는 길에 휴게실을 지났다. 토크쇼 진행자의 목소리가 탁구경기에서 나는 툭툭 하는 소리와 누가 큰지 열띤 경쟁을 하는 것처럼 쩌렁쩌렁 울리고 있었다. 고개를 숙이고 살금살금 걸어 지나갔다. 문을 지나가려는데 흰색 작은 공이 복도로 날아와 굴러서 내 발 옆에 멈췄다.

“안녕, S. T.” 시드니가 소리쳤다. “가져다줄래?”

발 옆에 있는 공을 보다가 시드니의 행복해하는 흥조 먼 얼굴을 쳐다봤다.

“제발?” 그녀가 커다란 미소를 지었다.

난 몸을 굽혀서 공을 들었다. 공기를 잡는 것처럼 너무 가벼웠다. 복도 건너편까지 아장아장 걸어간 다음 오락실 안으로 들어가서 계속 공을 주시하면서 공이 벌린 손바닥에서 이리저리 흔들흔들 거리는 것을 보다가 그것이 손에서 떨어져서 복도바닥을 튀어 올라 앞문으로 넘어가도록 기다렸다.

시드니가 내 손에서 공을 꺼냈다. “고마워,”라며 고개를 돌려 말했다.

시드니가 눈치를 챈 것이다. “할래?” 라켓을 내밀었다. 오락실을 주의 깊게 둘러봤다. 데비와 베카 안락의자에 앉아 있는데, 데비는 의자 안쪽에, 베카는 팔걸이 위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티파니는 탁구대 반대편에서 라켓을



취고 있는데, 아직도 가방을 메고 있었다. 타라는 점수판 옆에서 점수를 기록하고 있었다.

“그냥 보기만 해도 돼,” 시드니가 말하면서 비어있는 의자를 가리켰다.

“제발,” 타라가 부탁하듯 말했다.

건너편에 있는 의자 쪽으로 걷는 것뿐인데도 꽤 먼 것 같았다. 문이 훨씬 가까운데 있었다. 고개를 저으면서 가려고 발길을 돌리며 가면서도 실수하는 거라는 걸 알았다. 문까지 가는 것이 정말 오래 걸렸다.

“오늘은 어떤 얘기부터 시작하고 싶니?” 당신이 물어봤다.

난 이것저것 생각해봤다 “동생 얘기부터요. 개에 대한 얘기 더해도 될까요?”

“그럼.”

하지만 무엇을 말해야 할지 생각나는 게 없었다.

“내가 하키카드 얘기 했었나요?”

당신이 고개를 흔들었다.

“모아놓은 게 엄청 많아요. 아플 때 마다 한 묶음씩 사죠. 정말 좋아해요. 항상 정리를 해서 쌓아놓죠.”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팀, 포지션 아니면 점수 기록 같은 걸로 나눠요.”

당신은 가만히 있었다. 나는 소파에 있는 세모 모양을 따라 손가락으로 그렸다.

“방과 후면 엄마는 동생과 같이 있죠. 부엌테이블예요. 레이스 뜨기를 해요.”

당신이 머리를 옆으로 기울였다. “레이스 뜨기?”

난 모양 따라 그리기를 멈췄다. “뜨개질이에요. 실로 냅킨이나 천사모양 같은 거 짜는 거요. 엄마가 떠놓으면 동생은 그걸 정리해요.”

부엌 테이블에서 엄마와 동생이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사생활인데 어떻게 하다가 내가 실수한 것 같았다.

“무리하면 안 되는데, 많이 쉬어야 하거든요.” 내가 설명해주었다.

“넌 뭘 하니?”

“뭘 하다니요?”

“엄마는 뜨개질하고, 동생은 정리하면 넌 무슨 일을 하는데?”

“음.” 세모를 따라 그리고 또 그리다가 멈추고 또 다시 시작했다.

“아무 일도 안 해요. 텔레비전만 보죠.”당신은 내가 더 얘기하기를 기다렸다.

“엄마와 동생이 쉬는 동안에는 소리를 죽이죠.”

당신이 이맛살을 찌푸렸다.

“두 사람이 쉴 때는 자막을 보면 되니까요.”

“소리 없이 본다구?”

“익숙해져서요.”

당신이 고개를 약간 저었다. “뭐라 하는지는 정확히 이해는 안 가지만요.” 거실에 소리가 나지 않는 큰 텔레비전 화면 아래에 자막이 올라가는 걸 생각했다.

“화면아래 자막은 항상 사람들이 말하고 나서 몇 초 뒤에 나와요. 보통은 다음에 뭘 얘기할 지 미리 생각할 수가 있어요.”

당신이 질문을 할 것 같았다.

“일종의 취미죠.”

당신이 메모를 했다. “다른 취미는 없니?”

“딱하니 말할게 없어요.” 난 스웨터에 단추를 채웠다가 풀었다.

“달리기는 어떠니?”

내가 달리는 것이 보였다. 내 몸 전부가 아닌 발로만, 하나가 나타났다 사라지고, 또 다시 보이고 계속 반복해서 달리는 것. “달리기가 뭐요?” 내가 대꾸했다.

“글쎄, 달릴 때 기분이 어떤데?”

“잘 모르겠어요.” 난 손 거스러미를 뜯었다. “별로 느낌이 없어요.”

당신이 손가락으로 입술을 톡톡 거렸다.

“그래서 달리는 게 좋아요.”

죽은 소가죽 의자가 삐걱 소리를 냈다. 당신은 몸을 앞으로 구부리고 입을 열어 말을 했다.

“엄마는 내가 달리는 걸 좋아한 적이 없죠. 항상 차나 뭐에 칠거라고 생각했죠.”

당신은 몸을 뒤로 젖혔다.

“엄마는 늘 경찰 연락을 기다렸대요. 달리기를 하고 집에 돌아 올 때마다 화난 것처럼 보였어요.”

부엌 테이블에 앉아서 뜨개질을 하며 찌푸린 얼굴을 하고 있고 샘은 하키 카드를 나눠서 깔끔하게 쌓아놓는 것을 상상해봤다. 내가 들어와도 쳐다보지 않고 그저 레이스만 뜨고 있었다. 샘은 웃고 있는, 스케이트 타는, 헬멧

을 쓴, 또 벗은 모습의 하키 선수들 카드를 보여주었다. “샤워하고 해야 하는 거 아니니?”라고 엄마는 물어봤다. “숙제는 없고?”

당신이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나한테 질문을 한 게 분명했다.

“뭐요?”

“잘 이해가 가질 않는구나. 왜 너한테 화를 내실까?”

“모르죠. 집에 오면 바로 엄마는, ‘숙제 없니?’라고 물어요. 그래서 난 대개 위층을 올라가 그 두 사람을 방해하지 않죠.”

당신의 눈이 살짝 커졌다. “그렇게 느끼는 거야?”

“뭐가요?”

“엄마가 동생과 단둘이 있고 싶어서 네가 방해를 안 해 줬으면 하는 생각 말이야.”

정확히 내가 어떻게 말했는지는 몰라도 어떻게 하다 보니 헛말을 한 것이다. 분명히 사실이 아닌 말을 했다. 아니면 어느 정도 약간은 사실일 수도 있었다.

나머지 시간 동안은 시계 아래를 보는데 보냈다.

밤에 자습실은 완전히 다른 곳이 돼버렸다. 모두 일곱 시에서 여덟 시까지는 있어야 하는데, 시크 마인즈에 있는 동안 학교공부를 같이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용히 해야 하지만 애들은 속삭이고 종이쪽지가 항상 오갔다. 감시인이 일단 자리를 비우면 자습실은 난리가 난다.

하지만 지금은 조용했다. 타라는 매니큐어를 바르고, 티파니는 저쪽 바깥세상에 있는 친구에게 편지를 쓰고, 베카는 졸고 있고, 데비는 야회복을 입은 모델 잡지 사진을 따라 그리고 있었다. 시드니만 숙제를 하고 있었다.

칠판을 보니까 그 새로 들어온 애 이름은 아만다던데 지금 마지막 줄 의자에 앉아 축 늘어져서 자는 척하는 것 하고 있었다. 머리는 벽에 기댄 채 눈은 감고, 입은 어설픈 미소로 오므라져있었다. 하지만 안자고 있던 걸 알 수 있었다. 손목 안쪽을 리듬에 맞추듯 의자 끝에 부딪치고 있거든.

겉 쳐다보고 있는 것이 짜증나서 난 하던 프랑스어 숙제를 다시 했다. 숙제는 휴가 중에 도움 될 만한 단어들 이룰테면 비키니, 렌터카, 식당 같은 단어를 외우는 것이었다. 이곳에서는 연필은 “날카로운” 것이기 때문에 수학 숙제 할 때도 연필을 쓸 수 없고 수정 사인펜을 사용해야 했다. 난 사인펜이 얼룩이 저서 쓰던 페이지를 구겨버리고 다시 쓰고 있었다.

감시인이 일어나더니 다 마신 소다 캔을 복도아래 재활용쓰레기통에 버리고 오겠다고 말했다.

우리 모두 얌전히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간호사가 나가고 바로 자습실은 활기를 찾았다.

“너 다음에 매니큐어 발라도 되지?” 시드니가 타라에게 부탁했다.

“워크맨 빌려주면,” 타라가 대답했다.

그 둘이 물건들을 바꾸느라고 바쁜 동안 티파니는 데비 그림을 보려고 뒤로 돌아봤다. 데비가 손을 모아 가리지만 너무 늦었다.

“넌 항상 그 짓을 왜 하는데?” 티파니가 데비에게 물었다.

“뭘 짓?”

“삐쩍 말라깽이들 그리는 짓 말이야.”

간호사가 돌아오면서 큰 소리로 목을 가다듬었다. 티파니는 몸을 휙 돌아 앉았다. 모두들 원상태로 돌아가서 하던 일을 했다.

데비는 멍해있었다. 기름종이를 다시 올려놓고 잡지 모델을 관찰했다. 그리고 노트를 훑훑 넘겨봤다. 키 크고 늘씬한 여자들이 멋진 옷을 입은 그림들이 지나갔다. 마지막 페이지에 가자 고개를 들었다. 나만 그걸 보고 있었다. 데비 눈에 눈물이 고여 있는 걸.

데비는 고개를 재빨리 돌리지만 내가 자길 봤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잠시 뒤 다시 보니까 자기 스웨터를 베카에게 걸쳐주고 엄마가 해주는 것처럼 옷자락을 몸에 잘 여며줬다. 이곳에 처음 왔을 때 데비는 나에게 말을 걸려고 애를 썼다. 한번은 자기 엄마가 보내준 케이크를 먹어보라고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난 개를 겁먹게 해서 내 근처에 못 오게 한 걸지도 모른다. 데비는 스웨터를 당겨서 너무나도 희고 여린 베카의 목 주위를 덮어주고 나서 노트를 덮고 퇴실 허락이 있을 때까지 허공을 바라봤다.

그날 밤 난 양치를 하러 화장실에 가는데 감시인 로셀은 잡지위로 엎드려 있었다. 뒤에 있는 화장실에 안에 누군가 양변기 물 내리는 손잡이를 내렸다. 양변기에서 ‘짜아’거리며 굉음소리가 들렸다. 음식물을 토한 시큼한 냄새가 사방에 가득했다.

베카가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강아지가 그려진 욕실가운을 입고 털이 복슬복슬한 갈색 강아지 모양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개가 나오면서 화장실 문이 쿵 하고 닫혔다. 그리고 거울에 비친 내 옆에 그 애 얼굴이 보였다. 휴지로 입가를 닦고 있었다.

베카가 짹짹 나갈 때, 난 결눈질로 로셀을 보았다. 잡지를 읽는지 입술이 움직이고 있었다. 베카가 나가는 것을 기록하지도 않았다.

다음날 아침, 아만다는 식사시간에 나오지 않았다. 섭식 장애가 없는 경우라도 식사는 의무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데비가 식당담당 간호사한테 가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고 있었다.

“데비가 참견할 일이 아니지.” 티파니가 빈정댔다.

“그냥 도우려는 것일 뿐이야.” 베카가 말했다.

티파니는 눈알을 굴렸다. 난 손가락으로 테이블 둘레 쇠조각을 따라 손가락으로 만지면서 그것이 아주 조금 헐거워졌다는 것을 눈치 챘다.

종이 울렸다. 아침식사시간이 끝났다. 근처에 있는 애들이 일어나서 어딘가로 가는 동안 떠들썩하고 불평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다.

우리 그룹 애들은 오도 가도 못하고 데비를 기다렸다. 데비가 테이블로 서둘러 왔고 다른 애들은 말하는 걸 들으려고 한쪽으로 모였다.

“개 들켰대,” 데비가 속삭였다. “굿다가 말이야.”

난 뺨이 화끈거렸고, 소매를 아래로 잡아당긴 다음 무릎을 쳐다보고 있었다.

“으이구, 너무 끔찍해.” 베카가 말했다.

“조용히 해.” 시드니 말이였다. 난 고개를 들지 않지만 날 위해 해준 말이라고 생각했다. “개 어딴거야?”

“아마 햄머셔일걸.” 데비가 대답했다.

“어떻게 아는데?” 시드니가 물었다.

“들었는데 주사를 맞아야 했대.” 데비가 대답했다. 목소리를 갑자기 낮추더니, “진정제 주사 말이야.”

식당담당 감시인이 오더니 우리에게 서두르라면서 별점을 가할 거라고 했다. 우리는 식판을 들고 세척실로 향했다. 늘 그랬던 것처럼 난 혼자서 티파니와 시드니 뒤를 따라갔다.

“망가지는 것을 좋아하는 우린 병신들이래.” 티파니가 고개를 저으면서 말했다. “새로 온 아만다 개는 미친 짓을 하는 거야.”

시드니는 돌아서서 내가 들었나를 살피고 있었다. 난 방향을 돌려 테이블 쪽으로 가면서 뭔가를 놓고 온 것처럼 행동했다. 시드니가 걱정하는 걸 보느니 차라리 지각을 해서 별점을 받은 것이 나왔다.

당신이 의자에 앉아서 노트에 새 페이지를 펴놓고 있었다.  
“오늘은 별로 말하고 싶지 않아요.”  
당신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나는 한 줄기 약한 겨울 햇볕을, 당신은 파일을 보며 우린 잠시 그렇게 앉아 있었다.  
“그거 제 파일이에요?”  
“그래.”  
난 다시 햇빛이 비추는 걸 바라보고 있었다. 빛이 마름모꼴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뭐라고 돼있어요?”  
“네 파일? 별로 없어.”  
난 아주 가만히 앉아 있었다.  
“초기 진단기록, 학교 보고서 같은 기본적인 내용이야.”  
밖에 구름 한 점이 지나갔다. 마름모꼴은 사라져버렸다.  
“그 보고서는 누가 썼나요?”  
파일을 열더니, “매기 선생님이라는 사람인데. 너의 학교 양호실 선생님이 시구나.”  
“대리교사예요.”  
“그래.”  
햇빛이 창으로 다시 쏟아졌다. 마름모꼴이 보통의 평행사변형으로 변했다.  
“네가 자해하는 것을 발견한 선생님이 그 분 맞지?”  
“선생님을 저를 ‘아가야’ 라고 불렀죠.” 순간 난 그 말을 한 것을 후회했다.  
“아가야?”  
“신경 쓸 거 없어요.”  
천장에 있던 토끼 모양의 틈을 찾았는데 보이지가 않았다.  
“선생님은 양말에 샌들을 신었어요.”  
“또 뭘 기억하니?”  
“선생님은 원래 마약 재활센터에서 일을 했대요. ‘그곳에선 다 터놓고 맘 편히 행동해.’라고 했어요. 선생님은 약간 히피기질이 있었어요.”  
당신은 내가 더 말하길 기다렸다.  
“심하게 배가 아팠었죠. 정규 양호교사들은 날 항상 교실로 돌려보냈죠.”  
“그런데 그 대리 선생님은? 그 매기 선생님은 어땠는데?”  
“선생님은, ‘뭐가 널 괴롭히니?’했죠.”

당신은 아주 얇은 웃음을 지었다.

“그리고 난 그냥 선생님 뒤에 있는 시력검사표를 보고만 있었죠. 아직도 첫 줄이 기억나요. E F S P D.”

당신이 좀 더 크게 웃었다.

“진찰대에 앉으라고 했어요. 이마를 지퍼보시더군요. 맥박도 제구요. 그 다음 갑자기 제 팔을 놓더니 ‘이런, 세상에!’ 하네요. 선생님은 다시 곧 오겠다고 말했어요. 난 진찰대에 누웠고, 그 다음 기억하는 건 선생님이 나를 흔들어서 깨운 거였어요. 엄마가 서서 티슈로 입술을 누르고 있었죠.”

여태까지 말한 것을 당신이 맘에 들어 하나 해서 얼굴을 봤다. 걱정스러운 얼굴이었다.

“그거 알아요? 여기에서 줄곧 그 선생님 생각을 많이 했어요.”

당신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선생님 이름이 뭐였더라 이런 거요. 대리 양호선생님이요.”

“켈리 매기 선생님이네.”

“맞아요. 선생님한테 엽서나 보내볼까 생각도 했죠.”

당신이 눈썹을 치켜 올렸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같이 있었더라면 좋을 텐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야?”

난 이해를 못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니?”

난 소파에서 보푸라기 하나를 떼어내 손가락 사이에 넣고 말아서 허공에 튀겨버렸다. “그 선생님이 여기 있었으면 좋겠니?”

“아니요.”

“켈리야, 뭐하나 부탁할게.” 죽은 소가죽의자 앞쪽으로 앉았다. “정확히 선생님이 어떻게 상처를 검사했니?”

“맥박을 째어요.”

“못하게 막지 않았었니?”

갑자기 열기가 온 몸을 스쳐가고 있었다. 뺨이 빨개지면서 목구멍이 메어오는 것 같았다. 팔을 당겨서 옆구리에 붙이고 꼼짝하지 않았다.

“막지 않았다니 다행이구나.” 우리 둘 사이 공간으로 부드럽지만 단호한 당신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초록색의 긴 스커트를 입고 가죽의자에 앉은 너무나 차분하고 정상적이면서 예쁜 당신의 모습을 내 눈 안으로 들어왔다.

“제가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죠?” 난 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웃지 않았다.

“그런 것을 한다고 해서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죠?” 팔을 올렸지만 소매가 반창고 위까지 다행스럽게도 내려왔다.

“그럼, 켈리.” 아주 솔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난 결코 네가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아.”

난 눈을 깜박였다.

“내 생각에는 너는 억누를 수 없는 느낌에 대처하는 방법을 발견해낸 거야.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나쁜, 엄청나게 두려운 느낌들 말이야.”

나는 소파 등 쿠션에 털썩 앉았다. 오늘 지금까지 완벽하게 바른 자세로 꼳꼳하게 앉아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난 절대로 소파 등을 대본 적이 없었다.

“정말이요?”

“그럼.”

시계를 보니 갈 시간이었다.

“그럼 내가 안 하게 만들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만들 수 있냐고? 아니. 그렇게는 하지 못한다.”

“그럼, 그렇다면 도와주는 건 할 수 있어요?”

당신이 입술을 툭툭 쳤다. “그래, 네가 원한다면.”

그리고 당신은 일어나서 내일 더 얘기하자고 말했다.

난 알았다고 말하지만,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는 거였다.

다른 애들은 아직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을 거야. 왜냐면 집단 상담치료를 받으러 가니까 클레어 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클레어는 손에 안경을 들고 콧대를 문지르고 있었다. 안경자리에 빨갳게 자국 두 개가 나 있었다. 고개를 들더니 문 옆에 있는 날 보고 웃었다. 난 제대로 웃어주진 않았어도 그냥 무표정으로 있진 않았다. 난 주차장에 있는 차의 순서를 다시 보고 있고 클레어는 종이컵에 커피를 불어가며 나머지 애들이 줄지어 들어올 때까지 우리 둘은 그렇게 앉아있었다.

상담실은 갑자기 어둠과 웃음소리로 넘쳤다. 시드니는 자기 얘기를 거의 끝내가고 있었다. “그걸 보면 식구 중 가장 멀쩡한 사람은 나란 걸 알 수 있다니까.”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말했다.



“나두!” 타라가 말 그대로 소리쳤다. 그리고는 원 중앙에서 갑자기 멈춰 서지. 아만다가 돌아와서 타라 의자에 앉아있었다.

타라가 클레어를 보며 애원하는 표정을 지었다. 클레어가 아무 반응이 없었다. 시드니가 옆에 있는 의자 바닥을 치니까 클레어가 그 자리로 미끄러지듯 앉았다.

갑자기 집단상담시간이 의자 뺏기 게임이 돼버렸다. 티파니가 들어오더니 상황을 살피고 도와달라고 클레어를 본 다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의자에 털썩 앉았다. 베카와 데비가 마지막으로 들어왔다.

베카가 타라 옆 자리로 쓴살같이 가서 앉았다. 데비는 크게 숨을 내쉬고 내 옆에 있는 마지막 빈자리에 앉았다.

난 데비를 위해 공간을 만들려 주려고 팔을 옆구리로 갖다 댔다.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다. 누군가 음식 불평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다시 조용해졌다. 다른 애가 화장실에 대해 투덜대더니 감시인은 말이 많아 시끄럽다고 했다. 또 아무런 말이 없었다.

“그런데,” 시드니가 아만다에게 물어봤다. “어디 갔었니?”

“아침식사시간에 말이야.” 타라가 입을 열었다. “안보이던데.”

아만다가 능글맞게 웃었다. “룸 서비스 받고 있었지.”

티파니가 소리 내어 웃었다. 나머지는 가만히 있었다.

“농담하지 말고.” 시드니가 말했다.

“정말 걱정이 돼서?” 아만다가 되물었다. “참 너두 상호의존성이 상당히 병적인 걸.”

시드니는 당황해 한 듯 그 말에 상처를 받은 것 같았다.

“양호실에 있었어.” 아만다가 말했다.

“정말?” 데비가 물었다.

“정말이야,” 아만타가 비꼬면서 대답했다.

“주사 맞아야 한다고 했다.” 데비가 말했다.

아만다가 눈살을 찌푸렸다.

“진정제 놓지 않았어?” 데비가 또 물어봤다.

아만다가 웃었다. “파상풍 주사야.” 큰소리로 말했다. 그리고는 몸을 앞으로 구부리더니 나에게 윙크를 했다. “그렇지?”

대답할 수 없지만 모두들 나를 쳐다보는 것도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창문 밖을 바라보면서 창유리와 방충망 사이에서 오도 가도 못했던 파리는 어떻게 됐을까 궁금했다.

집단치료가 끝났는데, 루비가 데스크에 앉아서 나에게 손을 흔들었다.  
“너한테 소포 왔어. 빠른우편으로 보냈구나.”  
그것을 보자마자 엄마한테서 온 거란 걸 알 수 있었다. 소포박스는 온통  
고양이 스티커투성이고 주소는 서예체로 쓰여 있었으니까. 이걸 본 우체부  
가 어떤 생각을 했을지 궁금했다.  
그걸 겨드랑이에 끼고 방으로 향했다.  
“잠깐만,” 루비가 불렀다. “담당책임자 앞에서 열어봐야 한단다. 업무절차  
상 해야 해.” 루비가 설명했다.  
루비는 열쇠로 포장 테이프를 뜯었다.  
땡콩모양의 수많은 분홍색 스티로폼이 들어 있는 상자 안에 켈트로 만든  
무명천이 있었다. 루비가 그것을 집어 올렸다. 불룩한 무명천으로 만들어진  
내 이름 철자들이었다.  
뒤에는 흡착판가 붙어있었다. 루비가 스티로폼 사이에 있던 쪽지 하나를  
내게 건네줘.

켈리에게,

시파인즈 에 있는 네 방을 환하게 해 줄 물건 넣어서 보낸다. 뒤에 흡착판  
이 있으니까 문에 붙여놓을 수 있을 거야. (너희들은 그곳에서 압정을 쓸  
수 없으니까, 그래서 미리 확인을 했거든.) 다른 애들이 좋아하는지 말해주  
렴. 바로 또 만들어 줄 테니까.

네 상태가 요즘 좋아지고 있다는 구나. 잘하고 있다니 다행이야.

빨리 나오렴.

사랑하는 엄마가,

그 천 조각을 가지고 방으로 가려고 했다.

“잠깐만, 다른 게 또 있네.” 루비가 불렀다.

뭐가 됐든 상관없고 관심 없는 것처럼 또 아빠한테서는 별루 좋은 거 기대  
하지 않는 듯 행동하는데 루비가 흰색의 작은 봉투를 건네줬다.

내 이름이 파란색 마커로 적혀있는 봉투 앞면을 보고 바로 눈치 챘다. 동생이 보낸 거야. 하키카드가 들어있었다. 하지만 그냥 보통 카드가 아니라 동생이 가장 좋아하는 웨인 그레츠키였다. 쪽지는 없고 카드만 있었다. 난 주위에 아무도 없는 지 확인했다. 그리고 루비가 볼 수 있도록 카드를 들고,

“동생이 보낸 거예요. 하키를 엄청 좋아하거든요.”라고 말했다. 루비는 자기 가슴에 손을 올려놓았다. “착하구나. 정말 기특해.” 그리츠키 카드를 주머니에 넣고 방으로 돌아갔다.

“오늘은 뭐부터 얘기하고 싶니?”

“상관없어요.”

당신이 다리를 꼬았다.

“선생님이 정해요.”

“그래 그럼. 네 그룹 애들과는 어떻게 지내니?”

어깨를 움츠리며, “잘 이요.”

당신이 기다렸다.

“시드니는 룸메이트예요. 괜찮은 애예요. 타라라는 애도 있고요.”

당신 얼굴이 만족해 보였다.

“그리고 데비, 개는 엄청 똥똥한데, 잘난 척 무지하긴 해도 나쁜 애는 아니에요. 베카라는 애한테 신경을 써줘요.”

“그래.” 이게 당신이 말한 전부였다.

“베카는 잘 모르겠어요. 먹질 않아서 병이 생겼고 심장 발작까지 했었대요. 좋아졌으면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아니예요.”

당신이 계속하라고 귀찮게 하길 기다렸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무한테도 말 안 할 거죠?”

“네가 이곳에서 말한 것 모두 너와 나만 알게 돼 있어.”

“그러니까 개는……내가…… 개는 아직도 먹은 거 토해대요.”

당신 표정이 변하질 않았다.

“그리고 음식도 감추고요. 먹는 척하지만 다 토해버려요.”

당신은 끈 다리를 풀고, “어떻게 알았어?”

“봤으니까요.”

당신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애가 하고 있는 짓을 내가 안 다는 게 이상해요. 데비를 생각하면 정말 안됐다는 마음이 들구요. 왜냐면 베카가 자고 있을 때 스웨터를 덮어주는 고마운 일도 하거든요.”

놀랍게도 데비, 베카, 시드니 그리고 타라 얘기는 술술 나왔다. 내가 그 애들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개들을 좋아한 것 같다. 점심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시계를 봤다.

당신의 의자가 신음소리를 냈다. “그런데 담당간호사말로는 내가 아직 집 단치료시간에는 입을 다물고 있다고 하던데.”

‘아직은’. 이 말을 쉽게 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듯 꺼냈다. 내 입술이 갈라졌다. 아랫입술 한쪽을 약간 깨물었기 때문이다.

“이유를 말해주겠니?”

난 어깨를 움츠렸다. 한 백만 번째는 될 거야.

당신이 입술을 톡톡 찔다.

“또 다른 애가 있어요. 새로 왔죠.”

“그래?”

“그 애는 아만다라고 하는데, 반바지에 샌들을 신고 다니고…….”

당신은 눈살을 아주 조금 찌푸렸다.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한여름처럼 말이에요.”

길고 긴 침묵이 흘렀다. 저 멀리서 비행기가 하늘 뚫고 날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 애도 나처럼 그 짓을 해요.”

난 가만히 당신 표정이 조금 바뀌길 기다렸다. 애매한 얼굴에서 어떤? 역겨워하는 표정으로?

못마땅해 하는 얼굴로? 당신은 침착하게 있었다.

“애들한테 상처흉터를 보여줬어요.”

난 입술을 좀 더 깨물었다. 그만하면 됐어. 아까 그 비행기소리를 들으려고 했지만 이미 날아갔다.

“네 생각에는 아만다가 흉터들을 비밀로 했어야 한다는 거니?”

“네?”

“새로 온 애가 흉터자국을 숨겨야 했다고 생각하는 거니?”

“상관없어요.” 그리고 바로 “흉터들이 끔찍했어요.”라고 말했다.

난 소매를 당겨서 단단히 잡고 무사히 엄지손가락을 감쌌다.

“네가 뭘 하는지, 어떤 기분인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왜 잘못된지?”

“옳지 않아요.”

“옳지 않다고?”

“그러면 사람들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거든요.”

당신이 어리둥절해 보였다.

“다른 거 얘기해도 돼요?”

“그럼.”

하지만 할 말이 생각나지 않았다.

“엄마가 이거, 이름 새긴 걸 보냈어요.” 간신히 말을 꺼냈다. “엄마가 수공예 한다는 거 말했죠?”

당신이 고개를 끄덕였다.

“문에 걸라고 이것 만들어 줬어요. 내 이름이요. 천으로 만든 건데요. 킬트예요.”

그 이름표인지 뭔지가 우스워 보이면서 뭐라고 설명을 할 수가 없었다.

“장식하는 거로구나?”

“그런 거 같네요.”

“으-음.”

“엄마는 무리하면 안 되는데.” 내가 설명을 늘어놓았다.

“그래, 네가 전해도 말했잖아. 엄마가 많이 쉬어야 한다고.”

그런데 갑자기 피곤한 건 나였다. 실은 이젠 지쳤다.

“이제 그만해도 돼요?”

“그럼,” 살짝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상담시간도 거의 끝났는걸.”

자습시간도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데비는 일기를 쓰고 있었다. 시드니는 워크맨을 듣고 있고, 다른 애들은 졸고 있고, 난 화학용어를 외우고 있었다. 삼투압, 역삼투압.

시드니가 책상 사이 너머로 몸을 구부리고 접힌 쪽지를 흔들었다. 타라를 가리키고 있었다. 쪽지를 타라한테 전해달라는 것을 한눈에 알았다. 난 아무 생각 없이 받았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했다. 타라는 팔위에 머리를 올려놓고 얼굴을 돌린 채 깊게 자고 있었다.

타라가 숨 쉬는 것을 잠시 보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몸을 책상너머로 구부려서 쪽지를 타라 팔꿈치 밑으로 밀어 넣었다. 타라는 꿈쩍 않았다. 시드니를 바라보고 있는데, 개는 조용히 손으로 입을 막고 킬킬거리고 있

었다. 내 입가가 올라갔다. 볼 안쪽을 깨물며 타라가 있는 쪽으로 몸을 돌렸다.

팔을 뻗어 타라 팔꿈치 아래 있는 쪽지를 꺼냈다. 아직도 움직이지 않았다. 시드니는 소리 내서 웃지 않으려고 말 그대로 발작 하고 있었다. 개 얼굴은 비트처럼 빨갰다. 내 가슴은 터지기 일보 직전인 것 같았다. 침을 꿀꺽 삼켰는데 풍선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갑자기 튀어나왔다.

타라가 움찔했다. 이렇게 웃긴 장면을 처음 본다는 듯이 시드니가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타라한테 쪽지를 주는데 내 손이 떨리고 있다는 것밖에 생각나지 않았다.

“고마워,” 시드니가 속삭였다.

“어, 그래” 내가 말했다. ‘어, 그래.’ 이런 말은 자기도 모르게 그냥 나오는 말이다. 별로 뜻 없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말이지.

내가 상담실 문을 닫았다. 당신이 뭘 얘기하고 싶냐고 물어보기 전에 당신에게 와인 그레츠키 카드를 보여주었다.

“동생이 제일 좋아하는 선수예요.”  
당신이 웃음 짓지. “동생이 하키 카드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내가 말했어.”

난 소파에 깊숙이 앉았다. 발을 뻗고. 몸을 앞으로 수그린 채.

등이 빠근해지고 있었다. “네, 그런데 동생은 하키는 안 해요. 카드 보는 것만 하죠.”

당신이 고개를 끄덕였다.

“동생은 테이블 탑 하키 게임이란 걸 가지고 있어요. 내가 조립을 해줬어요. 스틱으로 모형 선수들을 조종하는 게임인데 아세요?”

내 말을 이해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말이 계속 나왔다.

“재작년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은 거예요. 사용설명서가 십 페이지정도 되죠. ‘선반 X는 슬롯 Z 에 넣으시오. 기둥 Y는 22번 구멍에 끼우시오’하는 거요.”

“조립하기 복잡한 것 같구나.”

“네, 상자에는 ‘성인 조립용.’이라고 쓰여 있었죠. 그런데 부모님은 외출했어요. 엄마는 요양소에 계시는 할머니를 뵈러 갔고요.”

“그럼 네가 조립을 한 거니?”

“식은 죽 먹기죠.” 자랑하는 거 같아서 나머지 얘기도 해줬다. “쌤한테 화가 났어요. 개한테는 거의 화를 안내는 데.”

당신은 고개를 옆으로 가우뚱했다.

“동생이 심술로 스티커를 붙이더라고요.” 명청하고 시시한 소리 같았다. “설명서에 보면 그 일은 마지막에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화가 난 거니?”

“그럴걸요. 조금은요.”라고 하고 나서 또 “내가 못되게 굴었죠.

“어떻게 했는데?” 거의 믿기지 않는 다는 소리 같았다. 나의 심술긋은 행동을 상상도 못하겠다는 듯이.

“동생한테 소릴 질러댔죠.”

당신의 반응을 봤다. 늘 그랬듯이 차분했다.

“동생이 아파했어요.” 난 고개를 숙인 채 그 말을 무심코 해버리고, 고개를 들었다.

당신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병원에 입원해야 할 정도로 아팠어요.”

걱정스러운 눈으로 날 바라봤다. 당신의 그런 표정이 사라지게 하고 싶었다.

“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산타클로스를 여태 믿고 있더라고요. 동생 말이 산타 할아버지가 게임조립을 안 해줘서 화가 났대요. 난 산타가 엄청 바빠서 그럴 거라고 말해줬죠. 그러니까 쌤이, ‘그런 때를 대비해서 엘프들이 있는 거 아냐.’라고 하더라고요.”

난 웃으면서 어린 꼬마가 하는 말 치고는 참 재미있다고 생각했다.

당신도 살짝 웃었다. 난 얘기를 좀 더 해볼까 했다.

“내가 안보는 사이에 스티커를 붙였어요. 다 꾸글꾸글 해졌고요. 더구나 점수판에 있는 선수들 유니폼에 붙여야 하는 것들이었거든요. 전부 망쳐놓고 있다고 말했죠. 동생이 나머지 스티커를 뒤에 감추고는 울기 시작하잖아요.”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나 보지도 않았다. 천장에 있는 토끼 모양 틈만 계속 보고 있었다.

“난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계속 조립만 했죠. 그래도 동생은 울기만 했어요. 그러다가 내 소매를 잡아당기면서 숨을 못 쉬겠다고 하잖아요. 눈이 엄청 커지면서 정말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면서 물에 빠진 것처럼 가슴에서 숨이 넘어가는 소리가 났어요.”

나는 무릎 위에 있는 티슈를 찢으면서 그 이후 일들은 건너뛰기로 맘먹었다.

“동생을 병원에 데려갔어요. 집에 돌아온 건 자정이 넘어서—”

“켈리야, 잠깐만.” 당신은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숙였다. “누가 동생을 병원에 데려간 거니?”

“부모님이요.” 당신을 살짝 보고는 시선을 돌렸다.

“그럼 집에 돌아오신 거야?” 당신이 어리둥절해 하는 것 같았다.

“네.” 난 빨리 말을 이어갔다. “집에 돌아오신 것이 자정을 넘은 새벽 열두 시 십이 분이었어요. 시간이 기억나요. 열두 시 삼십사 분까지 안 오시면 동생이 괜찮은지 병원에 전화를 하려고 맘먹었죠. 전자시계로 그 시간은 1-2-3-4 같잖아요. 전화를 해야 한다는 일종의 신호였어요.” 당신이 이해를 했는지를 기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전에 오셨으니 그럴 필요가 없었죠.”

당신은 숨을 내쉬었다.

“엄마가 화를 내더라고요. 나한테 잠을 왜 안자고 있는지 알고 싶다는 거예요. 엄마는 동생이 산소보급용 텐트에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울기 시작했는데, 엄마 다리가 빠져나간 것 같았어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오 세상에, 하느님.’하면서요. 아빠가 엄마의 겨드랑이를 잡고 일으켜서 침대에 눕혔어요.”

난 시계를 봤다. 어느 새 시간이 다됐다. 난 소파에서 이리저리 주저주저하고 있었다. 당신은 움직이지 않았다. 난 소파 앞으로 몸을 조금 내밀었다. 당신은 여전히 꿈쩍도 안하고 있었다.

“참 많이 속상했겠구나.” 당신이 말문을 열었다.

난 일어섰다. “그렇죠. 엄마는요. 샘이 거의 죽을 뻔했다고 누군가에게 전화로 얘기하더라고요. 더 이상 운전 같은 거 안 한 건 그때부터였어요.”

난 문손잡이에 손을 올려놓았다. “그 정도예요.” 내가 한 말이야.

당신을 기다리지 않았다. 문을 열고, ‘내일 봐요.’라고 했다.

그날 밤 샤워를 하러 가니까 베카가 강아지그림이 있는 욕실가운이랑 슬리퍼를 신고 세면대에 서있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베카는 내 또래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며칠 전 집단치료 시간에 병원에서 강제로 밥을 먹이려고 했던 얘기를 하는데, 자긴 법적



으로 성인이어서 그럴 수 없다고 했다. “아무도 나에게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지, 난 열 여덟 살이거든.”

베카는 칫솔을 들고 거울에 비친 자기모습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리고 한참 뒹굴 하던 중 있었다는 게 막 생각났다는 듯이 칫솔질을 시작했다. 솔질을 너무 세게 해서 아플 것 같았다.

난 저 끝에 있는 세면대로 향하면서 화장실을 지나면서 특유의 토한 냄새를 알아차렸다. 베카는 향수를 뿌리고 있었다. 로셀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난 베카를 거울에서 볼 수 있도록 자리를 제대로 잡고 서있었다. 내가 자기를 보고 있는 걸 알아버렸다. 순간 우리의 눈이 서로 고정되었다. 베카는 당황해 하면서도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다. 난 수건을 쥐고 방에 뭔가 두고 나온척하면서 나중에 다시 올 생각을 했다.

“오늘은 할 말이 없어요.”라고 하면서 소파에 앉았다.

“없니?”

“네, 정말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럼 뭐 한 가지 물어볼게.”

그게 괜찮은 건지 내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았다.

“동생이 아팠을 때, 네가 게임 조립할 때 말이야 그 일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더 없을까?”

난 카펫에 있는 얼룩을 관찰하면서 그 모양이 코가 큰 여자인지 아메바인지 정하려고 하고 있었다. “비가 오고 있었죠.” 드디어 난 입을 열었다.

“다른 것은 없니?”

난 얼룩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없는데요.”

“그럼 이해가 안가는 부분 좀 설명해줄 수 있니?” 말을 계속 이어갔다.

“내 기억에는 부모님은 외출하셨어. 맞니?”

난 눈 하나 깜짝 않았다.

“넌 동생이 아픈 것을 부모님께 어떻게 알려드린 거야? 기억하니?”

난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지하실에서 계단을 두 개씩 밟고 올라가서 현관 밖으로 나간 다음 잔디밭을 가로질러 거리로 뛰었다. 전부 엄마의 크리스마스 뜨개질 공예품으로 장식된 창문이 있는 우리 집을 뒤로 힐끗 쳐다보고 나서 속력을 힘껏 내보려 했다. 비틀거리면서 앞으로 엎어졌고, 다음 보도 연석 옆에 무릎을 꿇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어떻게 일어섰는지도 몰랐다. 기억나는 건 달리면서

마치 발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면서 뛰는 동안 불거리를 제공하듯 몸 아래에서 한발 그리고 다른 발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인도에 부딪치는 걸 쳐다본 것뿐이었다.

우리 동네 주택단지 입구를 지나서 큰 거리로 달려 나갔었다. 로이 로저스, 데워 퀸(Dairy Queen) 또 비디오가게를 지나갔을 텐데 내가 정말 지나갔는지 기억이 안나. 내 발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을 봤을 뿐, 그러는 동안 어느 사이에 버즈 테버언앞에 서있었다. 문을 밀쳐 열고 안으로 들어갔지만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져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너무 바짝 익힌 핫도그와 축축한 스웨터 냄새가 났었다. 잠시 토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바에 한 남자가 있었다. “아빠!” 좀 겁에 질린 애기 같은 소리가 나왔다. 그 남자는 뒤로 돌아 보더니 지겨운 눈으로 나를 봤다. 아빠가 아니었다. 다른 남자가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휘파람을 불었다. “아빠!” 이번엔 약간 화난 아이 소리였다. 그리고 이 사람은 우리 아빠가 맞았다.

난지 제대로 분간을 못하는 것 같았다. “켈리니? 여기서 뭐하니?”

“샘이요. 아파요.”

“소다 마실래?”라면서 바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아빠 등이 엄청 컸다. 고개를 다시 돌렸을 때 손에 맥주가 있었다. 한 모금 들이킬 때 아빠 목젓이 위로, 그리고 아래로 내려갔었다.

“샘이 아파요!”

멍하니 나를 바라봤다.

“아빠!”

난 발을 굴렀다. “요양소에 있는 엄마한테는 전화했어요. 오는 중이래요.” 난 차분하게 말했다.

그때서야 아빠는 정신을 차린 것 같았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말을 안 했니?” 지갑을 꺼내더니 지퍼 몇 장을 카운터에 올려놓고 코트를 집었다.

난 비록 차에 타서야 날씨가 추운걸 알았다. 춥고 축축했다. “히터 좀 틀어줄래요?”

아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히터를 틀었다. 처음엔 찬바람이 나와서 더 추워지는 걸 피하려고 양팔로 몸을 감싸 안았다.

아빠는 차 안이 따듯해지자 히터를 끄고 코트 지퍼를 내리고는 옷깃을 잡아당겼다.

아빠를 찾으러 가는 도중 모두 내가 지나왔던 곳들, 패스트푸드 식당들, 비디오가게가 느리게 차창 밖으로 움직이며 지나갔다. 어째서 그곳까지 뛰어

갔을 때보다 차로 집까지 가는 것이 그렇게 오래 걸릴까? 하지만 여전히 엄마보다 빨리 도착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오래 걸리는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었다.

똑똑히 기억하고 있지만 당신한테 말을 하지 않았다. 그냥 앉아서 당신이 급기야 한숨을 쉬며 오늘 상담을 끝이라고 말할 때까지 난 카펫에 있는 얼룩만 보고 있었다.

무엇 때문인지 한밤중에 잠에서 깬다. 조용한 밤이었는데도. 일어나서 루비의 신발소리, 베개에 대고 누군가 우는 소리, 또 저 멀리 감시인들이 보는 텔레비전의 관객 웃음소리가 들리나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오늘날만큼은 정말 고요했다. 우유 같은 흰 빛깔이 온 방을 환하게 하고 있었다. 일어나서야 눈이 온다는 것을 알았다. 눈송이가 창문에 부딪치면서 희미하게 미끄러져가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자리에 누워 옆으로 돌아서 잠을 자려고 했다. 멀리서 차바퀴가 돌다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다.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주제로 다룬 토크쇼가 생각나. 전문가들은 잠들려고 애쓰느니 일어나서 책을 읽거나 우유한 잔을 마시라고 충고했다. 하지만 난 잠들려고 노력했다. 숨쉬기 게임을 해봤다. 효과가 없었다. 급기야 난 일어나서 슬리퍼를 찾으려 루비가 데스크에서 뜨개질이나 하는지 확인하기로 했다.

모든 기숙사 방 밖 바닥근처에는 아동보호용 야간 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것 때문에 복도가 공항 활주로 같다고 루비한테 말해줄까 생각하고 있었다. 좋아할 거야. 그리고 얘기를 나눌 거야. 그러면 잠을 잘 수 있겠지. 복도아래 끝에 로셀이 자리에 있으면서 늦은 밤에 토하거나 변비약을 허락 없이 먹는 애들이 있나 망을 보고 있었다. 베카 방을 지나가는데 희미한 야간 등 불빛 사이에 뭔가가 눈에 들어왔다. 베카 침대에 앉아있는 루비였다. 그녀를 기다려서 활주로 얘기를 해주려고 했다.

루비가 잠깐 시선을 들더니 반쯤 걱정하듯, 귀찮다는 듯 한 표정을 나에게 지었다. 벽 쪽으로 뒷걸음치고 나서 뒤꿈치를 들고 방으로 돌아가서 어찌든 아침까지 눈송이를 쬐고, 지금 시드니는 침대정리를 하고 있다.

식당은 여느 때보다 더 난리법석이었다. 아마 눈하고 팬케이크 때문일 거야. 왁자지껄하는 소리, 웃음소리 또 떠드는 소리가 최악이었다. 난 줄 서서 밥을 기다리고 있는데 데비가 내 앞으로 끼어들었다. 분명히 밥을 가져 가서 먹고 또 다시 온 것 같았다. 시럽이 줄줄 흘러내린 빈 접시가 손에 들려있었다.

“뭐가 그렇게 오래 걸려요?” 데비가 식당 부엌 배식구 너머 머리에 망을 쓴 종업원에게 소리쳤다.

그 종업원은 신경질적으로 웃고 있었다. 데비가 접시를 카운터 너머로 건네줬다.

“더 줘요.” 베카가 부탁을 했다.

내가 주스를 갖고 자리에 앉을 때쯤 되니까 데비는 거의 다 먹었다. 데비 앞에 앉아 있는 타라는 데비가 팬케이크를 한입 가득히 먹고 또 먹고 하는 걸 말 그대로 공포에 질린 듯이 보고 있었다. 아만다는 신기하다는 듯 데비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

“베카 어딴니?” 시드니가 물어봤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데비는 듣지 못한 것처럼 씹어대기만 했다.

“데비아? 베카 어디 있냐고?”

“양호실에.” 데비는 지겹다는 듯 건성으로 말했다. 아예 시드니는 쳐다보지도 않고 저 멀리 벽에 얼룩진 곳만 유심히 보고 있었다.

타라는 주스 컵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개한테 무슨 일 있는 거야?”

데비는 대꾸도 하질 않았다. 음식을 씹으면서 또 한 조각을 집어서 입에 얼른 집어넣었다.

“야?” 타라가 울 것 같았다.

“데비, 너! 너 왜 그러는데?” 시드니가 물었다.

데비는 어깨를 움찔했다.

“심장이 문제래?” 타라가 물어봤다.

데비가 서둘러 일어났다. 아랫입술이 떨리고 있었다. “몰라.” 식판을 잡고 멀리 뛰어가 버렸다.

테이블이 조용해졌다. 그러다 갑작스럽게 얘기소리가 터져 나왔다.

“심장마비가 또 온 게 확실해.” 타라가 입을 열었다.

시드니는 타라의 어깨에 팔을 걸쳤다. “걱정 마. 양호실에 있는 걸 보면 그렇게 심한 건 아닐 거야. 심각한 정도였으면 병원에 있겠지.”

티파니도 그 말에 동감하며 항상 가지고 다니는 가방을 집은 다음 타라에게 티슈를 줬다.

아만다는 뒤를 돌아보고 앉아서 웃고 있었다. “독해.” 존경한다는 듯이 말했다. “그 계집애 정말 대단해.”

난 테이블 가장자리에 있는 느슨해진 쇠조각을 만지면서 조금 구부러봤다. 별안간 내 손에서 그 금속 테두리가 부러졌다. 모두들 베카를 엄청 걱정하느라 정신없어서 나를 보지 않았다. 우연히 그것이 ‘뚝’하고 부러져서 내 수중으로 들어왔고 난 주머니에 슬쩍 넣었다. 만약의 경우를 위해서였다. 종이 울렸다. 하지만 난 자리를 떠나기가 힘들었다.

“내가 말한 우리 그룹 애 기억나요?” 난 당신이 문을 닫자마자 말을 꺼냈어.

“누구 말하는 거니?”

“베카요. 무지 빠쩍 마른 애요. 아직도 먹고 토한다는 거식증에 걸린 애말이에요.”

당신이 고개를 끄덕였다.

“개가요…….나는…….” 뜨거운 눈물이 눈에 고이기 시작했다. 당신 모습이 뿌옇게 보였다. “문제가 생겼어요.” 학교 중앙도서관  
난 창 밖을 바라보면서 햇빛이 너무 밝아서 그런 것처럼 손으로 눈을 가렸다.

“왜 그러니, 켈리야?” 난 당신을 살짝 훑쳐봤다. 당신은 기도할 때처럼 손을 꼭 마주잡고 있었다. “말해보렴.”

“우린 무슨 일인지는 몰라요.”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내가 ‘우리’라는 말을 썼다는 걸 알았다. 더 이상 못하겠어.

“또 심장마비가 일으켰을지도 몰라요.” 라고 뚝뚝 끊어서 끝내는 말이 나왔다.

당신은 티슈박스를 카펫 건너로 밀어서 내 발 옆에 놔줬다. “네가 왜 그렇게 속상해 하는지 말해줄래?”

“못해요.” 다시 몽롱해지고 이리저리 헤매는 느낌이 들었다. “정말 못하겠어요.”

당신이 몸을 뒤로 젖혔다. “내가 알고 있는 걸 말해 주면 기분이 나아지겠니?”

내가 멍하니 깜짝 놀라서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당신이 그룹 애들 일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이 어찌 보면 놀랄 일도 아니었다.

“심장마비는 아니라고 하더구나.”

난 몸을 앞으로 숙이고 당신이 계속 말하기를 기다렸다.

“의사말로는 지난밤에 베카 심장고동이 불규칙했고 가슴에 두근거리는 증상이 있었단다.”

“심장마비는 아니에요?” 난 확실히 알고 싶었다.

“그래. 단순한 탈수 현상일 수 있다고 했었다.”

“자꾸 토해서요?”

“그럴 가능성이 높지.”

난 티슈를 뭉쳐서 쓰레기통에 던지고 또 한 장을 집어 들었다. “그럼 앞으로 괜찮을까요?”

당신은 고른 숨을 길게 한번 내쉬었다. “모르겠구나. 자신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면 좋아질 거야. 그렇지 않으면…….” 당신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다.

“테비가 정말 속상해 했어요.”

“테비라구?”

“베카 신경 써주는 애요.”

“어떻게 알았니?”

“테비가 팬케이크를 먹었어요. 엄청 많아요.” 난 테비가 아침식사 테이블에서 음식을 입에 떠 넣던 것을 생각했다. 그리고 예전 같았으면 테비가 그렇게 먹는 걸 보고 속이 메스거리거나 짜증이 나거나 아니면 오히려 은근히 날 즐겁게 해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은 그냥 슬프기만 했다.

“기분이 어떠니?”

“저요? 모르겠어요.”

내 대답에 충분히 만족한 것 같지 않았다.

“타라요. 개도 속상해 했어요.” 테비, 타라 또 나머지 애들 얘기도 하고 싶은걸.

“새로 온 애요. 이상해요.”

당신이 고개를 살짝 갸우뚱거렸다.

“그런 일을 행복해하는 것 같았어요.”

“켈리아, 너는 어떠니? 베카가 한일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니?”

당신이 급히 시계를 보더니 재빨리 시간을 확인했다.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난 주머니 걸을 가볍게 쓰다듬어 쇠조각을 찾으면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라고 내 자신에게 말했다.

어떻게 느끼이냐고? 굶고 싶어지지. 왜 그런지는 몰라. 그리고 그걸 당신한테는 말하지 않았다.

집단치료실에 갔을 때 이미 다들 와있었다. 베카가 앉던 자리와 데비 옆자리만 남아있었다. 데비는 눈이 충혈 됐는데, 눈꺼풀에 파란 아이새도를 발랐고 얼굴은 파우더를 칠해서 하얗다. 울었던 게 확실했다. 난 개 옆자리로 슬쩍 앉았다.

클레어가 먼저 베카가 괜찮을 것 같지만 얼마 동안은 양호실에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얘기를 시작했다.

“심장마비가 아니었어?” 타라가 물어봤다.

“다시 돌아오는 거야?” 티파니도 궁금해 했다.

클레어는 안경을 벗고 콧대를 문질렀다. “베카는 밥을 먹지 않았어. 먹을 걸 숨긴 다음에 버린 거야.” 빛이 들어오는 쪽으로 안경을 들어 올리더니 티슈로 얼룩을 닦아냈다. “그리고 또 거의 먹지도 않았는데 토해 낸 거야.” “이제,” 라며 안경을 다시 쓰고 나서 “이 시간에 해야 할 얘기는 바로 베카의 행동에 대한 너희들의 생각이야.”

티파니는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데비는 껌을 씹고, 난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상담실은 아무 소리가 없었다. 너무 고요해서 옆 집단치료실에서 나는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다.

“먼저 말 할 사람?” 클레어가 마침내 말을 꺼냈다. “알았어. 앉아있는 순서로 돌아가며 하자.”

내 심장이 뛰고 있었다. 이렇게 한 적이 없거든. 내 순서가 되면 어떻게 될까?

“티파니, 너부터 시작할래?” 클레어가 물었다.

난 숨을 내쉬었다. 내 순서가 되려면 네 명이 남았었다.

티파니는 눈을 굴리며 가방 끈을 조절하고 있었다. “난 화가나. 이유는 몰라. 그냥 화나.” 그리고는 타라를 보.

타라는 어깨를 으쓱거렸다. 그리고 나서 울기 시작했다. 손을 급히 쳐들더니 아만다를 가리켰다. 내 심장이 두 배나 더 빨리 뛰고 있었다. 두 명 다음엔 내 차례였다.

“난 걔 썩 잘 알지는 못했어. 내 말은 어떤 앤지 정말 잘 모른다는 거야. 개가 죽거나 한 것도 아니잖아.”

애들을 둘러보면서 으쓱대는 미소를 던졌다.

“어떤 느낌이 들었냐고?” 클레어가 물었다.

“느낌? 아, 개가 한 짓으로 인해서 몇 가지 문제를 발견하긴 했다고 생각했지. 버림받을 거라는 두려움, 자기혐오, 억눌린 적개심 같은 거야. 그게 너희들이 찾고 있는 거 아니냐?”

클레어는 입을 오므렸다. 시선이 시드니에게 머물렀다.

“시드니, 너 어때?”

시드니는 내 옆에 앉았는데, 개가 뭐라고 하는지 거의 들리지 않고 심장만 정말 세차게 방망이질하고 있었다.

“괴로웠어.” 시드니 목소리가 갈라졌다. 헛기침을 했다. “개가 자신한테 하는 짓 그게 날 괴롭혔어. 어떻게 자기한테 그럴 수 있는 거야?” 울기 시작하면서 나를 봤다.

난 애들을 둘러봤다. 타라는 야구모자 챙 아래로 눈물 어린 미소를 지어줬다. 아만다는 의심 간다는 눈초리로 날 봤다. 난 손가락 거스러미를 뜯었다.

그리고 데비는 몸을 구부렸다. “켈리야, 말 안 해도 돼.” 개가 나머지 애들을 쪽 둘러봤다. “그렇지, 애들아?”

“왜 넌 사람들일에 간섭하니?” 티파니가 물어봤다. “왜 말하고 싶은지 혼자 결정하게 내버려두지 않는 건데? 너 켈리 엄청 걱정해준다. 말 할 필요 없는 것까지 확인시켜주려고 애쓰니까 말이야. 너야 말로 베키 얘기하고 싶지 않는 것 같은데.”

데비가 그 말을 무시하고 클레어를 봤다.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거지?”

클레어가 한숨을 쉬면서, “그건 켈리가 결정할 일이야. 켈리야, 오늘 말할 수 있겠어?”

“어서, S. T.” 시드니가 속삭였다.

난 손 거스러미를 잡아 당겼다. 머리에서 몇 마디가 그 다음 말들이 홍수처럼 생각났다. 그리고는 사라져버렸다. 머리를 처음엔 약하게 다음 세차게 흔들어대면서 머리카락이 좌우로 흔들리는 것을 봤다.

“알았어.” 클레어가 말했다. “데비?”

데비가 자리에서 몸을 움직일 때 우리 팔이 서로 살짝 스쳤다.

침묵이 흐르고 또 옆방에서 얘기소리가 들려오면서 다시 또 고요해졌다.

“겁이나.”

데비가 말하는 걸 확인하려고 결눈질을 한다.

“데비야.” 클레어가 말했다. “니가 무서워하는 게 뭐니?”



데비는 셔츠를 손으로 비틀고 있었다. 난 가만히 있었다.

“너희 모두 나한테 화낼 거야.”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클레어가 물어보지.

데비가 어깨를 으쓱거렸다. 개 팔이 내 것에 또 스쳤다. 베개같이 부드러웠다. 난 딱 쥐었던 손을 느슨하게 했다.

“데비,” 클레어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잠깐 나 좀 불래?” 우리 모두 클레어를 바라봤다. “왜 우리가 너한테 화를 내겠어?”

데비가 셔츠를 비틀어서 매듭을 만들었다. “막았어야 하는데.”

모두들 자리에서 움직거렸다. 맞은편에서 기침을 하는 애도 있었다. 그리고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타라가 드디어 손을 들었다. “넌 개가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 알 수가 없었잖아.”

“알고 있어야 했는데.” 데비는 애들을 둘러봐. “니들이 뭘 생각하는지 알아. 너희 모두 날 미워하는 거 알아. 베카한테 제대로 신경 써주지 않아서 날 미워해. 알고 있어.”

모두 조용했다.

데비는 주먹으로 자기 허벅지를 세게 때리고 있었다. “그래도 그럴 순 없어 남들이 원하는 건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집에서는 식구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다했다. 쓰레기 분류하는 거, 고양이 번기 청소, 빨래…….”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다.

“왜 그러는데?” 시드니가 부드럽고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어봤다.

데비가 어깨를 움찔했다.

“왜 넌 사람들이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해주는 거니?”

데비가 고개를 저었다. “나도 몰라.”

지친 목소리였다. “정말 몰라.” 피곤해서 나오는 듯 한숨을 길게 쉬었다. 데비 차례가 끝나고 다시 조용해졌다. 몸을 의자 깊숙이 대고 팔을 내 것에 올려놓았다. 난 팔을 빼지 않았다.

“니 잘못이 아니야.”

내입에서 나온 말이었다. 난 무릎을 보며 말했다. 하지만 그건 데비를 위한 말이었다. 내가 해주는.

애들이 의자에서 폼지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다시 조용해졌다. 머리카락 아래로 내다보니까 발들이 동그렇게 있는 것이 내 시야로 들어왔다. 모두들 운동화를 신는데 아만다만 군인용 부츠를 신고 있었다.

데비가 몸을 돌려 나를 보고 있었다. “뭐라고?” 라며 속삭였다.

“니 잘못이 아니라구. 베카일 말이야.” 내가 다시 말했다.

난 계속 아만다의 부츠를 봤다. 다리를 꼬고 있는데 한 발을 위아래로 흔들고 있었다.

“내 잘못이야.”

아만다가 발 흔드는 걸 멈췄다.

“내가…….” 내 목소리가 새어 나왔다. 목을 가다듬었다. “개를 봤……. 한번은 브라우니 케이크를 냅킨에 싸는 걸 봤어. 그리고 화장실에서 토하는 걸 알았어.”

난 의자 깊숙이 앉아있는데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너무 피곤했다.

침묵이 길어지면서 애들이 입 밖으로 말하지 않는 그 소리 없는 아우성. 고개를 들어 애들을 볼 수가 없었다. 얼마나 화난 얼굴들인가를 말아야. 발자국소리가 복도에서 울렸다. 소리가 점점 커지다가 희미해지면서 사라졌다.

“야, S. T.” 시드니가 결국 입을 열었다.

난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시드니가 팔꿈치로 날 찔렀다. “뭐하나 말해줄까?”

그래도 고개를 들 수 없었다. 하지만 머리를 끄덕였다.

“너두 잘못된 거 없어.” 시드니는 별일 아닌 것처럼 말했다. 정말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하지만 아무 일도 아닌 게 아니다. 엄청난 일이다.

집단치료가 끝나고 나서야 애들이 일어나서 책을 챙겨 각자 스케줄을 찾아갔다.

난 계속 머리를 숙이고 의자 끝을 쥐고 있는데, 내 인생이 걸린 것처럼 부여잡고 있었다. 조금 전에 여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나갈 수가 없었다.

“S.T. ?” 시드니였다. “안가?”

개가 내 앞에 서있었다. 테비도 있었다. 그리고 타라도, 클레어도. 이젠 반쪽 동그라미가 된 애들의 발들.

목을 조르는 것처럼 가슴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면서 입 밖으로 나와. 울고 있었다. 실은 흐느끼면서 숨을 들이쉬고 있었다. 눈물을 닦았다. 그 발들이 아직 있었다. 하지만 울음이 멈춰지지가 않았다. 클레어가 누구를 불러와야겠다고 했다.

마침내 흰 신발 한 켤레가 그 반쪽 동그라미 안으로 들어왔다. 루비 간호사가 와서 등을 쓰다듬어주면서, “그래, 그래. 아가야.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천으로 만든 작은 신발을 신고 서 있으면서 ‘이제 괜찮아.’라고 루비와 같은 말을 해줬다.

당신이 문을 닫았다. 밖이 어두워지는 걸 알고 나서는 내가 흥분해서 돌지만 앉았다면 당신은 지금쯤 집에서 개 산책을 시키거나 저녁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다.

“네가 뭐 때문에 그렇게 심한 충격을 받은 건지 말해 주겠니?”

어깨를 으쓱거렸다. “데비요.”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었다.

“데비가 어떻게 했는데?”

“아니요.” 난 코를 풀었다. “아무 짓도 안 했어요. 난……개가…….” 화장지를 들로 나누어서 또 찢고 있었다. “자기가 잘못된 거 같네요. 베카가 그렇게 된 게.”

당신 얼굴을 차마 볼 수가 없었다.

“내 잘못이라고 생각했어요.”라고 난 속삭였다.

당신을 힐끗 보고 시선을 돌렸다. 걱정스런 얼굴을 했다.

“모든 게 내 탓 같아요.”

“또 뭘 잘못했는데?”

“모르겠어요. 다요. 동생 일도 그렇고요.”

“동생?”

“개가 아픈 건 나 때문이에요. 동생이 아프면 엄마가 달라지니까 내 잘못이고, 아빠가 집에 거의 있지 못하니까요. 모두 내가 잘못해서 그래요.”

“켈리.” 부드러운 목소리야. “왜 모든 것이 네 잘못이니?”

“몰라요. 그냥 그런 거니까요.”

“샘이 아픈 것이 왜 너의 잘못이 되는 거니?”

“내가 울렸으니까요. 화나게 했으니까요.” 난 항상 그게 내 잘못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크게 말하고 나니까 우스웠다.

“켈리. 난 의사야. 울거나 화가 나서 천식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면 날 믿을 수 있겠니?”

난 어깨를 으쓱거렸다.

“천식은 알레르기 반응 같은 거란다. 꽃가루나 먼지 같은 특정한 물질과 접촉했을 때 발병하는 거란다.”

“가끔 바이러스 감염으로 발작이 일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네가 천식에  
원인은 될 수는 없어. 알레르기 반응은 이미 몸속에 존재하고 있는 거야.”  
내 마음속에 다시 안개로 뿌옇게 되고 있었다. 당신이 하는 말은 생물시간  
에나 들을 수 있는 것 같았다. 나, 동생 그리고 항상 두려움에 떠는 엄마,  
늘 집을 떠나있어야 하는 아빠하고는 전혀 상관없었다. 천장에 있는 토끼  
를 찾아보지만 잘 보이지가 않았다.

“그 모든 것이 네 잘못이라고 말한 사람이 있니?” 당신이 내 생각을 방해  
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아니까요.”

“그것 때문에 누가 벌이라도 주니?”

난 고개를 저었다.

“없어?”

고개를 들어 당신을 봤다. 여전히 걱정하는 표정이었다.

“너 자신은 어머니? 스스로 벌주고 있는 거는 아니야? 자해를 해서?”

난 이해가 안 갔다. “아니요.”

“그럼 왜 몸에 상처를 낸다고 생각하니?”

“모르죠.” 티슈를 갈기갈기 찢고 있었다. “어쩌다가 그렇게 돼요. 어쩔 수  
가 없어요.”

당신 이맛살을 찌푸렸다.

“나쁘다는 건 알아요. 난……못된 애니까 그 짓을 하는가 보죠”

“얼마나 못됐는데?”

“몰라요. 그냥 난 정말 나쁜 애라는 생각이 들어요.”

“뭘 그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모르죠.” 그 순간 내가 한말 중 가장 맞는 말이란 걸 알았다. “정말 몰라  
요.”

당신은 만족하는 표정으로 오늘은 이 정도로 하자고 말했다.

저녁식사 바로 전 베란다는 담배 피우는 애들로 북적거렸다. 그곳을 지  
나가는데 시드니가 유리 창문을 두드렸다. 난 멈춰서 시드니가 그곳으로  
나오라고 손짓하는 걸 봤다. 어떻게 할까 생각하기도 전에 개가 담뱃불을  
비벼 끄고 날 데려가려고 들어오고 있었다.

“어서, S. T.”라면서 내 팔을 잡았다. “우리랑 같이 있자.”

난 소매를 엄지까지 내리고, 뽕지머리가 위로 아래로 찰랑거리면서 걸어가는 시드니의 큰 걸음을 맞춰 따라가고 있었다.

“이젠 너한테 S. T. 라고 부르면 안 되겠네.” 시드니가 내가 따라갈 수 있도록 문에서 기다렸다. “이젠 입을 열었으니까 말이지.

“괜찮아.”라면서 난 “계속 그렇게 불러도 돼.” 시드니가 문을 여니까 희뿌연 연기가 뒤섞인 차가운 한줄기 바람이 불어왔다. 난 다른 애들의 신기하다는 시선을 받으면서 베란다에 발을 내놓으면서 손을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한대 필래?” 시드니가 앞에서 담뱃갑을 흔들었다. 난 고개를 저으면서 시드니가 성냥불이 바람에 꺼지지 않도록 손으로 오므려서 조심이 담배에 불을 붙이는 걸 지켜보았다. “내가 즐기는 중독이지.”라고 하면서 담배 연기로 도톰한 도넛을 만들고 있었다.

티파니가 저쪽에서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우리가 여기서 담배 피울 수 있다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한 사람 없나?”

시드니는 자기가 만든 도넛이 날아가는 것을 보면서 감탄하고 있었다. “맞아.” 시드니가 “구토 안 돼, 폭주 안 돼, 물감 흡입 안 돼. 그런데 담배는 오우케이지.”

나머지 애들이 웃는데, 나도 내 입 꼬리가 올라간 걸 느꼈다. 옷소매를 올려 입에 대고 있지만 애들이 규칙, 음식, 집단치료에 대해 농담할 때 웃음이 내 입가에 여전히 남아있었다. 밖은 추운데도 시크 마인즈에서는 왜 아무도 코트를 걸치지 않는 건지 궁금했다. 거기에 있는 동안 주로 다시 웃는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시험해봤다.

그날 밤은 너무 피곤해서 옷을 입은 채 잠이 들었다. 침대에 앉아서 영어숙제로 책을 읽고 있었는데, 루비가 내 위로 몸을 구부리면서 소등시간이 거의 다됐다고 했다

“이거 입고 자야지?”라면서 잠옷을 들고 있었다.

그리고 복도 아래로 신발소리를 내면서 가버렸다. 방이 어두워. 시드니는 똑바로 누워 자고 있었다. 난 천천히 일어나서 화장실로 발길을 옮겼다.

로셀이 의자에 앉아있고 아만다가 세면대에서 서있는데 거의 알아보지 못할 뻔 했다. 둥글게 그린 눈썹, 까만색의 아이라이너, 빨갛게 칠한 입술화장을 짝 지운 얼굴이었다. 그런데 엄청 어려 보였다. 거울에 비친 자기 얼

굴을 보느라 내가 온 것을 바로 눈치 못 챘다. 내가 있는 걸 알고는 얼굴을 찡그리고 있었다.

난 구석을 찾아가서 등을 돌리고 나서 개가 볼 수 없게 샤워를 하려고 옷 벗는 일을 시작했다.

먼저 브래지어를 풀고 끈을 내린 다음 셔츠 밑으로 빼냈다. 그런 다음 타월을 어깨에 두르고 셔츠를 벗고 재빨리 토가(Toga)처럼 타월로 몸을 가리면서 셔츠를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다음, 한 손으로 타월을 잡고 다른 손으로 바지를 아래로 잡아당기면서 청바지를 벗었다. 한발로 균형을 잡으며 바짓가랑이를 툭 차는데 금속 따위가 바닥에 떨어져 부딪쳐 ‘퐁’하는 아주 작은 소리가 났다.

식당 테이블에서 가져온 쇠조각이었다. 그게 아직 주머니에 있던 걸 깜박했던 것이다. 순간적으로 다리를 쭉 미끄러지듯 타일바닥위로 뺏어서 발로 그것을 가렸다.

로셀이 고개를 벌떡 들었지만 화장실 쪽으로 보고 있었다. 그런데 아만다가 쩍싸게 나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타월로 가슴을 가리고 한쪽 발 반은 바짓가랑이 안에, 다른 쪽은 바닥을 가로질러 멀리 부자연스럽게 뺏어 있는 나의 어색한 자세를 보고 있었다. 다음 그 애는 고개를 천천히 허락이라도 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개가 “로셀,”하고 소리쳐 부르면서 나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 “밖에 아무도 없어요? 필요한 게 있어요.”

난 너무 깜짝 놀란 나머지 움직일 수가 없었다. 날 일러바쳐서 난처하게 할 건가?

로셀이 일어나. 화장실 문을 쿵쿵 두드리면서 하나씩 열어보고 누가 있는지 확인했다. 마지막 화장실이 비어있는 것을 알았을 때 짜증난다는 듯이 아만다를 노려봤다. “이 야심한 시간에 뭐가 필요하단 거야?” 아만다가 날 보며 웃고 나서 로셀 쪽으로 돌아서서, “생리대가요.”

이해가 안됐다. 그리고 알았어. 아만다는 로셀을 멀리 보내려고 쓸데없는 일을 시켜서 내가 금속 테두리를 숨길 수 있게 한 거야.

로셀이 한숨을 쉬었다. “너희 둘 섭식장애 있는 애들 아니지? 잠깐 자리 비운다고 토하거나 하지 않을 거지?”

우리는 거의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믿는다. 이상한 짓 안 하겠다.”

우린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로셀이 갔다. 아만다가 어느 사이에 내 옆에 와 있었다. 내가 발을 다시 미끄러지듯 끌면서 제자리로 가져오니까 그 테두리가 들 사이에 있는 바닥에 놓여있었다.

“어서 냐냐?”

“식당 테이블에서. 내가 부러뜨렸어.”

“간도 크셔. 정말 간쟁이가 부었군.”

그것을 보고 상당히 기뻐하는 것 같은데, 아만다가 뺏어갈 것 같았다. 난 그걸 집어서 개 앞에 있는 쓰레기통에 그냥 던져 넣는 걸 상상했다. 그렇지만 난 그것을 주워서 손가락으로 가린 다음 로셀이 오기 전에 샤워기가 있는 쪽으로 갔다. 뒷덜미가 오싹해왔다. 아만다가 당장이라고 날 붙들고 내 손에서 그걸 강제로 뺏어갈 수도 있다고 경고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러진 않았다.

물을 세게 틀면서 아만다가 로셀에게 생리대 고맙다고 하는 걸 들었다. 화장실 문이 열리고 나서

아만다가 놀리는 것 같이 잘 자라고 소리치는 것이 들렸다. 천천히 타월을 내려서 그 테두리를 싸고 샤워기 밑으로 갔다. 샤워를 끝내고 방에 갈 시간이 됐을 때 그걸 바지 속에 다시 집어넣고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이 접었다. 그걸로 뭘 할지는 나중에 생각할거야.

오늘은 당신을 마주보고 앉는다는 것이 갑자기 쑥스러웠다. 어제 우리 사이에 일이 있었고, 난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당신이 미소를 지으니까 따뜻하고 좋은 느낌이 나에게로 전해졌다. 난 소파 쿠션 위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오늘은 노력해서 당신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겠다고 다짐했다.

“기분 어떠니?” 당신이 물어봤다.

“좋아요.” 그건 사실인데 어색하게 들렸다. 당신에게 환하게 웃어 보였다. 당신도 웃어주었다.

“켈리야.” 당신은 내 이름을 부르면서 무릎에 손을 모았다.

“어제 집단치료시간에 말문을 연 것은 정말 좋은 시도였다.”

“그래요?” 당신의 말이 더 듣고 싶었다.

“대단한 용기였어.”

체크무늬 셔츠가 불편한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편안한 느낌이었다.

“다른 애들 앞에서 말하는 기분이 어땠니?”

“괜찮았어요.” 좀 더 그럴싸한 대답을 생각하고 있었다. “조금 겁이 났던 거 같아요.”

“뭐가 겁났는데?”

“애들이 나한테 화낼 거라는 거요.”

“그래.” 고개를 끄덕였다. “누가 화낼 거라고 생각했니?”

“몰라요. 다요?”

“모두?”

난 어깨를 으쓱거렸다. 희미한 느낌이 날 감싸고 있었다. 제대로 된 대답을 해주고 싶지만 생각이 나질 않았다.

“이것 좀 물어볼게. 네게 사람들이 너한테 화를 많이 내는 편이니?”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당신이 내 말을 기다렸다.

“엄마는 많이 울긴 해도 소리치거나 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아빠는…….”

난 손 거스러미를 입으로 뜯고 있었다. “아빠는 그렇게 심하게 흥분하는 편은 아니에요.” 결국 내가 말을 했다.

밖에 차 한 대가 얼음판에서 빙빙 돌고 있었다.

“아버지 얘기는 많이 하는 것 같지 않구나.”

다리 근육이 굳어지는 걸 보면 뭘 준비가 된 것이었다. 다리를 이쪽저쪽 꼬면서 자리에 그냥 앉아 있으려고 열심히 노력 중이었다. “그래서요?”

“아빠에 관해서 뭘 말해 줄 수 있을까?”

“당신 파일에 없던가요?”라고 조금 있다 말했다.

“너의 아빠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어. 면회하는 날 네 엄마는 만난 적이 있지만 아빠는 오시지 않았더구나.”

“일 때문이에요.” 아빠를 찾으려고 주차장을 훑어 봤던 일, 어떤 애 아빠가 인도 위로 올라오는 것, 창문을 두드린 것, 그리고 우리 아빠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당신은 파일을 톡톡 두드리고 있었다. “아버지께서 컴퓨터 영업사원 맞으시니?”

당신 파일에는 꼭 아빠가 무슨 라디오 쉿(Radio Shack)에서 일하는 것처럼 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화가 났다. “아빠는 회사들을 상대로 컴퓨터 판매를 하세요. 사람들 접대 같은 것을 해서 대형 컴퓨터 시스템을 일체를 사게 만들죠.”

당신은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았다.



“출장을 가셔야 하죠.”

여전히 당신은 아무 말이 없었다.

“그게, 예전에 그랬다는 거죠. 출장 가는 거요. 동생이 아프고 나서 일을 바꾸셨어요. 이젠 가까운 곳에 있는 회사들을 상대로 영업을 뛰시죠.” 주변에 있는 모든 회사들이 이미 다 컴퓨터를 설치한 것 같다는 등, 얼마간은 사람들을 장차 미래 고객으로 만들기 위해 접대하는 일도 했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그냥 외출을 많이 한다는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다. “할 일이 많으시죠.”

“그래서 면회하는 날 못 오신 거니?”

다리 근육이 뒤틀리고 심장이 쿵쿵 뛰고 있었다. 내가 원하는 건 단지 소파 밖으로 뛰쳐나가서 달리는 것이었다. 난 다리를 다시 꼬아서 한쪽 다리로 다른 쪽을 움직이지 못하게 감고 있었다. “더 이상 아빠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난 입을 일자로 잡아당긴 다음 입술을 깨물었다. 어떤 일인지 어제 느꼈던 따뜻하고 좋은 감정이 약간 사라졌다.

“켈리?”

입술을 이젠 좀 세게 깨물고 있었다.

“켈리, 입술을 깨물고 있구나.”

잠시 당신 눈을 바라보다가 창밖에 있는 앙상한 나뭇가지를 봤다.

“‘입술을 깨물다’라는 표현을 알고 있니?”

“그럴걸요.”

“무슨 뜻인지 말해 주겠니?”

“그거요.”라면서 난 나뭇가지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입을 닥치다. 아무 말도 하지 않다.”

“아무 말도 하지 않다.” 당신이 내 말을 반복했다.

난 다시 입술을 깨물었다.

당신이 몸을 앞으로 숙이면 죽은 소가죽 의자가 신음소리를 냈다. “켈리, 네가 할 말을 안 하는 것 같아.”

이젠 어제 좋았던 모든 감정들이 사라져버렸다.

우린 집단 치료를 한참 하고 있는데, 티파니는 학교 쓰레기장 뒤에서 같이 섹스를 한 어떤 남자 얘기를 하고 있었다. 그 남자가 섹스애길 자기 친구들에게 말했는데, 그 친구들이 그 애길 티파니 친구들에게 또 말해줬

으며, 티파니 친구들이 그 사실을 양호교사에게 말해서 티파니가 그 선생을 패취야 했기 때문에 시크 마인즈에 오게 된 것은 다 그 남자 탓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다.

문이 열렸다. 우리 모두 누가 왔는지 고개를 돌렸다. 베카였다. 흰색 유니폼을 입은 진짜 간호사가 밀어주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티파니는 말하다가 멈췄다.

클레어가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 돌아온 걸 환영해, 베카.”

베카가 손가락을 꿈틀거리며 인사를 했다. “안녕, 애들아.”

다들 아무 말이 없었다.

“베카는 앞으로 계속해서 집단상담 치료를 할 거야.” 클레어가 조심이 말을 꺼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들과 종일 같이 지낼 수 있게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얼마간은 다른 병동에 있게 될 거야.”

우리 모두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았다. 험딘거였다.

베카가 킬킬거렸다. 다른 애들은 자리에서 주저주저하고 있었다. 간호사가 휠체어를 아만다 옆으로 밀고 갔다. 아만다가 의자를 옆으로 약간 밀고 나서 팔짱을 끼고 걸눈질하며 베카를 보고 있었다. 간호사가 휠체어 브레이크를 걸고 나갔다.

취죽은 듯 고요했다.

“좋아 보인다.” 누군가 드디어 말문을 열었다. 시드니야. 떨리는 목소리로, 애들을 돌아가며 보면서 신경질적인 시선을 던졌다.

베카는 혀를 내밀고 손가락을 목구멍을 가리키며 구역질하는 흉내를 냈다. “나한테 튜브를 꼴더라.” 베카는 수줍다는 듯 씨익 하고 웃었다.

또 침묵이 길어지고 있었다.

“너희들은 내가 똥똥하다고 생각 안하니?” 베카가 또 킬킬거렸다.

데비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문으로 걸어갔다.

“안돼, 데비.” 클레어가 말했다. “여기 있어야 해.”

데비가 뒤로 돌아섰다. 이를 악물고 있었다. 목에 있는 핏줄이 튀어나와 있었다.

클레어가 데비의 빈 의자를 가리켜. 데비는 헛기침을 하며 자기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다들 꿈쩍 않고 있었다.

베카는 머리카락을 어깨위로 넘겼다. “그래서, 뭔데? 니들 나한테 화라도 난거니?”

시드니가 기침을 했다. 그리고 아무 소리가 없었다.

“그래.” 건너편 쪽에서 작은 목소리가 새어 나와. 타라야. 야구모자 챙 아래로 베카를 내다보고 있었다.

베카가 믿지 못하게 다는 듯, 말도 안 되는 농담인양 씩 웃었다.

“왜? 나 멀쩡해. 보이지?” 이를 악물고 애써 웃는 표정을 지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게다가 뭐가 문제라는 건지 모르겠어.” 베카가 말했다. 클레어를 보고 나서 애들을 쳐다봤다. “내가 니들한테 무슨 짓을 한 것도 아니잖아.”

데비가 콧방귀를 쏘았다.

“그랬어.” 타라야. “했어.” 데비는 무릎을 보며 손가락 관절을 꺾고 있었다. “니가 한 짓이 우리 모두한테 영향 줬어. 나. 데비. 켈리. 우리 모두.”

‘우리.’ 처음으로 내가 ‘우리’에 끼게 된 것이다. 내 뺨이 발개졌다.

베카는 차례차례로 돌아가며 애들을 쳐다봤다. 기대에 차면서도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했다.

“우리는.....” 타라가 말을 잊지 못했다.

“우린 두려웠어.” 시드니가 갑자기 말을 했다. “우린.....그게 니가 건강해졌으면 해. 그래서 우리 모두 이곳에 있는 거 맞지? 건강해지려고?”

난 이 말에 애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있었다. 타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데비도. 티파니는 어깨를 으쓱이고. 아만다는 시계를 보고 있었다.

베카가 멍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클레어가 드디어 뭐라고 말을 했다. “베카? 기분은 어떠니?”

베카는 대답하지 않았다.

“기분 안 좋아 보인다.”

베카가 고개를 끄덕이고 클레어한테 “잠시 양호실에 돌아가도 괜찮을까?” 라고 말했다

클레어는 괜찮다고 하면서 돌아와서 처음인데 이 정도면 감당하기에 너무 벅찰 거라고 했다.

그리고 문으로 가서 감시인에게 신호를 보냈다.

마리가 들어와서 휠체어 브레이크를 풀고 밀고 나갔다.

베카가 갈 때 우리 모두 앉아서 데비를 쳐다봤다. 마스크라가 뺨에 번진 채 턱은 움직이는데 허공만 뻥뻥 보고 있었다.

“야, 괜찮아?” 시드니가 드디어 물어봤다.

데비는 멍하게 머리를 끄덕였다.

애들이 주위를 둘러보며 뭘 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다.

“진짜야?” 타라가 물어봤다.

“어.” 데비가 마침내 멍하게 쳐다보는 걸 멈추더니 말했다. “괜찮아.”

그리고 나를 봤다.

“넌 어떤데?”라면서 손등으로 얼굴을 닦고 있었다. “넌 괜찮아?”

다른 애들이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보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럼, 괜찮아.” 내가 대답했다.

데비가 웃으면서 손으로 입을 찰싹 때렸다. “내가 또 그랬어.”라며 “다른 사람을 챙기는 거. 아만다, 이것은 뭐라고 해야 되니?”

아만다는 놀랍기도 하면서 고민에 빠진 두 얼굴을 했다. “병적 상호 의존적인 행동.”라면서, “넌 또 서로한테 의지하고 의지 받고 하는 거야.”

데비가 큰 소리로 웃었다. 초조하게 웃긴 하지만 안심한 듯 나머지 애들도 웃었다. 우리 모두 웃었다.

이제 난 2레벨로 올라갔기 때문에 혼자 다닐 수 있었다. 다른 애들은 휴게실에 있는데 사목게임은 별로 하고 싶지 않지만 오늘밤은 오락실로 가고 있었다. 정말 텔레비전이 보고 싶었다. 왜냐면 여기 온 다음부터 한 번도 본적이 없었다. 하지만 느닷없이 그냥 휴게실에 들어가서 다른 애들이랑 같이 있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다. 문을 지나가는데 타라 야구모자가 나를 향해 돌았다.

“켈리?” 내가 돌아서니까 개가 내 뒤에서 복도를 달려오는 게 보였다.

슬리퍼 신은 발을 질질 끌면서 마지막에는 샴이 좋아하는 하키선수같이 미끄러지듯 멈췄다.

“야!” 숨을 헐떡거리고 있었다. 타라 건강이 좋아지지 않아서 심장마비에 걸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다. 난 멈춰서 그 애가 숨 돌릴 때를 기다렸다.

“어휴!” 개가 미소를 지었다. “우린 너두 텔레비전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거든.” 머리를 휴게실 쪽으로 기울였다. “있잖아, 그룹 애들이랑. 니가 싫지만 앓는다면 말이야. 혼자 있고 싶대도 괜찮고.”

타라는 아직도 숨이 차서 거칠게 몰아쉬고 있었다.

“그래.” 난 그렇게 말하면서 기대하면서도 당황해 하는 그 애 표정을 보고 있었다. “그래 좋아.”

시드니와 데비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바닥에 앉아있는 티파니는 잡지를 넘기면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시드니는 내가 들어가니까 고개를 들더

니 옆쪽으로 미끄러지듯 움직이더니 옆자리를 툭툭 가볍게 치고 있었다.  
“S. T. 여기 앉아.”

소과는 속을 두툼하게 채운 건데 울룩불룩하고 커서 깊숙이 앉으니까 발이 바닥에 닿질 않았다. 내 옆에 타라도 앉는데, 보니까 개도 발이 안 닿는 것이었다. 제퍼디를 보고 있었다. 데일리 더블을 할 때였다. 팀이란 참가자가 무성영화 스타 오백 달러를 선택했다. 진행자가 난이도가 높은 질문을 했다. “이 여배우는 미국의 연인이라고도 불리면서 하이디 시리즈의 원작에 출연했었습니다.”

“어서, 팀.” 시드니가 외쳤다.

“설리 템플인가?” 데비가 말을 꺼냈다.

“아니야.” 티파니가 대답했다. “무성영화 배우라잖니.”

난 알았다. 누군지 알고 있었다. 엄마가 쉬는 동안에 동생과 엄마랑 그 영화를 텔레비전에서 봤었다. “메리 픽포드야.” 내가 속삭였다. 그리고 더 크게, “메리 픽포드.”

팀이 버저를 눌렀다. “그 여배우는 메리 픽포드입니다?”

데일리 더블 벨이 울렸다. 팀은 깡충깡충 뛰었다. 시드니는 내 등을 툭툭 쳤다. “잘하는데. 에스티. 니가 데일리더블에서 이긴 거야!”

다음날 아침식사에서 티파니가 힘없이 집에 가게 됐다고 애들한테 말했다. “보험처리가 더 이상 안 된데.”라면서 접시에 있는 스크램블 에그를 이리저리 휘젓고 있었다. “몇 달 더 가능할 것 같다고 얘기 하더니 이제는 한 달 밖에 안 남았는데 그게 오늘이 마지막 날이야.”

“재수도 좋아!” 아만다가 비아냥거렸다.

티파니가 투덜거렸다.

“좋지 않아?” 타라가 물어봤다.

티파니는 계란에 소금을 뿌리고 좀 더 이리저리 건들면서 포크를 내려놓았다. “응.”

“왜? 난 니가 여길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티파니가 고개를 저었다. “여기가 이상한 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식구랑 한번 살아봐.”

몇 명이 고개를 끄덕거렸다. 아무도 밥 먹을 기분이 아닌 것 같았다.

“너 이젠 어떻게 할 거야?” 시드니가 잠시 후에 말했다. “있잖아, 좋아지기 위해서.”

“외래 환자 진료소 같은 곳에 보낼 거래. 매일 방과 후에 모여서 하는 집단상담 같은 거.” 티파니는 파리를 후처 내는 것처럼 손을 흔들었다.

“학교 갔다가 오후에 집단치료 받으러 올 수 있잖아?” 시드니가 다시 물었다.

“너무 먼 거 같아.” 티파니가 침울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조용하게 “예전하고는 다를 거야.”

벨이 울렸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자 클레어가 오더니 우리가 바로 스케줄대로 움직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줬다. 우리가 티파니를 정문까지 배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만다를 제외한 우리들은 둥그렇게 대합실에 서서 떠나는 애기 같은 건 하지 않고 티파니가 타고 갈 택시를 기다리는데, 정문으로 갈 시간이 됐는데도 아만다는 나오질 않았다. 티파니가 가지고 있는 물건 다 넣었는데도 비닐봉투 한 개를 채우지 못했는데, 그걸 손에 들고 가방 고리를 만지작거리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는 모습이 웬일인지 왜소해 보였다.

마침내 택시 한대가 서서 경적을 울렸다. 시드니가 티파니를 껴안아 줬다. 타라는 편지하겠다고 했다. 데비는 정말 보고 싶을 거라고 말했다. “너 내가……개떡 같다고 했을 때 가만두지 않았지.” 데비한테 개떡 같다는 말은 엄청난 일인데, 그냥 웃을 것 같기도 한데 눈에는 눈물이 그렇그렇했다.

티파니는 내 팔을 살짝 치더니 집단치료 때 말을 계속 하라고 했다. 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곤 끄덕이는 건 말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알았어.”라고 말했다. 난 “약속할게.”라고 하고 싶지만 목구멍이 콧 메어왔다.

티파니도 애들도 막 울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때 시드니가 “야, 이제 너 가니까 말인데, 그 빌어먹을 가방 왜 항상 끼고 다니는지 말해주면 안 되겠니?”

티파니가 가방 고리를 만지작거렸다. “아무한테도 말 안 할 거지?”

우린 맹세했다.

가방을 열더니 너털너털한 분홍색 천을 꺼냈다. “나 애기 때 쓰던 담요야.” 썩 웃으면서 어깨를 으쓱거리고 돌아서서 가버렸다.

자동문이 열리면서 흘러 들어온 따뜻하고 촉촉한 바람결에 머리카락이 위로 올라와 내 얼굴을 감쌌다. 눈이 녹았다. 아주 작은 초록색 봉우리가 나뭇가지 끝에 움트고 있었다. 곧 봄이 온다는 게 생각났다. 그리고 여름이

오겠지. 꼬마들은 인도 위에서 자전거를 타고, 아빠들은 바비큐 그릴을 펼치고, 엄마들은 레모네이드를 만들겠지.

문이 닫히면서 시크 마인즈는 다시 겨울이 돼 버렸다.

가슴이 온통 저리고 아팠다. 뭔가 필요한데 그게 정확히 뭔지 모르겠다.

데비, 시드니, 타라 그리고 나는 발을 질질 끌며 기숙사로 가면서 아무 말도 하질 않았다. 감시인 데스크에 도착해서 우린 뿔뿔이 흩어졌다. 아무도 서둘러 다음 치료를 받으러 가지 않는데, 더구나 자습실은 내 독차지일 테니 그럴 필요가 없었다. 루비가 코트를 입고 당직을 끝내고 있는 게 보였다.

“루비, 저 쪽 세상은 오늘 무슨 요일이예요?” 애들이 가고 나서 물어보았다.

“저쪽 세상? 무슨 말이니, 애야?”

“바깥세상이요.” 창문을 가리키지. “무슨 요일이죠?”

“수요일이란다.”

“아니요. 날짜요. 몇 월 며칠인가요?”

루비가 칠판을 쳐다봤다. 타파니 이름이 벌써 지워졌다. 시드니와 타라는 데비처럼 레벨 3으로 올라갔다. 베카이름 옆에는 “H 병동”이라고 간단히 적혀있었다. 우리 그룹은 이제 다섯이다. 시드니, 타라, 데비, 개들은 곧 이곳을 나갈 테고 아만다와 나만 남는 거다.

“3월 27일이네.” 루비가 대답해주었다.

그녀는 이제 퇴근해서 잠을 자야겠다고 말했다. 집주변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드릴작업을 다 마무리 해줬으면 정말 좋겠다고 했다. 나를 유심히 보더니 미소를 지었다. 걱정하지 말라며 스카치 사탕 하나를 슬며시 건네주었다. 하지만 뭔가 그 부족한 느낌은 채워지지 않았다.

나중에 자습실에서 나와 당신 상담실로 혼자 가고 있었다. 대기실에 불은 꺼져있고 다른 상담실 밖에 있는 UFO도 조용했다. 난 밖에 있는 의자에 예전처럼 앉아서 기다렸다. 시계를 봤다. 치과라면 다 지난 내셔널 지오 그래픽 잡지가 읽으라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곳에는 티슈 상자가 더 많이 있었다.

시계를 또 쳐다봤다.

늦는군. 십오 분 지각이야.

티슈 상자와 UFO를 세고 있었다. 계산을 하고 있었다. UFO 한대당 티슈가 한 상자 반이다. 다시 시계를 보고 나서 당신이 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뭐가 잘못된 거야!

내가 실수를 한 것이다. 칠판에 내 상담시간이 바뀌었다고 쓰여 있을 것이다. 가끔 그런 일이 생긴다. 20분까지는 기다리기로 했다. 그 다음 칠판을 확인할 것이다.

그때 머릿속에 떠오른 게 있었다. 수요일엔 당신이 비번이라는 것. 지난번에 ‘목요일에 보자’라는 당신의 말을 기억났다. ‘내일 보자’라 고는 안 했다. ‘목요일에 보자’라고 했다. 왜 그런지 짜증이 나다가 두려웠다. 목요일은 한참 있어야 했다. 난 그때까지 뭘 하지?

자습실에 가서 내일 까지 몇 시간이 남아있나 계산이나 할까 생각했다. 몇 시간, 몇 분 또 몇 초. 그러면 적어도 그러는 동안 시간이 흐를 테니까.

자습실도 문이 닫혀있었다. 마지막으로 남은 곳은 휴게실이다. 들어가 보니 텔레비전은 켜있는데 아무도 보질 않았다. 그리고 아만다가 소파에 누워 있는 게 보였다. 슬쩍 나가려고 하는데 벌써 내가 들어온 것을 눈치 챘다.

“그래, 베카의 사기극에 넘어갔다 이거지?”

난 뭐라고 대답할지 몰랐다. 개 목소리는 완전히 자신만만해 부추기며 꼬드기는 말투였다. 그렇다고 해야 할 것 같은데 어쩐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어깨만 으쓱했다.

“그러셔”라면서 일어나 앉았다. “그렇다 이거지.”

그 애랑 멀리 떨어져 앉아서 텔레비전에서 패밀리 타이즈(Family Ties) 재방송하는 걸 열심히 보는 척했다. 알렉스는 엄마가 벽장문 여는 것을 막고 있었다.

“그래, S. T.” 아만다가 입을 열었다. “넌 뭘 쓰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 애는 소매를 걷어 올리고 팔 안쪽에 일렬로 난 자긋빛의 부은 상처를 가리켰다. 손목을 비틀어서 내가 팔찌처럼 부은 손목 둘레를 볼 수 있게 해주었다. “그거, 가위? 유리? 철사?”

난 텔레비전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 연속극에 엄마가 등을 돌리면 벽장에 숨어있던 사람이 문을 열었다. 알렉스는 문을 콧 닫고 시치미를 뚝다. 아만다가 날 왜 괴롭히는지 정말 모르겠다.



“예전에 자기 아버지 신용카드를 쓰는 여자애가 있었어. 괜찮은 수법이지. 거기에 약간에 심리적으로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거 같지 않냐?”

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즐기는 방법은?” 아만다는 교묘하게 움직이면서 TV보는 내 시야를 가로막고 있었다. “안전편하고 헤어스프레이지. 알코올로 문지르는 것도 괜찮긴 한데. 근데 헤어스프레이가 최고야. 그러면 상처자국이 부풀어 오르게든.”

아만다는 다시 누웠다. “그런데 말이지, 이 호치키스 찾아냈다. 자습실에 있는 의자 밑에 있더라. 성능이 좋거든.”

난 개가 자습실 의자에 앉아 자는 척하면서 팔을 문질러댈 때의 그 표정이 기억났다.

“세 번 짜줄 마지막 의자야. 혹시 니가 알고 싶어 할 거 같아서. 니 섯조각을 그 사람들이 찾아냈을 때를 대비해서 말이야.”

목요일, 난 당신이 무엇부터 얘기하고 싶으냐고 물어볼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다. 당신이 문을 닫고 있는데 난 당신에게 내 상처를 보고 싶은지 물어봤다.

당신 표정을 잘 모르겠다. “보여주고 싶니?” 당신이 입을 열었다.

난 고개를 끄덕였다. 엄지와 집게손가락으로 소매를 잡고 걷어 올리는 게 아니라 내리고 있었다. 손목이 다 텅일 때까지 말이다. 손이 가려지도록. 팔 전체가 소매 속에 있어 보이지 않도록 말이다.

“난 엄마의 익쩍토 칼을 썼어요.” 난 옷소매를 가만히 보고 있었다. “아니면 자수용 가위를 써요. 한번은 여기 방문객용 화장실에 있는 종이타월 디스펜서를 사용한 적도 있어요.” 난 입가가 올라간 걸 느꼈다. 기분이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지 웃고 싶은 것을 참아야 했다.

당신 표정이 어떤지 확인했다.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확실했다. 언제 나처럼 당신의 차분한 얼굴에서 기다림을 읽을 수 있었다. 기다림 또 희망 같은 것들 말이다.

난 엄지와 집게손가락 사이로 소매를 접어 올리다가 뭔가에 깊이 감동하듯 일부러 소매를 팔꿈치까지 올린 다음 당신에게 팔을 내밀었다.

당신은 혐오해 하거나 겁내고 아니면 수 백 가지의 기분 나쁜 표정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질 않았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심각하고 호기심 어린 표정인데, 어쨌든 아주 조금은 날 자랑스러워하는 얼굴인 것 같았다.

난 내 팔을 바라보았다. 그 위엔 섬세함과 희미함이 느껴지는, 상처를 낸 기억나는 그런 분홍빛 선들이 엇갈려 있었다.

천천히 소매를 내리고 바로 농담 같은 거라도 하면 나올 텐데 하고 생각했다.

“어깨 끈 없는 드레스는 죽어도 안 입을 거 같아요.”

당신이 어리둥절해했다.

“데비요, 우리 그룹에 있는 애요. 개는 항상 화려한 드레스를 그리는데요. 언제 한번 내 옷 한 벌 좀 디자인 좀 해달라고 해야겠어요. 긴 소매가 있는 걸로요.”라며 난 웃었다. 당신은 그렇지 않았다.

“왜 어깨 끈 없는 무도회 드레스를 절대로 입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니?”

난 어깨를 으쓱거렸다. 화려한 옷을 걸칠 생각은 해보지도 않았지만 이제는 우습게도 정말 한번 입어보고 싶었다. 사실 너무 그러고 싶어서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나도 몰라요.”

“언젠가 입게 될 걸.” 꽤 자신 있게 말했다.

“그럴까요?”

당신이 머리를 끄덕였다. “보통 여자애들이 하는 것들과 또 네가 하고 싶은 일들 반드시 다 하게 될 거야.”

난 지금까지 관심 없었던 망할 놈의 드레스에 아직도 빠져있었다. “이 팔을 하고요?” 난 엄지손가락을 소매로 가린 채 두 팔을 내밀었다.

“상처들은 없어질 거야. 어떤 것은 벌써 희미해졌는걸.”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다.

“치료할 수도 있거든. 흉터를 없애는 시술로 있단다.”

당신이 계속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난 틀림없이 못 믿겠다는 표정일 것이다.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한 여자아이가 있었다. 예쁜 애였는데 얼굴이 온통 흉터자국이 났단다. 거의 수술로 백 바늘을 꿰맸지.”

난 움찔했다. 너무 슬퍼서 그랬다. 그 애가 너무 안돼서 당신이 얘기를 그만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더 듣고 싶었다.

“지금은 모텔 일을 하고 있어.” “정말 성공한 너무 아름다운 모텔이 났단다. 성형수술을 해서 흉터를 제거했단다. 그 모텔이 어렸을 때 어떤 일을 당했는지 넌 상상도 못할 거야.”

그 얘기가 맘에 들기도 하고 아니기도 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다. 새 한 마리가 창문 밖에서 지저귀고 있었다. 또 한 마리가 저 멀리서 대답하듯이 노래했다.

“흉터를 없애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마침내 말문을 열었다.

당신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들도 사연이 있거든요.”

“그래. 그럴 거야.”

당신이 일어서는 걸 보니 시간이 다 된 것이다. 당신이 “오늘 잘 했다. 내 일 보자.”라고 하는 것을 기다렸다. 하지만 당신은 문손잡이를 잡고 그렇게 서있었다. 나도 일어서서 시계를 봤다. 원래 상담시간은 몇 분전에 끝났었다. 난 셔츠 끝자락을 잡아당겼다.

“켈리,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라도 있니?” 당신이 입을 열었다.

난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움직이지도 않았다.

“뭔가를 기다리는 것 같은데. 뭔지 말해 주겠니?”

다시 고개를 저었다. 그랬다가 끄덕였다.

당신이 문손잡이를 봤다.

난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고 그 셔츠코를 꺼냈다. “식당에서 주웠어요.”

당신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이 보였다. 그것을 당신한테 내밀었다

“나에게 주는 거니?”

난 카펫 얼룩을 응시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유를 설명해 주겠니?”

“그리고 싶지 않아요.” 난 발을 운동화 옆 부분으로 움직였다.

“그래야 내가 안……그게…….” 더 설명을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야 그걸 안 쓰죠.”

카펫을 보다가 고개를 들어 당신이 어떤 표정을 하는지 확인했다.

“기빠.” 마침내 입을 열었다. “이걸 사용해서 자해를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정말 기쁘구나.”

팔이 점점 힘들어졌다. 셔츠코가 많이, 아주 많이 무거운 것 같았다. 드디어 당신이 팔을 뺀어 그걸 집으면 그것이 내 손가락에서 슬그머니 빠져나가면서 가벼워졌다. 당신은 그것을 책상모서리에 올려놓았다.

“네가 이것을 가지고 뭘 할 건지 결정이 할 때까지 여기 놔둘게.”

이해가 안 됐다. “도로 가져가라고요?” 책상 가장자리에 놓여있는 조그맣고 뭉툭한 셔츠코를 쳐다보고 있는데, 아주 가까이 있어서 그냥 팔만 뺀기만 하면 주머니 속으로 다시 슬쩍 넣을 수 있었다.

“켈리.” 당신 목소리가 약간 슬프게 들렸다. “세상에는 온갖 것들로 네 자신을 상처 입힐 수 있었다. 무엇이든지 무기가 될 수 있었다. 그것들을 모두 나에게 맡기고 싶겠지만 그건 불가능하거든. 이해하겠니?”

알 것 같았다. 난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널 지켜줄 수는 없어. 너만이 할 수 있어.”

그날 밤 우리는 베카가 험던저에서 만난 새 그룹 애들과 있는 걸 봤다. 내 눈에는 그 애들 상태가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았다. 아마도 내가 이곳에 너무 오래 있었던 같다.

베카가 물 컵을 들고 우리 테이블을 지나갔다. 초조하게 웃는 얼굴만 빼면 멀쩡해 보이는 어떤 여자애가 식판을 두 개 들고 베카 뒤를 따라가고 있었다. 그 애가 테이블로 가더니 베카 앞에 식판을 놓고 의자를 당겨준 다음 냅킨을 주고 있었다.

테비가 가만히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손으로 햇빛을 가리듯 눈을 가리고 나서도 여전히 베카와 개 새 친구를 쳐다봤다. 테비는 결국 아만다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베카가 서로 기델 새 단짝을 찾은 것 같네.”

우리 다시 저녁밥을 먹으면서 베카를 보지 않으려고 했다. 오늘 밤 파스타 요리는 정말 맛이 없었다. 난 샐러드 바 에나 가볼까 생각 중이었다. 먼저 유령이 왈츠를 추고 있는지 봤다. 없었다.

“그 유령은 어디 간 거야?” 시드니에게 물어봤다.

“집에. 집에 갔어.”

타라와 시드니는 음식 타령을 늘어놓지만 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이곳 애들이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있었다. 루스, 티파니 그리고 그 유령. 누구는 예정대로 가는데, 누구는 예고 없이 갑자기 나간다. 하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다들 나가게 된다.

타라가 나한테 질문을 한 것 같았다. 모두들 날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응?”

“오늘 밤은 테비가 리모컨 조종해도 괜찮겠어?”

“그럼, 당근이지.” 간단한 부탁이라도 항상 애들은 투표를 하는데, 이번엔 나도 거기 낀 것이다.

데비가 채널을 너무 빨리 훑훑 돌리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싫어하는지 모르겠다. 잠깐 푸드 채널에 고정하는데, 여자 하나가 앞치마를 하고 진짜 부엌 같이 보이는 데서 애플 브라운 베티를 만들고 있었다.

“이건 아니야.”라면서 리모컨을 버튼을 눌렀다. “디저트 요리프로는 도움이 안 돼.”

몇 채널을 더 돌리더니 집 현관만 보여주는 프로에 멈췄다. 어떤 신 목소리가 나왔다. “당신의 위급상황 어떤가요?”라는 말이 반복되면서 화면 아래에 그 말 자막이 옆으로 지나갔다. 다음 한 아이 목소리가 거의 들을 수 없을 정도로 희미하게 들렸다. “엄마가 바닥에 쓰러졌어요.” 그 아이는 울기 시작했다. 자막에는 “(아이 울고 있음.)”이라고 돼 있었다.

“응급구조 911이다!” 시드니가 소리쳤다. “이거 너무 재밌더라.”

데비는 꼼짝도 안하고 화면을 보고 있었다. “나두.”라고 하면서 시드니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오, 와! 이거 빠트리지 않고 봤는데.” 타라가 말했다.

“나도 그래.” 내가 아주 의외였다는 듯이 말한 걸 알고 있었다.

시드니가 날 힐끗 쳐다봤다. “S. T.” 동생처럼 창의적 사고를 이해시키려고 애쓸 때처럼 지쳤다는 듯 어른말로 말했다. “이 프로는 다들 좋아하거든.”

“오늘은 별로 할 말이 없어요.” 당신에게 말했다.

당신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 말은 만사가 정말 잘 되간다는 얘기에요.”

당신이 웃었다.

“집단상담 할 때도 저녁 먹을 때도 애길 해요. 애들이랑 잘 어울리고 있어요.”

“다행이구나.” 당신이 말했다.

“어젯밤에는 다 같이 텔레비전을 봤어요.”

내 말을 더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아, 우린 내가 지난번에 선생님한테 말했던 프로를 봤어요. 응급구조 911이요.”

얼굴 표정이 변하지 않았다. 당신 그 걸 본적이 있는지 궁금했다. 또 시크 마인즈에서가 아닌 당신의 진짜 생활은 또 어떤지, 다른 사람들처럼 텔레비전을 보긴 하는지도 알고 싶었다.

“다들 그 프로를 좋아하죠.” 당신에게 말을 했다.

당신은 그래 라고도 아니야 라고도 안 했다.

상담하는데 텔레비전 얘기하는 것이 우습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했다.

“정말 좋은 프로예요. 홈 비디오 같기도 해요. 응급구조원들이 환자를 앰블런스로 운반하는 것이 화면에 나올 때 카메라가 가끔 흔들리고 그러잖아요.”

당신은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았다. 당신이 프로를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앰블런스 소리를 엄청 크게 해요. 동생 말이 실제로는 사이렌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요.”

“샘이 응급차에 실려 간 적이 있었니?”

“네.” 이제 관심을 갖는 것 같았다. 얘기를 좀 더 할 생각이다. “사실은 제가 먼저 심폐소생술을 했어요.”

“응급구조원들이 도착하기 전에?”

“부모님이 오시기 전에요.” 난 잠시 혼란스러워서 멈췄다. 어린 동생 얘기하다가 응급구조원 그리고 우리 부모 얘기를 하면서 지금 화제가 새로 바뀐 것이다. 내가 당신에게 뭘 이전에 얘기 했었나 기억이 잘 안 났다. 빨리 화제를 바꿔야겠다.

“네가 동생을 살린 건지도 몰라.” 당신이 분명하게 말했다.

“뭘요?” ‘뭘요?’라고 말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는 괜한 생각이 들었다.

‘다시 한 번 말해 줄래요?’라고 물어봤어야 했다.

“네가 동생을 살린 거야.” 당신이 그 말을 너무 쉽게 하니깐 정말 맞는 소리같이 들렸다.

“아니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몸을 앞으로 숙였다. “왜 그렇게 말하니?”

“몰라요. 그런 건 텔레비전에 나오는 꼬맹이들한테나 가능한 얘기에요.”

“응급구조 911에 나오는 아이들처럼 말이니?”

“네, 그런 거 같아요.”

“너는 동생을 위해 심폐소생술을 해줬어. 너도 911 도움을 받은 거야. 왜 그게 그 아이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하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글쎄.” 당신이 말했다. 당신 눈에 어렴풋이 안달하는 게 확실히 보였다.

“난 너와 생각이 다르단다.”

난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 힘이 들었다. 예전에 없던 화난 것 같은 당신의 눈빛, 그리고 당신의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 말이다.

이해할 수 있다가도 이해가 안가. 맞는 말인 건 같았다. 바다도 소나무도 없는 시 파인즈라고 하는 정신이상자들을 상대하는 상담실 안에서는 가능했다. 하지만 저 바깥세상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켈리?”

당신에게 집중하려고 했다. 하지만 당신은 저 멀리 있는 것 같았다.

“지금 당장 뭘 생각하고 있니? 말해 줄 수 있어?”

난 얼마 전에 당신이 천식에 걸리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감염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한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

“샘은 감염된 거였어요.” 내 말소리가 들렸다.

당신은 기다렸다.

“그날 동생은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그때 엄청 아팠어요.”

동생이 코를 풀고 눈을 비비던 걸 기억했다. “감기 같은 거였어요. 엄마가 병원에 전화를 걸었더니 의사가 동생을 잘 관찰하라고 했지요.”

“천식발작이 처음 온 날 이전부터 아팠던 거니?”

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의사가 잘 관찰하라고 했다고?”

당신이 왜 이리 관심을 갖는지 궁금했다. 난 이번에는 한번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런데 부모님은 외출을 하셨고?”

“엄마는 요양소에 계시는 할머니를 뵈러 가야 했거든요.”

“그럼 아버지도?”

난 어깨를 으쓱했다.

“외출을 하신 거야?”

“네,”라고 하고 나서 재빨리, “아니요. 그게 그거 같아요. 그래야 했거든요. 그래도 괜찮거든요”

“어디를 가신 건데?”

난 입술을 깨물었다. “밖예요.”

“켈리, 오늘은 시간이 다 됐지만 네가 생각해봤으면 하는 것이 있단다.”

난 당신을 힐끗 쳐다보고 나서 고개를 돌렸다.

“제발,”이라고 하면서, “그 날 있던 일을 좀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보렴. 네가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상상해봐. 아픈 동생과 단둘이 있는 다른 열세 살의 어린 여자아이가 처한 상황을 네가 겪었다고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런다고 뭐가 달라질지 모르겠고, 그리고 그럴 생각도 없을뿐더러 모든 걸 다 잊고 애들하고 텔레비전이나 볼 거지만, 그러겠다고 했다.

“다행이다.”라면서 “수고했어, 켈리. 참 잘했어”

휴게실에 아무도 없었다. 텔레비전이 고장 났거든. 난 주위를 서성거리다가 결국 자습실로 갔다. 거기에도 객관식 문제집을 풀고 있는 감시인 신시아만 있고 애들이 없었다. 웃어주고 나고 바로 문제를 다시 풀었다. 난 전에 앉았던 창가 자리에 앉아서 관리실 뒤에 있는 개를 쳐다봤다. 짖으면서 목에 걸린 체인이 닿는데 까지 빠르게 움직이다가 땅에 난 자국을 따라서 다시 자기 집으로 갔다. 그 개가 내가 항상 집단상담 시간에 짖었던 건지 궁금했다.

공부를 하는데 추웠다. 난 팔을 감싸 안으면서 데비가 스웨터를 갖고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데비, 시드니 그리고 타라 아니면 아만다라도 함께 있으면 좋겠다. 셔츠를 여미고 스웨트 셔츠를 가지러 방으로 갈까 생각하고 있었다. 이제 2레벨이니까 그럴 수 있었다. 그냥 일어나서 나갈 수 있었다. 그렇게 해볼까 아니면 데비가 드레스를 그리고 있었던 자리를 통과해서 시드니한테서 받은 쪽지를 슬쩍 밀어 넣을 때 자고 있던 타라 그리고 아만다 의자를 지나가는 가볼까 하고 있었다.

아만다의 의자. 밑에 스테이플러가 있다는 바로 그 자리.

약간 덜덜 떠는 소리를 내며 숨을 내쉬었다. 신시아가 고개를 들었다.

“추워?”

난 고개를 끄덕거렸다.

“어머, 떨고 있는 것 좀 봐.”라면서 “가서 스웨터라도 가져오지 그래?”

난 움직이지 않았다.

“너 이제 2 레벨이지? 혼자 다녀도 괜찮아.”

일어섰지만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당신과 나를 아픈 동생이랑 달랑 둘이 있는 어린 여자아이이라고 했던 당신 말을 생각하고 있었다.

“어서 가봐.” 신시아가 말했다.

갑자기 당신이 동생이 아팠을 때 아빠가 외출한 것을 엄마에게 말할 지 궁금해졌다. 엄마가 화내면 쌤도 화를 낼 테고, 그럼 두 사람 모두 아플 것이다. 쌤이 죽을 지도 모른다. 지금 당장 발작이 올 수도 있는데, 난 같이 어쭙해주지도 못했다. 나도 없는데 바로 이 순간 발작이 오면 어떡하지?



“가보라니까.” 신시아가 강요하듯 말했다. “넌 항상 이곳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구나. 취소하는데 도움이 될 거야.”

난 그때 뭘 해야 할 지 알았다. 정확히 뭘 해야 할 지 감이 왔다.



### III

일어서서 복도 아래로 내려갔다. 감시인 데스크를 지나, 주황색 의자에 앉아 있는 로셀을 통과했다. 손가락으로 잡지 한 쪽을 잡다가 고개를 들더니 다시 읽기 시작했다. 휴게실을 지나는데 아직도 비어있고, 집단 상담실에 아무도 없었다. 아만다 방, 전화 부스 그리고 내 방을 지나갔다. 계단아래 세탁실, ‘현재 위치’라고 쓰인 화재 비상구를 통과했다. ‘비상구’라고 적힌 문 앞에 서있었다.

손잡이를 밀기 전 손으로 그것을 꼭 붙잡을 때까지 기다렸다. 문이 움직이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었다. 하지만 열렸다. 쉽고 조용히. 걸쇠가 짓히는 쟁강 하고 쇠 부딪히는 소리가 나다가 내 뒤로 문이 철컹 닫혔다. 그리고 침묵이 흘렀다. 그 다음 들리는 거라곤 잔디가 밟히는 사각사각 거리는 소리뿐이었다.

뛰기 시작했다. 한 발이 보이면 다른 발은 사라지고, 한 팔이 앞으로 그리고 다른 팔이. 달리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었다.

기분이 좋았다. 나와 '현재위치'라고 적힌 문 사이 거리가 더 멀리 떨어지고 있었다. 그 때 수백 개의 눈이 날 보고 있는 것이 느껴져 멈춰서 뒤를 돌아봤다. 집단 상담실에 커다란 그림이 있는 창문이 어두웠다. 그 옆에 썰렁한 보라색 불빛의 좁은 네모는 화장실 창문인데 항상 불이 켜져 있었다. 화장실 옆에는 까만색의 정사각형들이 일렬로 있는 것은 기숙사 창문인데, 그 때 노랗게 불이 들어왔다. 내 방인 것 같은데, 아마 시드니가 미술 치료를 막 끝내고 돌아와서 침대 위에 널브러져 저녁식사 종이 울리기 전까지 헤드폰을 끼고 음악을 듣고 있는 걸 거야.

난 돌아서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움직이는 것이 힘들었다. 힘껏 속력을 내는데 균형을 잃어서 약간 비틀거리다가 일정한 속도로 달리고 있었다. 시크 마인즈와 바깥세상 사이 마지막에는 관리실이 있다. 그 다음은 숲이다.

관리실 건물 옆에 있는 개가 집 밖에 서서 가만히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 개가 짖어서 내가 나왔다는 걸 모두에게 알리도록 기다리지만 멍멍거리지 않았다. 그 개가 숨 쉴 때 해질녘 추운 공기로 하얀 입김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짹 소리도 내질 않고 있었다.

시크 마인즈 너머 숲 속을 지나가는 것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쉬웠다. 나무들이 고르게 자리 잡고 있고 사이사이 공간이 널찍한 게 누가 줄을 맞춰 심어놓은 것 같았다. 고개를 들어 나무줄기를 따라 위를 쳐다봤다. 큰 가지 위로 가려진 부분을 봤다. 결국 모두가 소나무였다. 소리 내서 웃고 싶었다.

돌아가서 시드니한테 시파인즈에는 정말로 소나무가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계속 뛰었다.

병원 경계지역에는 울타리도 벽도 없었다. 이것도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애들한테 정신병원 안에 우리를 가둬둘 만한 것이 진짜 어떻게 아무 것도 없을 까 하는 것을 말해주면 정말 재미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속 달리다가 길 반대편에 왔다는 걸을 알았다. 오래된 벽돌집 한 채, 그리고 좀 더 새 것 같은 여러 채의 집을 지나갔다. 교차로를 달려서 한편에 가게들이, 맞은편에는 더 많은 가게가 있는 고속도로 갓길로 들어섰다.

얼마나 뛰었는지 모르겠다. 지나치는 것들을 보면서 기억하려고 해도 오른쪽에 테리퀸이 있다는 걸 머릿속에 넣으려는 순간 그게 오른쪽이었는지 왼쪽이었는지 또 테리퀸 이었는지 버거킹 이었는지 생각이 나질 않았다.

점점 멀어져 가면서 모든 게 수정 액으로 지워지는 것 같아서 머릿속에 한 가지만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우리 집 주소 말이다. 마법주문처럼 자꾸자꾸 되뇌었다. 번지수, 거리 이름, 시, 주, 우편번호, 번지수, 거리 이름, 시, 주, 우편번호.

얼마 있으니까 입도 마르고 다리도 저려와. 어두워지고 있었다. 차들이 헤드라이트를 켜지. 발이 무거워지면서 동작도 이상해졌다. 약간 비틀거리면서 길가에 흰색으로 포장된 부분위쪽으로 가다가 갓길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다. 차 한 대가 내 뒤에서 빵빵거렸다. 넘어지면서 자갈을 다져놓은 것이 발 밑에 있었고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나서야 몸에 균형을 잡았다.

저 앞 전봇대 옆에 공중전화기가 있었다. 저기가 내 목표라고 다짐을 했다. 갑자기 저 멀리까지 가는데 삼십여 발자국을 걸을 힘이 남아 있을지 모르겠다. 발은 땅을 스치듯이 질질 끌리고 무릎은 위로 아래로 움직이는데도 공중전화는 좀처럼 가까워지지 않았다. 뛰는 걸 멈추면서, 달리고 정지하는 동작이 어찌면 그렇게도 똑같은까 하는 생각을 했다. 한 발을 들고 나서 다른 발을 움직여서 마지막 몇 발걸음을 떼면서 몸을 이끌고 있었다. 손에 들고 있는 수화기가 얼음처럼 차가웠다. 잠깐 동안 가만히 보고 있다가 돈이 없다는 걸 알았다. 수화기를 놔다가 다시 들었다. 급한 상황이 아니면 911에 전화하면 안 된다는 걸을 알고 있지만 달리 방법이 생각이 나질 않았다. 전화 앞면에 있는 깔끔하게 생긴 바둑판 모양에 네모난 버튼들을 관찰했다. 그 아래쪽 들어있는 버튼에 “0”이라고 적혀있었다. 누르고 나서 들리는 것이 진짜 사람목소리일지 녹음된 것일지 궁금해 했다.

여러 명의 교환원들 사이에 있는 것 같은 진짜 여자 목소리가 “교환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면서 굉장히 서두르는 것 같았다. 트럭 한 대가 덜컹거리며 지나가는 데, 말 그대로 발이 허공에 뜰 정도지. “교환입니

다.” 똑같은 말을 반복했다. 이미 나한테 싫증이 난 것 같았다. 난 전화를 끊어버렸다.

전봇대 주의를 땀들면서 그 교환원에게 뭐라고 말해야 했나를 생각했다. 다른 트럭이 지나갔다. 바람이 내 셔츠를 뚫고 들어왔다. 팔로 몸을 감싸고 따듯해지기를 기다렸다. 더 추워지기만 했다. 수화기를 들고 0번을 누른 다음 다른 교환원이 받아주기를 기도했다.

“교환원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번에는 지친듯하지만 친절할 것 같은 목소리였다.

“네, 네 도와주세요.” 내가 대답했다. “제발요.”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전화를 아직 받고 있는지 궁금했다.

“아빠한테 전화를 해야 하는데요.” 내가 그 말을 하려고 했는지 몰랐어. 그냥 말이 나왔어

잠시 동안 아무 소리가 없다가 그 교환원이 말하길, “수신자부담으로 통화를 원하세요?”

“네, 네, 제발요.”라고 하면서 아빠의 직장 전화번호를 알려주니까 내가 알고 있던 노래반주 시작과 같은 뚜뚜 하는 소리가 바로 이어지면서 들렸다. 아빠가 회사 이름을 대면서 전화를 받았다. 넥타이를 매만지면서 일할 때 특유의 미소를 지은 아빠의 모습을 떠올랐다.

“아빠?”

그 친절하면서 지친 듯 한 교환원의 목소리가 들리면서 켈리가 수신자부담으로 통화를 원한다고 아빠에게 설명을 했다. “통화를 하시겠어요?”

“그럼요. 물론이죠.” 난 한 번에 두 사람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 아빠는, “켈리?”라고 하고 교환원은 아빠에게 자신의 회사를 이용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그때 승용차 한 대가 웅 하고 지나가는 바람에 아무 소리도 들을 수가 없었다.

“켈리? 괜찮은 거니?”

난 추워서 떨고 있었다. “괜찮아요.” 난 “전 괜찮아요.”라고 하려고 했지만 “괜찮아요.”라는 말밖에 나오질 않았다.

“지금 어디 있는 거니?”

난 주위를 둘러봤다. 한 창문에 “세일”라고 적힌 큰 종이에 카펫 간판이 있었다. “잘 모르겠어요.”

카펫 가게는 흔했다. 바로 모퉁이를 돌아가면 우리 집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수백만 마일 떨어져 있을 수도 있었다. “나 도망쳤어요.”

“시파인즈에서?” 토요일 오후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풋볼 팀이 졌을 때처럼 손으로 눈을 가리는 모습이 보였다.

난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근처에 뭐가 보이는 지 말해 볼래?”

고속도로 건너편에 파란색의 주 공식문장에 “노선 22”이라고 쓰여 있었다. 아래 작은 네모모양의 표지판에 “동쪽”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 너머에 던킨 도넛이 있었다.

“노선 22,” 내가 말했다. “동쪽, 같구요. 건너편에 던킨 도넛이 있어요.”

아빠는 공과금 돈을 계산할 때처럼 ‘특특’ 하는 소리를 냈다. “세이빌이야.”라면서 아빠는, “세이빌에 있는 던킨 도넛 근처야.”

난 모르지만 아빠는 내가 어디 있는가를 알고 있다니 기분이 좀 나아졌다. “여기서 한 십오 분 걸리는 곳이란다.”라면서 “거기서 기다려 줄래? 어디 기다릴만한데 찾을 수 있겠니? 던킨 도넛에 있어라, 알았지?” 아빠 의자가 킁 하고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면서, 일어나서 의자를 책상에서 밀고 열쇠를 잡는 모습이 그려졌다.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갈게.”

차들이 훑훑 지나가서 아빠가 ‘안녕’이라고 말했는지도 모르겠다.

난 고속도로 가장자리에 서서 오가는 차들이 없을 때를 기다렸다. 그 래야 던킨 도넛으로 건너 갈 수 있으니까.

차들이 고속도로 양쪽방향으로 끝없이 줄지어 지나가고 있었다. 한 방향에 차가 없으면 다른 쪽이 분주했다. 마침내 반을 건너서 콘크리트로 된 도로 중앙 분리대에 서있는데, 차들이 웅 하고 지나가면서 거의 날 차가 지나간 자리로 빨아들이는 것 같았다. 잠시 후 앞으로 돌진 해 달려갔다.

던킨 도넛 가게는 따뜻하고 밝았다. 작업복 입은 두 남자가 손님 전부였다. 카운터에 있는 그 사람들은 같이 온 모양인데, 얘기는 하지 않고 신문하나를 놓고 각자 읽고만 있었다. 난 반대편 끝에 앉아서 일렬로 놓인 도넛 밑에 플라스틱 레벨을 보고 있었다. 초콜릿을 묻힌 것, 초콜릿을 위에만 묻힌 것, 크림 필링, 커스터드 필링, 젤리 필링. 종류가 다양했다. 난 앉아서 떨지 않으려고 집중하고 있었다.

주방 쪽으로 난 스윙도어가 열리면서 분홍 앞치마와 모자를 쓴 여종업원이 나오고 있었다. 두 남자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커피를 리필해준 다음 내 앞에 와서 섰다. 플라스틱 이름표에 폐기라고 돼 있었다. “뭘 줄까?”라고 물었다.

그 뭐가 뭘까? 궁금했다.

그 종업원이 나를 쳐다봤다. “주문할래?”라고 물어봤다.

“아, 아니요. 네라고요.”라고 말하는데 그때 돈이 없다는 게 생각났다. “물 한잔만 주세요.”

그 여자가 날 위아래로 훑어보지. “그게 다니?”

“네, 고마워요.” 난 말했다. 그녀가 등을 돌렸다. “미안해요.”라고 난 등에 다 말했다.

조금 있다가 물을 가지고 왔다. “고마워요.”라고 말하지만 그 종업원은 다시 가버리더니 엄청 큰 커피 필터를 무지 큰 커피 메이커에 넣고 나서 큰 사이즈 블랙커피를 사가려는 한 사업가 시중을 들었다.

난 훌쩍거리며 물을 될 수 있는 데로 오래 마시려고 했다. 떨리는 걸 멈추려고 애썼다. 신경 써서 애를 써보지만 효과가 없었다. 폐기가 자꾸 이쪽을 쳐다봤다. 보지 못한척하려고 용을 쓰고 있었다. 폐기는 걸레로 카운터를 닦고 있었다. 난 팔로 몸을 감쌌다. 폐기가 뭔가 중요한 걸 방금 결심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결눈질로 보였다. 카운터에 있는 어떤 큰 기계 스위치를 켜다. 웅 하면서 생명의 불이 들어왔다.

그 다음 폐기는 휘핑크림이 예쁘게 휘감겨 올라간 핫 초코 한 컵을 들고 내 앞에 서있었다.

“니가 먹고 싶은 게 이것 같은데.” 그녀는 카운터에 다른 컵을 내 앞 카운터에 놓더니 커피를 튀기며 붓고 나서 한 모금 마시다 삼켰다. 또 한 모금 마셨다.

“도망쳤어?”

그때 난 생각을 했다. 그녀가 경찰에 신고를 할까? 아니면 시크 마인즈에서 도망쳐 나온 애가 결국 여기로 숨어들어 온 적이 있는 건지. 그래서 쫓겨났나? 아니면 험던저로 보내졌을까?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내가 대답했다.

폐기는 시드니가 담배 연기로 도넛을 만들 때처럼 숨을 내 쉬었다.

“어떻게 알았어요?”

턱을 들었다. “코트를 안 입었잖아. 코트 없이 돌아다니기에는 밖은 약간 쌀쌀하거든.”이라고 하면서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니가 급하게 어디를 나온 거라 생각했다.”

난 핫 초코 컵을 손으로 감싸면서 컵에 온기가 손으로 전해지기를 바랐다.

“어디로 가는 거니?” 폐기가 물었다.

“아무데도요. 집일걸요.” 난 어깨를 으쓱거리며 크림 필링 도넛을 바라보고 있었다.

“저거 한 개 먹을래?” 그녀가 물어봤다.

“괜찮아요.”라고 하면서, “돈이 없어요.”

페기는 작은 박스에서 왁스종이 한 장을 휘 잡아 꺼내서 크림이 든 도넛 한 개를 잡더니 접시에 놓고 내 앞에 놔다. “공짜야.”라고 했다. 가게 문이 열리면서 한 가족이 들어왔다. 페기가 가져갈 도넛 열두 개를 고르는 걸 도와주었다. 카운터 저쪽에 있는 두 남자들이 돈을 내고 또 사람들이 들어 오고 나가는 사이에 난 도넛하고 핫 초코를 마시고 있었다.

페기가 다시 와서 커피를 훌쩍거리면서 코를 들썩거리며 “축다.”라고 하면서 헛바닥을 내밀었다. 페기가 나를 살피었다. “니가 여기 있는 거 아는 사람 있어?”

“아빠요. 오시는 중이에요.”

고개를 끄덕이는데 보면 대답에 만족한다는 거야. 난 조금은 자랑스럽기도 했지만 약간 창피하기도 했다.

“잘 들어.” 페기가 말하길, “나도 애가 있어. 지금은 다 컸지만. 그래도 아직은 나한테 얘기야, 알겠어?”

그 말을 너무나 자신 있게 말했다기 때문에 그렇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정말 이해한 건지 모르겠다.

“개 어렸을 때처럼 호들갑 떨어대도 그냥 내버려 둔다니까.”

페기가 환하게 미소를 짓고 있었다. “니 아빠오시면 아마 안절부절 못하실 거야.” 그녀는 커피를 훌쩍거렸다. “암 말 하지 마라.”

아직 몸이 따뜻해지질 않았다. 핫 초코 두 잔을 마셨는데도. 그때 낮익은 흰색 자가용 한 대가 보였다. 그 차가 정지하면서 흔들리고 아빠가 뛰어나와서 문까지 세 번 성큼성큼 크게 뛰었다.

아빠는 코트도 걸치지 않았고, 바람이 불어 머리카락이 여기저기 다발로 군데군데 흩어졌다.

그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오면 난 어느새 따뜻하면서 앞이 캄캄한 아빠 품 안에 있는데, 애프터 쉐이브, 다림질용 풀 그리고 우리 집 냄새가 났다. 아빠의 온몸이 떨고 있지만 난 이제 그러지 않아도 돼.

결국 나를 품에서 떼어놓고 나서 아빠는 수줍어했다. 아래를 힐끗 보더니 뭘 찾는 것처럼 주머니를 가볍게 두드리는 데, 머리 정수리에 머리카락이 예전보다 좀 많이 빠진 걸 눈치 챘다.

다시 머리를 들었을 때 아빠 눈이 젖어 있었다. 내 맘이 아팠다.

아빠가 스틀 의자를 돌려서 내 옆에 놓았다. “합석해도 괜찮을까?”

“아니요. 네 라구요. 괜찮다고요.”

의자가 너무 작거나 해서 걱정이라도 하듯 조심조심 자리에 앉았다. 굉장히 피곤하고 이제 막 일어난 사람처럼 온통 머리는 헝클어져서 지저분해 보이는데, 아빠를 귀찮게 해서 이젠 내가 속스럽고 창피한 느낌이 들었다.

“너 괜찮은 거니?” 드디어 아빠가 입을 열었다.

“그런 거 같아요.” 난 어깨를 으쓱였다.

이 순간 난 더 그럴듯한 아니 최소한 좀 길게 라도 대답해야 할 것 같았다. “네, 사실은 좋아지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상해요.”

폐기가 커피주전자를 가져왔고, 아빠가 좀 달라고 말을 하니깐 앞에 있는 머그잔에 커피를 따라 주었다. 폐기는 아빠를 평가하는 듯 표정으로 쳐다보고, 난 머리를 까딱까딱 움직이면서 이분이 그 분, 우리 아빠라고 말해주고 싶었다. 그녀는 어설피게 웃고 나서 뱅 돌아서 다른 고객을 시중들러 가버렸다.

아빠랑 나는 머그잔을 들고 훌쩍거리면서 바로 앞에 있는 도넛 선반을 유심히 쳐다봤다. 건너편에 있는 벽은 도넛과 커피세트를 광고하는 분홍색 문구가 있는 거울인데, 그 글자들 사이로 우리 둘이 훌쩍거리며 마시고, 동시에 잔을 카운터에 올려놓는 것이 보였다. 아빠가 입술을 깨무는걸 보다가 나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거울을 보고 알았다.

“그 곳, 네가 있는 곳에 전화를 했었는데, 잘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

난 고맙다는 식의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래, 조깅하러 나왔던 거니?” 농담을 했던 얼굴이 심각해지듯.

난 고개를 끄덕였다.

“간혀있는 것 같았니?”

그렇다고 말하고 싶었다. 왜냐면 아빠가 원하는 대답이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말할 수 없었다. 내가 뛰쳐나온 이유는 그게 아니었으니까. 난 어깨를 으쓱거렸다.

오래 동안 침묵이 흐르다가 우리 둘 다 동시에 입을 열었다.

“먼저 말하렴.”

“샘은 어때요?”

“샘? 잘 지내지. 정말 잘 있어.” 날 그렇게 믿게 하려고 아니면 아빠자신을 믿게 하려는 것 같았다. “지난주에는 27이 됐어. 몸무게 말이야.”

“잘됐네요.”라고 말하면서 지난주 타라가 45 킬로그램이 됐을 때 우리 모두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 정말 잘 됐지, 그렇지?” 그래도 여전히 엄청 피곤하고 걱정하는 얼굴이어서 기운 낼 수 있는 무슨 말이라고 해드리고 싶었다. 시크 마인즈에 배운 거 모두 다 말해 주고 싶었다.

그렇게 해서 내가 괜찮다는 걸 아빠가 알게 되면 날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있잖아요.” 아주 멀쩡하면서 이걸 정말 못 믿을 거란 목소리로 “내 잘못된 줄 알았어요. 쌤 아픈 거요.”

아빠는 날 힐끗 보더니 바로 눈길을 돌렸다.

“쌤이 병이 난 게 내 잘못된 줄 알았어요.”

나를 다시 보더니 이번에 생전 처음 본 사람처럼 했다.

“그날 내가 쌤을 돌봤어야 했어.” 아빠는 커피 잔을 보며 말했다.

“알아요.”

그 사실을 정말 내가 알고 있었기에 내 안에 뭔가 조였던 것이 탁 풀렸다. 난 킵을 카운터에 올려놨을 뿐인데 뭔가 정말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막 내려놓은 것 같았다.

아빠의 옆모습을 보고 있었다. 턱에 있는 근육이 테비가 울지 않으려고 애 쓸 때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너무 슬퍼 보여서 뭐라고 말을 해서 기분이 나아지게 해드리고 싶었다.

“괜찮아요.”

“아니, 괜찮지 않단다.”

“아니요, 정말이요.” 내가 우기면서 말했다. “걱정하지 말아요. 아빠는 쌤하고 엄마 걱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너한테는 그렇게 보인 거니?”

“네, 그런 거 같아요. 가끔은요.”

아빠가 손가락으로 머리를 매만지지만 그다지 달라지지 않았다. 난 내 접시 위에 있는 떨어진

파우더 설탕 자국을 따라 그렸다.

“그게, 사실이야. 있잖니, 이제는 네가 걱정되는구나.”

“전 괜찮아요.”라고 난 말했다. 아빠가 내 걱정하는 것이 거의 더 심해진 것 같아. 그런데도 난 그것이 조금은 좋았다.

폐기는 돈을 안 받으려고 하지만 아빠는 내줬다고 하면서 도넛 열두 개를 포장해 달라고 했다. 우리가 계산대에서 종류마다 두 개씩 고를 때

난 아빠에게 봉사료를 두둑하게 주라고 속삭였다. 아빠가 준 몇 달러를 가지고 우리가 앉았던 자리에 가서 핫 초코 머그잔 밑에 끼워뒀다.

폐기가 우리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니깐 아빠는 카운터 건너로 손을 뻗어 악수를 했다. 폐기가 그걸 존스롭게 여기는 것 같지 않아서 나도 악수를 할까 생각했다. 그런데 핑크족 커플 하나를 시중들러 가버렸다.

“여기서 기다려라.”라고 하면서, “차 히터 좀 틀어 놓고 올 테니 그때 나와.”

“네, 알았어요.”

몇 분이 지나서 아빠가 돌아와서 차가 따뜻해졌다고 말했다. 그걸 말하는 모습이 말도 안 되게 행복해 보이던지. 난 폐기를 찾고 있었다. 그래야 충고대로 한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주방에 있는 모양이었다. 우리가 가게를 나가는데 아빠는 문을 잡아주면서 내가 나갈 수 있게 해주고, 주차장에 도착하니깐 차문을 열어주었다. 저 안에서 도넛을 먹는 핑크족 비하면 우리는 참 평범하게 보일 거라는 생각을 했다. 아마 옛날 흑백 텔레비전에 나오는 아빠와 딸처럼 보이겠지만 상관없었다. 실은 난 그제 맘에 드는 거 같거든.

아빠는 차를 후진하면서도 계속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다.

아빠는 “그러면,”이라면서, “어디로 갈까?”

그것은 생각해보지도 않았다.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생각 말이다. 그리고 다음 일은 뭘지를 결정하는 건 나에게 달렸다.

“집으로 갈래?” 아빠가 물었다.

엄마와 동생이 부엌 테이블에 앉아서 각기 뜨개질하고 정리하고, 라이너스는 밖에서 다람쥐를 쫓는 모습을 떠올려봤다. 그리고 시드니가 베란다에서 담배연기로 도넛을 만드는 걸 그려봤다. 타라는 탁구게임 같이 하자고 하고, 또 내가 집단상담시간에 올렸던 그날 동그랗게 있던 발들, 루비의 간호사용 신발을. 또 당신의 천으로 만들어진 조그만 신발도.

난 고개를 흔들었다.

“시크 마인즈로 가요.”

“어디라고?”

“우리는 그렇게 불러요. 시크 마인즈라고. 시 파인즈라고 안하구요.”

“그래.” 아빠는 그러려니 하고 미소를 지었다. “정말 그럴래?”

난 잠깐 그게 내 진심인지 생각해봤다. 그리고 그렇다는 것을 깨달았다.

“예,”라면서 “잠깐 동안 만요.”

아빠가 뭘 생각할 때는 그 ‘툽툽’ 소리를 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다.”라고 했다.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고 우리는 주차장을 빠져 나갔다.

고속도로를 가로질러서 교환원이 도와줘서 수신자부담 전화를 했던 공중전화를 지나갔다. 도로 주변에 있는 가게들이 하나 둘씩 지나쳐갔다. 요란한 판매 표지판이 있던 카펫가게. 비디오가게. 버거킹, 데리퀸. 순간 도망 나올 때 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되돌아가는 것을 알았다.

“좀 천천히 가면 안돼요?”

아빠는 대답도, 이유도 묻지 않고 내가 부탁한대로만 했다.

아빠랑 남은 시간 내내 얘기를 하고 싶었다. 그런데 먼저 말을 꺼낸 거 아빠였다.

“내가, 저기…….널 한 번도 보러 가지 않아서 미안하구나.” 아빠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하면서 날 한번 보더니 도로 쪽으로 눈을 돌렸다.

“괜찮아요.”

“이젠 괜찮다는 말 그만 해줄래?”라면서 “괜찮지가 않아.”

“알았어요.”라고 했다가, “사실 저는 그런 것에 대해 억압된 적개감이 심하거든요.”

아빠가 깜짝 놀라서 난 웃음이 나왔고, 아빠도 웃고 있었다. 마음속으로 아만다에게 고마움을 느꼈다. 날 어떻게 도와줬는지 짐작도 못하겠지만 말이다.

“그래도 면회하는 날 엄마랑 샘을 데려오셨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했니?”

“몰라요. 그냥 내 생각에…….”

“그게, 난 가지 않았어.”

아빠는 백미러를 보면서 차선을 바꾸고 나서 얘기를 계속 했다.

“네 엄마가 직접 운전한 거야.”

“정말요?”

“정말이지.”

엄마랑 샘이 안전벨트를 매고, 엄마는 몸을 앞으로 내밀고, 양손은 운전대를 잡고 안쓰러울 정도로 천천히 운전하는 모습을 상상해봤다.

“와!” 이 말 밖에 할 말이 없었다.

한 줄기 빛이 백미러에 반사되어 아빠의 모습을 비쳤다.

“사정이……이젠 조금 달라졌단다.” 아빠가 머뭇거리며 말했다.

“무슨 말이에요?”

“네가……떠난 뒤부터, 그게……이름이 뭐더라? 시크 마인즈?”

내가 씩하고 웃었다. 그게 아빠 입에서 나오니까 우습게 들렸다.

“우리 요즘 좀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단다.” 라면서 “네 엄마랑 나 말이야. 난, 어, 집에 좀 자주 있으려고 노력 중이야.”

엄마는 뜨개질, 쌤은 그걸 정리하는데 아빠가 부엌 테이블에 앉아 있는 모습에 영 상상이 안 가지만 내가 믿어줘야 한다는 아빠표정에 그 말을 믿고 싶었다.

우리는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빠는 내 얼굴을 살피려고 백미러로 날 봤다. 뒤차가 경적을 울려대고 있었다. 아빠는 지금 우리가 차가 많이 다니는 번잡한 도로에 있다는 것을 감박한 것처럼 백미러를 다시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시크 마인즈 입구에 가까워져서 난 아빠에게 들어가기 전에 주위를 한번 드라이브하면 안 되겠냐고 부탁했다. 속도를 줄이더니 입구를 지나쳐 갔다. 우리는 천천히 군데군데 흩어진 집 몇 채들을 지나 모퉁이를 돌아서 한 주택단지를 조금씩 지나가고 있었다.

난 도넛상자를 배 쪽으로 끌어안으면서 다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어떤 기분일까 생각하고 있었다. 차 계기판 시계가 일곱 시 십이 분이다. 내가 도망치고 나서 이제 서너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꼭 며칠이 지난 것 같았다. 일곱 시 십이 분이면 모두들 저녁 자습을 하고 있을 거야. 시드니, 타라 그리고 데비. 아만다도. 루비는 신발 소리를 내면서 복도를 순찰하고 있겠지. 그런데 갑자기 그곳에 가고 싶어졌다. 지금 당장 말이다.

“이제 됐어요.” 아빠에게 말했다. “이제 들어가요.”

나는 브리언트 선생님 사무실 밖에 있는 대기실에서 여전히 도넛상자를 무릎에 올려놓고 앉아있고, 아빠는 안에서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다. 주차장에서 오는 길에 난 아빠에게 험딘저로 보내거나 아니면 쫓아낼까 봐 겁난다고 말했다. “아빠한테 맡겨라.”라고 아빠가 말해줬다. 폐기의 충고가 떠올라서 일단 들어가서 아빠는 아빠의 역할을 난 그냥 아이역할에 충실하기로 했다.

브리언트 선생님과 아빠가 나올 때 난 아빠 머리카락이 아직도 바깥바람에 형클어져 있는 걸 눈치 챘다. 바로 달려가 빗으로 다시 깔끔하게 머리를

만져주고 싶지만, 브리언트 선생님 표정을 보면 나 더 중요한 일을 걱정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네가 우리 모두를 걱정시켰단다.” 모두 앉고 난 후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다.

“죄송해요.” 이렇게 말해야 예절 바른 행동이란 걸 알고 있다.

“그래.” 선생님 얼굴에 미소 같은 것이 보였다. “돌아와서 기쁘구나.”

“저두요.” 갑자기 난 진심으로 그 말을 했다.

다들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표정으로 날 쳐다봐서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시킬 말을 열심히 찾느라 애먹고 있었다.

“난……내가 원하는……내가 원하는 건…….” 그리고 그때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티파니가 집으로 가던 그날, 처음 봄이 오는 걸 느꼈고, 그때 꼬마들이 자전거를 타고 아빠들은 그릴에서 요리를, 엄마들은 레모네이드를 만드는 상상을 했었다. “난 낮고 싶어요.”

아빠가 뭔가를 찾는 것처럼 주머니를 가볍게 툭툭 쳤다. 하지만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뭔가를 그냥 애써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낮고 싶은 것이 올 일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빠를 보고 웃어드렸다.

아빠와 브리언트 선생님은 일정이나 보험 같은 어른들만 아는 얘기를 하고 있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는 기숙사에 돌아갔을 때 애들한테 도넛을 한 개씩 돌려도 괜찮을지를 어떻게 알아봐야 하는가가 전부다. 그리고 내 일아침이 되면 가장 먼저 당신 상담실로 갈 것이다. 그리고 당신에게 모든 것을 말해 줄 것이다.

## 저자약력

이 책의 저자 패트리샤 맥코믹(Patricia McCormick)은 미국 펜실베이니아 소재 로즈먼트 대학, 콜롬비아 대학교와 뉴욕 소재 뉴스쿨 대학교에서 수학했으며, 그녀의 저서로는 Cut을 비롯하여 My Brother's Keeper(2005년 출판) 그리고 올해 9월 출간 예정인 Sold가 있다. 주로 청소년들의 고민과 문제를 주제로 창작과 여러 저널지의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 참고문헌

안정효, 『안정효의 영어 길들이기, 번역편』, 현암사, 2004

최정화, 『최정화 교수의 통역 번역 노하우』, 넥서스, 2001

최정화, 『통번역입문』, 신론사, 1998

서영조, 『처음 만나는 자유』, 궁리, 2004